

《교육월보》와 함께  
학교를 새롭게, 교육을 새롭게



《교육월보》는 독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의 벗이 되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대화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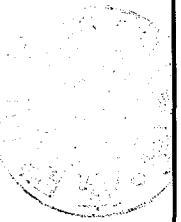
어떤 것은 이제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훗날 다시 찾게 될  
지혜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교육월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전화: (02)736-3977·(02)738-2343  
팩스: (02)736-3670·하이텔: 7363977

# 교육월보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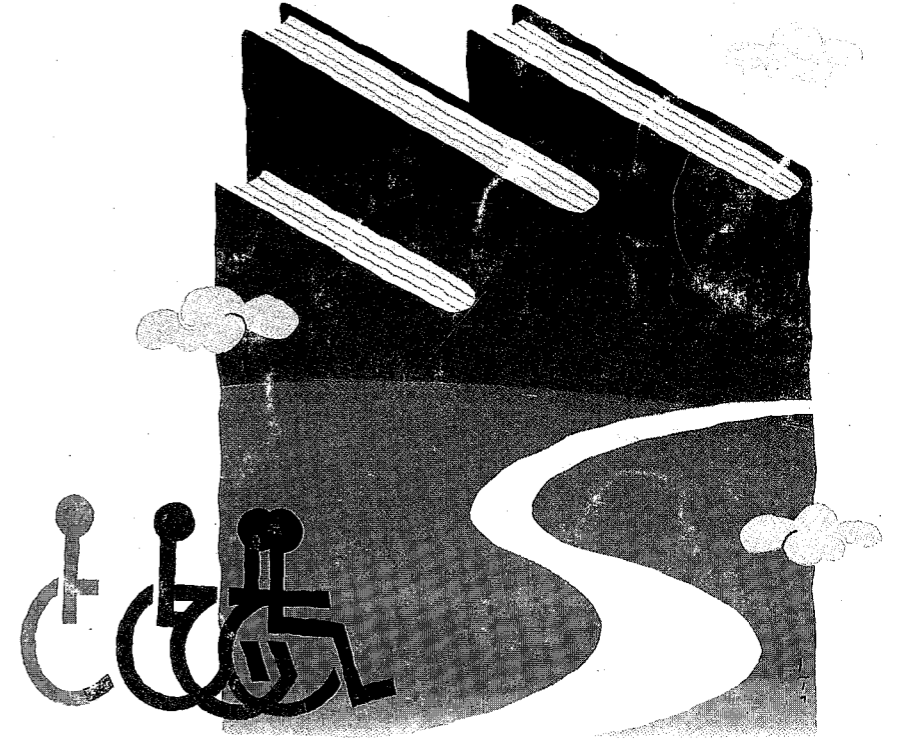


제16권 제2호 통권182호 정기회심외번호 86 12.5.81-1977년 2월 1일 발행  
정기등록번호 27000 81103 32 93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교육부 110 780

**특별기획**

**복지 사회 구현과 특수 교육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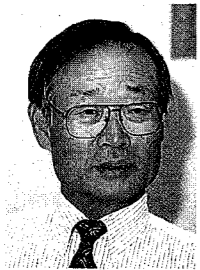
초대석 · 김란수 광주대학교 총장  
이 달의 선생님 · 장애아 재활 교육에 헌신해 온 곽준기 교장  
기획 적담 · 한국의 특수 교육, 그 오늘과 내일  
교육 정책 · '97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



**교육부**



## 고교 교과에 컴퓨터 과목을 넣자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 빨리 성장할 가능성도 결정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네터즌이 되는 일이다. 모든 국민이 정보에 대해 눈을 떠서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정식 교과로 컴퓨터를 넣고, 이것을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 고등 학생들 모두가 컴퓨터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전부다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교육을 위하여	2	고교 교과에 컴퓨터 과목을 넣자/이용태
권두시	4	꽃피는 철이 오고 있으니/강남주
교육 현장은 말한다	6	서경훈/천정희/우정렬/이강신
초대석	8	<b>김란수 광주대학교 총장</b> /오선희
이 달의 선생님	22	장애아 재활 교육에 헌신해 온 박준기 교장
시론	12	열린 사회와 열린 교육/양창삼
	15	문화 유산 바꾸기/정육자
	18	아름다운 국토 환경을 위하여/이건영
	20	학생들에 대한 비판 교육 강화/강제현
교육에 바란다	(36)	학생 의무 독서 교육 필요하다/김성룡
인터뷰	120	김학구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사무국장
기획 좌담	38	<b>한국의 특수 교육, 그 오늘과 내일</b>
		김승국/김장현/박추자/서광용/여광용/한홍석
특별 기획		<b>복지 사회 구현과 특수 교육의 과제</b>
	46	현대 사회와 장애인/김미선
	50	특수 교육, 그 패러다임의 전환/김정권
	54	특수 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김원경
	58	특수 교육의 경영, 그 질의 관리/정정진
	62	장애인의 전환기 교육/김영환
	66	특수 교육과정의 성격/김병하
	72	통합 교육에 대응하는 교수·학습 전략/김삼섭
	76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김효선
교육 정책	26	<b>'97년도 주요 업무 계획</b>
	80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향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
	90	지난 달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교단 성공 사례	106	체험 중심 클럽 활동 전시회/원의자
나의 스승	88	경기 민요의 예술화를 이룬 신비취 선생님/이춘희
신국토 기행	100	화왕산의 정기, 창녕/글 신영훈, 사진 김대벽
북한 소식	108	북한의 애국미 헌납 운동/장수근
교육 정보	110	첨단화술정보센터 출범과 기대 효과
	112	좋은 책 안내
교단 문원	114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김대식
	115	겨울 선인장/김형태
교육 뉴스 종합	116	시·도교육청 뉴스
교육월보 지상전	121	소종합/이경재

## 국정 지표

### ● 신한국 창조 ●

1. 깨끗한 정부
2. 튼튼한 경제
3. 건강한 사회
4. 통일된 조국

정간위심의번호 96-12-5-81  
1986년 10월 8일  
발간등록번호 27000-81103-32-9301  
1982년 1월 20일 창간  
1997년 1월 31일 인쇄  
1997년 2월 1일 발행  
월간 교육월보 통권 제182호  
발행인: 교육부장관 인병영  
[111]-[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 736-3977, 738-2343  
FAX: 736-3670  
하이텔 ID: 7363977  
인쇄: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월보>에 게재된 내용은  
교육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서(24대) 교육개혁위원장, 정원식(27대) 전 국무총리, 이영덕(25대) 전 국무총리, 안병영 교육부장관, 장범모(14~15대) 전 한림대 총장, 한기언(26대) 전 서울대 교수, 김중철(20~21대) 전 우석대 총장, 뒷줄 왼쪽부터 신극범(현 회장), 황응연(32대) 한국고등교육연구소장, 정재철(30대) 전 중앙대 교수, 함종규(28대) 전 숙명여대 교수, 유봉호(29대) 전 0학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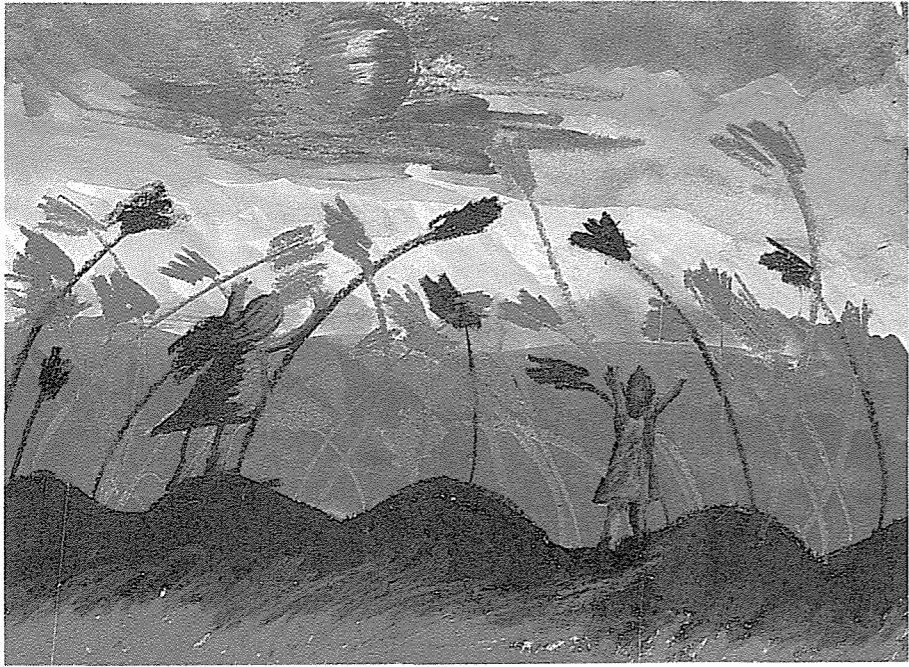


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베풀고 지난날 김 대통령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 주며 바르게 자랄 것을 당부했다.  
 ② 정부는 "97문화 유산의 해"를 맞아 지난 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 유산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③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10일 교육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사와 교보생명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초·중·고교 신문 및 교재 콘테스트 시상식에 참석, 우수 수상자를 표창 격려했다.



④ 한국교육학회(회장 신극범)는 지난 1월 28일 서울 롯데호텔 버클리룸에서 역대 회장 및 임원 신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안병영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전임 회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⑤ 교육부는 지난 1월 17일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97년도 교육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⑥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23일 신임 인사차 예방한 질베스 주한 페루 대사를 맞아 양국간의 교육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⑦ 이영탁 교육부차관은 지난 1월 23일 방한 중인 안드레이 벤츠크 슬로바키아 교육부차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교육 교류 협정의 체결과 슬로바키아 내 한국어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 협의했다.

권두시



(10) 단국대학교 미술교육과 2학년·01) 최영신 역세우기·신인혜(경남 창원 최남 명동초등학교 2학년·01)

꽃피는 철이 오고 있으니  
- 장애자를 위하여 -

강 남 주

겨울의 끝에서 눈발 쓸어 내며  
얼었던 새강 풀려나듯이  
엷디었던 땅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봄이면 모두들 어두운 잠을 털어 낸다.

땅속 뿌리 움직이고  
하늘 가장자리 흔들리더니  
매말랐던 가지에서 새움 돌아난다.  
봄이면 반드시 돌아난다.

찬바람에 옷매무새 여미며  
매화 그렇게 피어나고  
진달래 여윈 손가락 끝에서  
정열의 불꽃은 달아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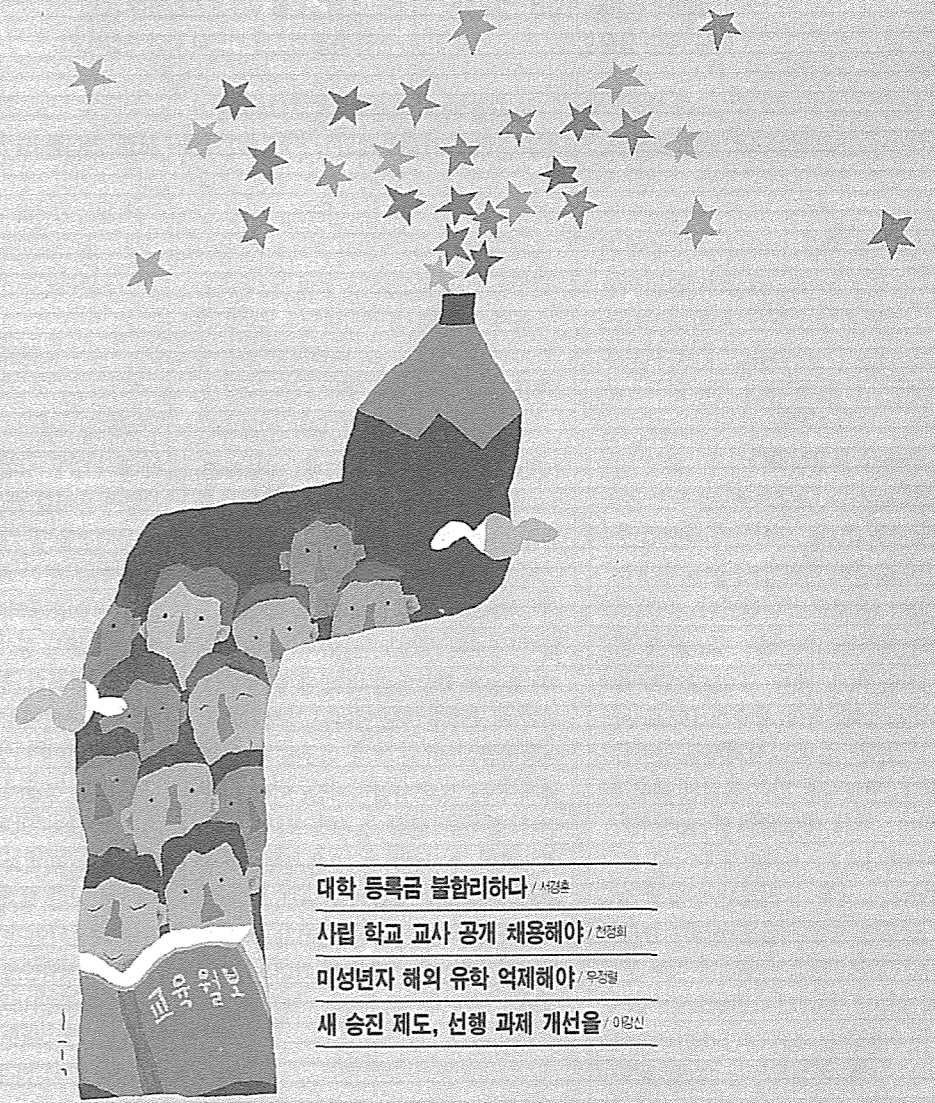
천지가 가득히 푸름을 준비한다.  
봄이면 반드시 그런 준비를 한다.

겨울이라는 두터운 외투를 벗으며  
우리도 봄이면 하늘을 쳐다본다.  
푸른 꿈의 큰 새 되어 큰 날개를 단다.  
봄이면 반드시 마음에도  
꿈의 날개를 단다.

꽃피는 봄은 이렇게 오고 있으니  
가지개를 주욱 펴고 난 뒤  
더 멀리 뛰자.  
더 높이 날자.  
천지는 이렇게 따스해지고 있으니.

교육현장은 말한다

《교육월보》는 교육현장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불합리하다 / 서경훈

사립 학교 교사 공개 채용해야 / 천경희

미성년자 해의 유학 억제해야 / 우정렬

새 승진 제도, 선행 과제 개선을 / 이광신

'교육월보'는 항상 교육현장과 함께 숨쉬고 그 속에 깨어 있고자 합니다. 들려 오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편집 방향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교육 문화의 마당을 열겠습니다. 여기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지 두 장에 농축시켜 보내 주십시오. 우편, 팩시밀리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실린 분에게는 그 달치 교육월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TEL: 736-3977, 738-2343 FAX: 736-3670

# 교육 현장은 말한다

우리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평을 기다립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제도나 관행, 그리고 불만스러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설적 제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그달치 '교육월보'와 소정의 원고료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소속 기관, 거래 통장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10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교육부 중등장학관실 '교육월보' 편집실, TEL(02)736-3977, FAX(02)736-3670, 하이텔 ID 7363977

## 대학 등록금 불합리하다

서경훈 전남 화순실업고등학교 교사

지난 1월 20일 저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가 터무니없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계열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의학 계열은 404, 체육 계열은 158, 음악 계열은 156, 약학 계열은 155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회계열 등록금이 200만원이라면 의학 계열의 경우 8백8만원, 체육 계열은 3백 16만원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신입생 등록금을 보면 사립대 인문·사회계는 연간 평균 3백59만 2천원인 데 비해, 의·치학계는 5백 41만 6천원으로 평균 1.5배, 약학계는 5백 18만 8천원으로 1.44배, 공학·예능계는 1.27배, 어학·체육계는 1.17배였다.

이들 학교의 실험·실습비 지출을 보면, 인문·사회계가 학생 1인당 연간 2만5천 4백원인 데 비해 의·치학계는 18만5천 7백원으로 7.3배, 약학계는

10만 7천9백원으로 4.25배, 예능계는 3.8배, 체육계는 3.5배, 공학계는 3.6배를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낸 등록금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계나 예·체능계 학생들이 더 내야 할 등록금까지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금이 비싼 것이 학부모의 등을 굽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어려운 형편에 실제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은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굵은 학부모의 등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본다.

대학 당국은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란다.

## 사립 학교 교사 공개 채용해야

천정희 서울종로구 창신1동

학교 교육의 대부분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몇 년 동

안 교사 임용 시험이 치러져 왔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사람으로서 임용 고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째, 시험이 치러진 후 정답과 함께 문제지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을 뿐더러 교육학 과목의 경우 수험생들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기출문제를 알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웃지 못할 일은 사람마다 정답이 다르고 교육학 학원마다 정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세계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폐쇄적 시험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처음으로 전공 시험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너무 황당하고 예상 외라고 했다. 21세기 우리 교육을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너무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능하다면 교육부는 문제의 출제 의도 또한 공개해서 앞으로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미리미리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 해 필요한 각 과목의 수업을 1년 전에는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같이 공부한 가정 과목 수험생이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공고는 시험을 치르기 약 20일 전에 났다. 전국적으로 가정 과목의 교사 수요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의 실망은 대단했고, 교육부에 대한 원망도 대단했다.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의 임용 고시가 정착되고 사립 학교 또한 국공립 학교와 똑같이 공개 채용을 실시해 교사 임용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미성년자 해외 유학 억제해야

우정렬 부산 해광고 교사

최근 정부가 국제 수지 축소 방안의 하나로 미성년자 해외 유학 억제 조치 방침을 정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다.

요즘 웬만한 집안에서는 자녀를 외국에 관광보내든지, 어학 연수를 시킨다든지, 국내 대학 진학이 어려워 조기 유학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다. 오죽했으면 중·고생들 사이에서 "유학이나 가 버릴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물론 해외 유학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해외 견문도 넓히고 외국어도 배우고 외국의 문화나 생활 습관 등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난 '88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래로 초·중·고교생의 무분별하고 막무가내식의 해외 유학이 급증해 대다수 국민들의 빈축과 비난을 사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상급 학교 진학에 자신이 없어 일찌감치 나가 버리는 도피성 유학과 공부보다는 즐기고 놀러 다니면서 흥청망청 돈을 써대는 사치성 유학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개 유학생 중 10% 정도가 전공 과목 연구 및 학문을 위한 유학이고 나머지는 도피성 내지 사치성 유학이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학생 송금 액수만 10억 1천만 달러에 달했고, 보통 유학생 1인당 한 달 비용만 평균 1백만원 정도라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사실상 국익이나 개인의 성취감보다는 그저 관광이나 다니고, 아까운 외화만 낭비하는 유학이라면 해외 조기 유학은 자제시켜 마땅하다. 아무리 해외 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치나 허영·방종에 물들고 돈이나 낭비하며 나라 망신이나 시키고 남이 가니 나도 가자는 식의 유학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승진 제도, 선행 과제 개선

이강신 경기도 군포시 신흥초등학교 교사

97년 새해 벽두부터 승진을 앞둔 중·장년층 교사들과 젊은 교사들간에 50:50으로 팽팽히 맞섰던 교원 승진 제도가 입법 예고돼, 언제나 그랬듯이, 반쪽이 만족하는 새 제도가 법제화 될 것 같다. 그 주요 골격을 보면, 젊고 유능한 교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경력 점수 만점 년수를 단계적으로 낮춰 2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래 연공 중심의 승진 제도가 배제된 것이다.

또한, 도서 벽지 점수도 낮춰진 대신 연수 및 연구 점수를 높여가거나, 강화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연구 점수를 강화하는 데는 선행돼야 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현재, 연구 점수를 따는 데는 석·박사 학위를 비롯해서 현장 연구, 자료 제작, 인성 교육 사례 연구 등이 있으

며, 체육 지도를 하여 전국 대회에 입상케 지도한 경우 등에서 입상 등급에 따라 연구 점수를 주는데, 이러한 연구 점수를 따기 위한 교사들의 연구 활동이 모두 현장 어린이들에게 교육적 이득보다는 직·간접의 피해를 줄 뿐이며, 동료 교사들에게도 불신과 불만의 응어리만 굳혀 갈 뿐, 연구 결과가 일반화 돼서 교육 현장에 공헌하는 바는 거의 전무한 데도 개선의 여지 없이 연구가 능력인 양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원 출장으로 결근할 때는 자기 반 자습시켜 놓고 동학년 교사가 보결 수업해야 하고, 학교 업무 협조 체제도 공백이 생겨 동료 교사의 불만을 사기도 하며, 특히 연구 결과로 인한 학위 자체가 현장 교육에 얼마만큼 공헌을 하느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장 연구나, 자료 제작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어린이를 통한 교육 활동을 실천 위주로 연구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 결과 후에도 일반화 가치가 없어 사장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돼 타시도, 또 시군을 옮겨 출품돼 입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논문 제작 대행사 및 자료 제작 대행업소가 공공연히 성업을 이루는 데도 연구 활동과 그에 따른 점수 주기는 개선의 여지 없이 능력이라는 명목으로 미화돼 교직 사회를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런 반면, 실제로 운동장에서 또는 교실 구석에서 어린이들과 씨름하며 예체능 지도를 했으나 전국 대회를 못나간 시군, 시도 대회 입상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수업 실기, 수학 경시대회 지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능력 위주의 우대 방안이 자칫 골깊은 교직 사회 황폐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 도량과 포용력이 큰 세계 시민 길러야

## 김란수 광주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우리 나라는 지금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큰 과제를 안고 각 분야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길러 낼 수 있는 꾸준한 교육 개혁의 추진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고등 교육 분야를 연구해 오고 계시는 김란수 광주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미래 지향적인 고등 교육 개혁 방안 및 우리 나라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 대담·오선희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총장께서는 우리 나라 교육계의 원로로서, 여러 단체 활동을 통해 한국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해 오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특히 어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60년대 초인 1963년에서 1967년까지 약 4년 동안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 일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저에게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의 시대이니가 그 일의 연장선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세계화와 교육의 과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강연도 하고 글도 씁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대학의 행정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의 학사 행정에 참여하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 등이 최근 저의 관심 영역입니다.

총장께서 UNESCO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작년에 '관용과 비폭력 정신의 신장을 위한 국제 회의'를 지방 도시

인 이곳 광주에 유치하시고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의의와 이곳에 유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원래 UNESCO가 UN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95년에 'UN 관용의 해'라는 것을 설정해서 UNESCO 회원국들이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관용의 정신과 관용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 때, 제가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광주에서 갖자고 건의서를 냈습니다. 교역량이 세계 11위권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서울에서만 중요한 국제 회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곳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신군부가 정치적 야심을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군부 독재에 항거를 하는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학살했던 민족사의 비극이 아직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광주에서 '관용'을 주제로 이 방면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데에 세계사적인 뜻이 있다고 보아 이 회의를 광

주에서 갖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개국 대표 30여 명이 이곳에 와서 사흘 동안 '관용'에 대한 중요성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논의했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의 국제 사회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상호 모순된 논리가 동시에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21세기를 살아 갈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얼핏 보기에는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면 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세상 모든 일은 선의의 경쟁이 없이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의의 경쟁도 공동 복지를 증진하게 하기 위한 상호 협동을 전제로 해야 되고, 경쟁과 협력을 양극 상태로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를 조화시키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자기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교육에서 앞으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하나의 학생들이 개성



김란수 총장은 오선희 교수와의 대담에서 21세기를 살아갈 도량과 포용력이 큰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했다.

이 뚜렷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공동 복지를 증진하는 데 상호 협동하는 덕성을 갖춘 그런 인간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열린 교육, 평생 학습 사회'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는 이와 같은 열린 교육을 실천하는 최고 교육 기관을 맡고 계시는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21세기 사회는 지식 산업이 주가 되는 사회입니다. 즉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죠. 흔히 정보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의 역할은 학술,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연구 중심체가 되어야 해요. 대학의 연구를 기업이 활용해야 하고, 기업의 연구 자원과 시설을 대학이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체와 대학이 여러 가지 연계를 가져야 하고, 인적 자원을 서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부 교육을 광역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과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광주대학교는 학과의 전공 필수를 최소화시키고 지도 교수의 허락만 받으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개성을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는 각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1인 1과정주의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개성이 다른 만큼 그에 맞게 지도 교수의 허락 아래 무슨 과목이든 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방목주의'로 표현하는데,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광주대학교 학생들도 전부 가능주의(possibilism)의 신봉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학교는 가능주의의 신봉자

가 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대학 교육이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광주대학교의 현황과 경영 방침, 특수 시책,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광주대학교는 현재 국회의원직과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호심(湖心) 김인곤 선생께서 젊은 날에 노심초사하면서 창설한 대학입니다. 이 분은 사심 없이 모든 것을 쾌척하여 광주대학을 설립하고, 능력인, 자기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내인, 민주적인 지성인 양성을 대학의 창설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의 교직원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9개 학과가 5개 대학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주야간을 합하여 1만 3천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경상대학원과 언론대학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연구 중심 대학이 있고 교육 중심의 대

학이 있는데, 저는 광주대학의 창설 이념에 비추어 봐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교육 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면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주도성을 가져야 하므로 교수와 직원의 참여를 적극화, 효율화시켜서 학사 행정을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룩하게 하려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총장의 역할이란 근본적으로 알찬 조직자, 짜임새 있게 맡겨 주는 위임자의 역할, 맡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원만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 내용은 중요한 국제어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에 통달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에 능통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산업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한국학 국제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열한 번째 교역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권의 젊은이들이 광주대학교에 와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 학생을 직접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 용돈도 주고, 국내 여행 및 자기 연구도 하게 하며, 자기 나라말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자는 생각입니다. 이일은 다른 대학들도 공동으로 노력하여 대학의 국제적인 적응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께서는 인성 교육 차원



### 김만수 총장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문학사)  
미국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of Vanderbilt (M.A., Ph. D.)  
연세대 교수(1960~90)·교육대학원장  
한국고등교육연구회장  
교육부 중앙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  
현재 광주대학교 총장  
UNESCO 본부 국제문화교육상심사위원  
UNESCO 관용연구위원회 위원장  
저서 : <민주시민교육의 방법>(1964)  
<Korean Education in Research Perspectives>(1985)  
<대학개혁론>(1989)의 다수

에서 초·중등 교육, 특히 초등 교육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총장께서는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10년쯤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가는 경제 강국으로 될 것으로 거시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때를 대비해서 전문 지식 교육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 바탕을 마련하여 우리와 다른 문화, 종족, 생각을 포용하는 정신 자세를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인간의 여러 발달 가운데 가장 일찍 발달되는 것이 정서적인 발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꼬마들이 두세 살이면 크게는 정서 분화가 다 되어 버립니다. 기질이라고

도 하는데, 이것이 한 번 잘못 형성되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 비해 지식이 모자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마음이 약한 개별주의가 되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흑인들과 갈등이 왜 일어났어요? 포용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교육이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선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또 소집단으로 돌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대단하지만 그 교육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어렸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 교육에서 특히 성격 교육,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교육의 바른 방향입니다.

총장께서는 60년대에 '민주 시민의 교육 방법'이란 책을 내놓으셔서 교육자들의 관심이 컸었다고 들었고, 지금 현재도 관용과 민주 시민 교육을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내용에 중학교까지는 민주 시민 교육을, 고등 학교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제 사회 무대에서 주요한 국가로 역할을 바꿔 나가려면 도량과 포용력이 큰 한국인이 되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관용 교육도 같은 맥입니다.

결국 관용이라는 표현이 어느 면으로는 참을성, 참고 남을 포용한다는 의미인데,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생각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념입니다. 차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 생활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UNESCO는 종족·문화·종교의 차이를 수용하는 포용력을 높이지는 의도를 'Tolerance'로 표현하였는데 민주주의는 이 관용 정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여 년 전에 시작한 일을 이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역점을 달리 해서 UNESCO와 협력하여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대학 교육이 잘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고등 교육을 위해서 정부나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93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2주 있었어요. 이 나라를 둘러싼 아랍권의 인구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4백 50만밖에 안 되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국들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살아 남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1천만 명의 이스라엘 인이 조국이 어려울 때면 즉각 돕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히브류 대학이 세계 10대 명문 대학의 하나로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훌륭한 대학이에요.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주역이 되려면 우리의 대학들이 연구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 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 사교육비가 17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2년 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조원이 과외를 하는데 쓰이고 있어요. 과외 지도라는 것은 결국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교육비로 사용되게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선희 교수

국립 Berlin 종합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졸업  
동 대학 대학원 졸업(석사)  
Berlin Presenta Modem(베르린 프레젠타 모뎀) 디자이너 근무  
국립 Berlin 종합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학과 전임강사  
현재 광주대 예술대 의상학과 부교수

둘째로, 수능 고사를 제대로 역량 검사가 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즉, 수능 고사를 통합 교과적인 방식으로 출제를 하되 전공 교수들이 연구 결과를 받아서 매우 타당도가 높고 고차적인 정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출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씩 이틀 내지 사흘을 치르게 하여야 역량 검사(power test)의 기능 발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전국을 4개의 대학권으로 갈라서, 예컨대,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그리고 서울권으로, 첨단 학술 연구·과학 기술 연구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 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국립 대학 위주로 그것도 개별 대학 단위로 분산시켜

서 재정 투자를 하면 대학 사회의 폐쇄성으로 보아서 그 활용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의 등록금 차별제를 없애야 합니다. 등록금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받고, 교육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를 개발하는 척도 즉, 영어로 Talent Identification Scale을 만들고 영재 발굴 고사를 시행하여 영재를 찾아 내고, 등록금 전부를 장학금으로 주어 우수 인재로 길러 내야 합니다. 국립 대학 운영은 특수 법인체로 해서 인재를 육성하지는 겁니다.

교육부는 금년을 교육 개혁 내실화의 해로 정하여 전 교육 가족의 분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원로로서 우리 교육 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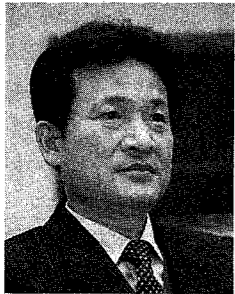
교육 개혁은 민족의 활로 개척에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개혁을 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 성실, 유능, 근면한 근로자들을 육성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이제는 창의적인 두뇌를 가지고 나라의 공동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학생들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입국에 투철한 의식과 겨레의 스승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앞날을 개척해 주는 교육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 물질만능, 금전만능주의, 물신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교육계만이라도 정화되어서 교육자들이 우리 국민의 기상을 바로 세우고 드높여 주는 긍지를 갖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열린 사회와 열린 교육

양창삼



양창삼  
한양대 경상대학장

## 열린 사회는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열**린 사회의 기본은 창조적 변화이다. 창조적 변화가 없는 곳에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낡은 생각과 구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변화를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 내가 속한 조직보다는 다른 조직,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보다는 다른 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정작 나인데 자꾸만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상대부터 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가 매양 이렇다면 열린 사회로 나갈 수 없다. 열린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의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청년 시절에 혁명적인 태도로 살았다. 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도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인생의 절반이 날아갔음을 깨닫고 그의 기원은 이렇게 변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가족과 친구 등 내가 접촉하며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으

로 만족하자.” 그 뒤 노인이 되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가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변화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은 뭔가 변해 있을 것이다. 열린 사회를 위한 열쇠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여러모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는 백인 정권 아래서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다. 그가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고통을 뚫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의 인간적 성숙성에 있다. 그는 타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옥 생활에서 내가 가장 염려한 것은 나의 생각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딱딱하게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 놓고 있었다. 그것이 색다른 것이라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해서 배척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늘 우리의 기존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따져 보곤 했다. 그 덕택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늘 다른 시각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해 수용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열린 사회는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이롭게 바라보고, 자기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배우고 추구하는 자세에 있다.

##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열린 사회

20세기를 움직인 철인으로서 러시아의 레트로스키와 오스트리아의 포퍼가 꼽힌다. 레트로스키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며, 포퍼는 열린 사회의 이념을 제시한 비판적 합리주의자이다. 한 마디로 열린 사회를 위한 철학자들이다.

레트로스키는 사회악이 제거되고, 법과 윤리가 정당화되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단순히 정치적 혹은 경제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과 인류가 당면한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즉, 경제적인 침체와 함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폭력의 심각성,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서 생긴 환경 오염 문제, 관능적 쾌락주의로 인해 무너진 도덕성 회복 등을 통해 소련이 현대 문명의 전개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문명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포퍼는 비판적 합리주의를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능한 최선의 처방을 제시해 준 철학자이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성적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달이 찬양

우리는 보다 우리의 교육 형편을 비판적 안목에서 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며, 창의성이 높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득권만 고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미래를 향해 창조적으로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변화하면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실은 가득차게 될 것이다.

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종교적 태도로 무조건 신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합리적 판단에 호소해야 하지만, 이것을 신의 계시나 되는 것처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열린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독선과 자기 과신이 아니라, 남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을 고쳐 나갈 줄 아는 겸허한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가 보편화될 때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성립될 수 있다. 포퍼는 이처럼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열린 사회라 불렀다.

포퍼는 무엇보다 인간 역사가 냉혹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을 배격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지식의 성장에 의해 역사가 전개된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마르크스나 헤겔 등의 역사 발전 법칙론과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전체주의적 논의로 비판하면서 이들을 ‘열린 사회의 적들’로 규정했다. 포퍼가 전체론에 거부감을 보인 것은 그것이 전체적 통제와 계획을 주장하는 정치적 전체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역사적 결정론이라든가 전체론 대

신 포퍼가 옹호한 것은 비결정론과 방법론적 개체주의였다. 이 두 개의 칼날을 가지고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전개를 포착하고자 했다. 전체주의보다 자유주의를 옹호한 포퍼의 열린 사회론은 유럽의 좌파 세력으로부터 반동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은 영국의 대처 정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두 철인의 견해를 통해 한국이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그 하나는 현재의 잘못을 고치고 보다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 독선적 아집을 버리고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여는 것이다.

## 변화를 창출하는 열린 교육장

교육(educare)은 변화를 창출하고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이다. 현재 한국은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육 개혁을 정착시키고 학교가 열린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을 보여 준다. 변화를 위한 마당에는 초·중·고등 학교뿐 아니라 대학도 있다.

선진 대학들은 과거의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아니라 멀티버시티(multiversity), 또는 트랜스버시티(transversity)로 탈바꿈하고 있다. 유니버시티는 가르침 하나에만 치중해 온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멀티버시티는 가르침뿐 아니라 연구와 사회 봉사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트랜스버시티는 대학이 사회 문제에 초연하여 비현실적이고 현학적 이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호응하면서 사회변화를 창조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교과서 위주의 공부, 주입식 및 암기식 공부로 일관해 왔다. 개성과 창의력을 키우기보다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사람이 성공했다. 남을 도울 줄 몰라도 공부만 잘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 방법도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열린 교육은 수업 방식이 바뀌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도우는 방법, 함께 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바뀐다. 필수보다 선택이 늘어나고 과목도 다양해진다. 그래서 총체적 열린 교육장이 되는 것이다. 열린 교육장은 그야

말로 창조적 변화를 위한 시험장이 된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제프리 삭스는 앞으로 국가의 성공은 개방의 정도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개방도는 경제의 개방 정도와 재정의 건실도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육의 개방 정도와 교육의 건실도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교육 개방은 단지 우리의 교육 마당을 외국 교육 기관에 열어 놓는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이체는 외국 교육 기관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그만큼 내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교육에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경영 마인드는 단지 교육이 상업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생산적이고 독창성이 있으며, 남을 일깨우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우리의 교육이 열린 교육이 되고, 우리의 교육장이 열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경쟁력이 낮은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은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율화와 개방화의 거센 파고 앞에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융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은 '학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이 열려 있지 못하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구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학교도 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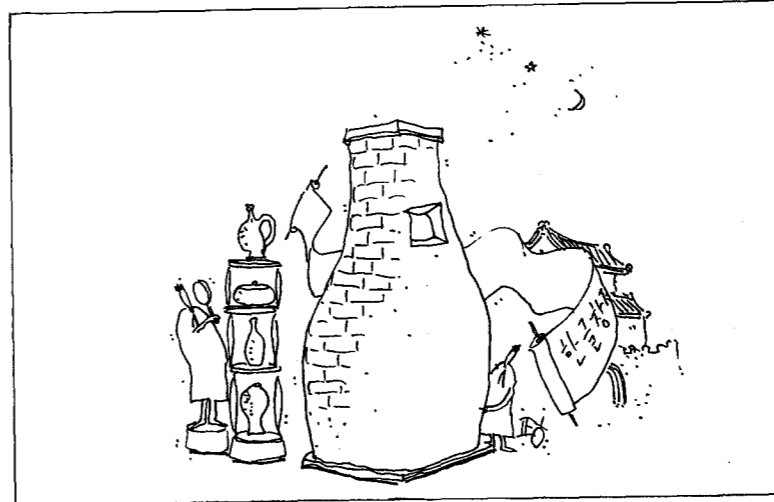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만 모든 기업이 빠져 나갈 경우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여 우리가 찾아갈 직장이 없게 된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대학 입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세대까지 해외 교육 기관으로 줄줄 빠져 나가고 있다. 한국의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국내 교육의 질이 해외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면 문제는 크다.

해외에 가지 않는다 해도 요즈음 대안 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보다 참삶을 통해 배우겠다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안 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공교육 담당자는 교육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다 우리의 교육 형편을 비판적 안목에서 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며, 창의성이 높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득권만 고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미래를 향해 창조적으로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변화하면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실은 가득차게 될 것이다.\*

# 문화 유산 가꾸기

정옥자



정옥자  
서울대, 국사학

을 해는 문화 유산의 해로 지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은 없지만, 문화 유산의 보호나 재창조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에 드디어 철거된 중앙청에 대한 그간의 말썽 많았던 일의 경위와 논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들의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총독부 건물인 중앙청 철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비등하였지만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여론이었다. 그럼에도

지식인 중의 상당수가 철거 자체를 반대하거나, 헐기는 헐되 시간을 갖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연 작전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을 보관·전시하는 국립박물관으로 전용하고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을 헐어 버리는 것은 국고의 손실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건축 사상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건물이므로 보존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혹자는 오욕의 역사도 역사이니 만치 그 아픔마저 껴안고, 두고두고 가슴에 아로새기는 징표로 남겨 두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런저런 논의를 다 제외하고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짓고 나서 헐어도 늦지 않을 터인데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의 대부분은 현실론에 불과할 뿐 원론은 아니었다. 하느냐 마느냐 하는 원론부터 따져 보면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그것이 깔고 앉아 있던 경복궁의 복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헐어 버리고 나니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같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화문 앞을 지나갈 적마다 북악산까지 훤히 뚫려 있는 경복궁을 바라보노라면 일제가 헐어 버린 전각들에 대한 아쉬움과 아울러 앞으로 복원될 경복궁의 청

이제야말로 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야 할 때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자기가 사는 향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거기에 남아 있는 조상의 문화 유산을 알아보고 찾아내고 가꾸는 것으로 시작해 봄 직하다.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애향심이 자라나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떠올리며 희망에 부풀다고도 한다. 대표적인 문화 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소박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문체부가 '97문화 유산의 해'를 맞아 한국 문화의 대표적 상징물인 한복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이나 고궁 등 문화 유적 기관 관람객 중 한복을 입은 시민들에게 무료 관람권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람객은 청소년, 어른,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통 한복이나 생활 한복(한복에 양장 외투, 양복에 두루마기 착용 포함)을 입으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고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올해로 한정된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 유적 기관, 공공 박물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사가 관람료 면제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한 몫 단단히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불편하고 촌스럽다고 여겨 우리 스스로 폐기 처분하다시피한 한복은 여인들의 예복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만큼 전통 의상을 철저히 폐기 처분한 나라도 드물다. 태국·말레이시아·인도 등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중동의 여러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정상 회담 때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자랑스럽게 입고 나오는 사례를 눈여겨 볼 일이다. 의상도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다. 문화 유산 중 가장 실생활과 밀착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으면 신사라 하고 한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면 웬 촌사람이냐는 듯이 흘끔흘끔 쳐다보거나 '청학동에서 왔나?'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되어 버렸다. 철저하게 서양화되었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자기네 전통 의상을 우리처럼 스스로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인들의 전통 의상은 우리보다 훨씬 일상화되어 있고 고급화되어 있다.

문화 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생활 용품이나 유적·유물 등 가시적인 것 외에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등 총체적인 것이다. 그것은 형해화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체질 속에 면면히 계승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문화 유산을 '민족의 얼'이라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 유산은 인류 문화에 도움이 될 만한 우수성과 보편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민족 문화의 범위를 뛰어 넘어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세계 문

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끼고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전통 문화도 끊임 없이 재창조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전통 문화라도 현재의 우리의 삶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그 주요한 알맹이는 살려 놓되 변화된 현실에 맞게 다시 틀을 짜고 방법론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난 번 서울대 입시 면접 고사 때 있었던 이야기다. 전체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면접은 본부에서 문제지가 내려온 것을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2차 면접인 교과 성적 면접이 학과의 논란거리가 되었다. 우선 어떤 문제를 내느냐가 고민거리였다. 너무 원론적인 문제를 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뿐이라 생각되고, 고등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도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었다.

결국 역사에 대한 질문을 가장 쉽고 평이하게 제시하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쉬운 문제를 주어 자연스럽게 학생이 대답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화두만 던지고 답변을 기다려 보는 방식이었다. 그 문제 중의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유적지나 유물은 무엇인가?'였다.

문제지를 학생이 뽑아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문제가 유난히 많이 뽑혀 나왔다. 그런데 면접 위원들에게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이 문제를 뽑은 학생들의 당황하는 모습에 오히려 면접 위원들이 당혹스러워 하

는 기현상이 속출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적지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거나,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경주에 가 본 일은 있지만 기억이 희미하거나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기억을 되살려 그때의 감상을 얘기해 보라고 답변을 유도해 보니 더욱 힘들어 하여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점수에 맞추어 지원하였다 고 하지만 명석이 국사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다른 학생들은 말해서 무엇 하라!

그러면 국립박물관이나 남대문에도 가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가 보긴 하였지만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관찰하지는 않았노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의견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니가 국보1호는 단연코 한글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것이 자신의 의견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나 문자 잘 모르겠노라는 대답이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예를 하나 소개하여 보자. 그 학생은 고향이 강원도 횡성인데 춘천에 유학하였다고 하였다. 춘천의 유적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소풍간 곳을 물으니 그것도 유원지였다. 화제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 고향 마을에 아무런 유적지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조선 시대에 지었다는 정자가 있는데, 그것도 유적지에 속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물론이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갑자기 생기를 띠면서 고향 마을 이름이 '서원말'이고 옛날에 서원이 있었다는 말을 어른들한테 들은 기억이 있다

는 것이었다. 실제 주춧돌 같은 것이 남아 있기도 하다며 흥미를 갖는 것이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일러 주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고향 마을에 내려 가면 유적지를 잘 조사하고 관찰해 보라고 격려했더니 기쁜 얼굴로 나갔다.

이 학생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고등 학교 교육이 대입을 위한 암기 교육에만 치우쳐 학생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실생활과 유리된 지식 교육이 과연 우리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대학에서 진리 탐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허한 학문의 유행과 그곳에 들어가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우리의 교육을 실생활과는 유리된 부실한 쪽으로 유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이제야말로 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야 할 때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자기가 사는 향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거기에 남아 있는 조상의 문화 유산을 알아보고 찾아내고 가꾸는 것으로 시작해 봄 직하다.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애향심이 자라나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 '97 문화 유산의 해' 사업

### 문화 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문화 유산의 해 조직 위원회(위원장 고병익)가 올 한해 우리 전통 문화를 '알고 찾고 가꾸기' 위해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소개한다.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월)
내 고향 문화 유산 알기	전국 70대 단체 협조 받아 전개	1~12
문화재 전문가 동행 유적 탐사	테마관광 코스 개발 보급	2~12
문화 유적 순례 및 학술 발표회	대학박물관별 주제 선정	7
역사의 현장 학습 세미나	역사적 기념일 사실 부각	2~12
문화재 연구 발굴 강좌	국내외 고고학 전문가 초청	9
매장 문화재 발굴 강좌	발굴요원 양성 및 인식 제고	3~11
교원 전통 문화 강좌	교육현장 활용 기회 제공	7
고궁 청소년 문화 학교 운영	여름방학 이용 시설 제공 견학	7
청소년 백일장 및 미술 실기 대회	글 미술로 문화유산 애호심 고취	5
문화 유산 해의 소개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 배포	10
문화 유산의 해 기념전시	도서관 사진전 주축	2~12
기념 공연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10~11
문화 유산 찾기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 찾아 보존	1~12
전통 문화 재현	궁중문화 논쟁형식 등 재현	4~12
문화재 관광 지도 제작	전국 개 권역으로도 제작	10
문화 유산 소개 다채원 공모전	현대 감각에 맞는 다채원 공모	11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월)
문화 유산 관련 도서 발간	전국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	12~12
전통 공예품 전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11~12
전통 가양주 품평회	전승 가양주 발굴 보급	10
문화 유산 보호 관행 제도 점검	관련 관행 사범 단속	1~12
문화 유산 보호 관련 세미나	보호 보존 세미나	6~9
문화 유산 보존 공로자 발굴	공로자 유공자 발굴	1~12
경복궁 총재판 복원 기공식	문화재 행정 부원 국민역사교과	4
한성 자원 봉사 활동	문화유산 보호 자원봉사 활동	1~12
문화재 명예 관리인 제도 내실화	문화유산관리 중요성 공제 협양	1~12
남도 어린이 고궁 순례	남도 어린이 초청 고궁 순례	5
전통 놀이문화의 현대적 보급	각구 투호 고대 정물 등 보급	10
지정문화재 영인본 제작 보급	유일본을 영인본으로 제작	10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기구어 보호	2~11
세계문화유산	지금심 양양 위한 것	5
한국 대학생 마장놀이 경연 대회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보급 기여	8

# 아름다운 국토 환경을 위하여

이건영



이건영  
국토개발연구원장

경제 성장과 환경 훼손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토도 개발 하면서 재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생활 속으로 자연 환경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국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토는 좁은 만큼 더 각별히 자연 환경을 가꾸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드** 산길, 녹음 짙은 숲속에서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또 시원하고 청정한 약수를 마시며 나는 살아 있음을 느낀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쓰지 않던 공기와 물이 점점 우리에게 값진 자원이 되고 있다. 지난 개발 연대 동안 부지런히 공장지어 달러를 벌어들인 덕분에 우리의 산하는 많이 더럽혀졌다. 지금 달러로 다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삼천리 금수 강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어디 있는가? 유럽 사람들이 석회석 섞인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우리 물은 천혜의 자원이다. 로스앤젤레스처럼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를 보면 주변에 산이 많은 우리의 도시는 복받은 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의 공기는 숨쉴 만한가. 북한산의 이끼가 죽어 가고 시내를 가끔씩 뽀얀 매연이 안 개처럼 뒤덮는다. 팔당의 수원지는 점점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수도물을 불신하고 생수를 사서 마신다. 녹지가 사라지고 논밭에는 풀벌레마저 없어지고 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우리의 산하는 아름답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가면 온통 쓰레기로 썩어 가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의 한계를 넘어선 땅이 우리 나라에 생겨나고 있다.

여천 공단 지역이 오랫동안 걸친 과학기술원의 조사 끝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판정을 받았다. 주위의 화학 공장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방독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집집마다 방독 마스크가 배급되고 이주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공장은 돌아가되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지난 86년 공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울산, 온산 공단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오염뿐 아니다. 여천 공단 앞바다에서는 카드뮴과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중금속은 일본을 뒤쫓았던 공해병 이따이이따이병과 미나마타 병의 발병원이다. 한려수도마저 병들어 가는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은 죽은 물이다. 풀이나 이끼가 자라지 않는 땅은 죽은 땅이다. 땅과 물이 죽어 가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먹이 사슬을 흔든다. 사람이 자연을 버리면 자연도 사람을 버리게 된다. 어찌 여천 공단뿐이겠는가? 전국의 대규모 공업 지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국토 곳곳에서 중병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자연은 하나의 생명이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을 살아 왔

다. 자연이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긴 시일이 걸린다. 우리는 자연과 생물이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국토, 이 자연과 우리 5천만 민족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여기에 삶의 터를 가꾸어야 하고, 경제를 꾸려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 도로를 뚫고 바다를 메꾸어 공장을 지어야 하고, 또 쓰레기를 쏟아 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쓰레기 발생 증기율이 제일 높은 나라다. 게다가 치열한 경쟁은 환경 보호의 양심마저 둔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모두 성장을 위한 대가이다. 당연히 산하를 더럽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국토의 환경 용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5천만 인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다. 어쩌다 교외로 나가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산을 뚫고 길을 뚫거나 건물물 짓는 것을 본다. 여기저기서 불도저에 짓밟힌 산아엔 시뻘건 토사가 홍적하게 보이거나 신문에 실린 죽은 물고기떼 사진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 오염이 우리 국토의 환경 용량을 넘어서리라는 불안감이 들곤 한다.

지금 우리의 성장은 멈출 수 없는 명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을 최소화하는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자정 작용을 갖고 있다. 과거 인류의 성장 속도는 자정 능력의 범위에 국한되었다. 그래서 지구는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염 속도는 자정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제는 환경 가치에 대한 의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집만 짓거나 공장만 지을 일이 아니다. 진정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 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 외국 선진국에서 이런 도시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가끔씩 나의 마음은 미국에서 내가 살았던 에반스턴이나 영국의 교외 도시 워킹으로 돌아가곤 한다. 이런 작은 교외 도시는 선진국의 많은 도시 중의 하나지만 모두 깨끗하고 자연과 잘 조화된 환경 도시들이다.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울 교외의 많은 콘크리트 도시들과는 다르다. 영국의 꿈 같은 신도시를 보고 우리의 신도시와 비교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도시를 만들 때부터 공업 단지와의 격리시키고 공해의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들 사이에 공장들이 마구잡이로 세워지고, 굴뚝의 연기가 동네를 뒤덮고, 공장 폐수가 개천으로 버려진다면 우리의 도시는 살 곳이 못 된다.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도시의 매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자동차의 매연이다. 따라서, 대중 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 자전거로 편안할 수 있는 도시가 환경 도시다.

재개발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구릉지의 녹지를 복원하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하천을 복개할 것이 아니라, 정취 있는 개천을 살리고 자연 풍치를 조성하자.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소 도시의 경우 자전거 통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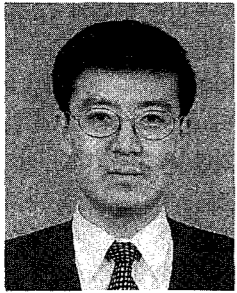
보행을 활성화하자. 자투리 땅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기보다 더 많은 흙,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하고 그린 네트워크로 연결하자. 우리의 삶을 차츰차츰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런던의 스모그나 템즈강의 죽은 물이 치유되고, 영국 웨일즈와 일본의 기타큐슈에서 환경 파괴로부터 건강한 자연을 복원시킨 환경 기적을 본다. 석탄과 철강석의 폐기물로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못하던 죽음의 땅 웨일즈에 싱그러운 녹색 초원, 울창한 숲이 돌아온 것은 30년 가까이 추진된, 환경을 되살리려는 피땀어린 결실이었다. 일본 제철의 메카 기타큐슈는 공장 굴뚝에서 뿜어 내는 연기로 희뿌연 대기 오염과 바닷가에는 검붉고 누런 폐수와 부유물이 널려 있던 회색의 도시였다. 그 도시가 지난 28년간 민관의 각고 노력 끝에 이제는 일본의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수질과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 도이카만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이 한 번 훼손된 환경을 원상 회복하는 데는 참으로 엄청난 대가와 노력이 지불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 성장과 환경 훼손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토도 개발하면서 재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생활 속으로 자연 환경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국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토는 좁은 만큼 더 각별히 자연 환경을 가꾸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 학생들에 대한 비만 교육 강화

강재현



강재현

서울의대 ·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나와 동 대학에서 예방의학 박사 과정 수료. 현재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전임강사, 비만클리닉소장

**잘못된 체중 조절법이 범람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바른 체중 조절법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비만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의료인으로서 평소에 느끼는 점은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의료인보다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다.**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서구식 식사 문화가 만연되면서 학교에서 비만한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영양 부족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부모 세대에 비해 당당한 체격의 2세대들은 대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큰 체격만큼 좋은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필자는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비만한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들이 비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치료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성적 지상주의의 사회 분위기와 짝여진 학교 생활이다. 한 학생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키가 158cm이고 체중이 75kg인 인문계 고3 여학생이다. 이 학생은 고3이 되면서 체중이 10kg 정도 불고 자꾸만 짜증이 늘어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였다. 이 학생의 일과를 살펴보면 아침 6시 40분에 기상하여 세수만 겨우 하고, 7시에 집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한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거리 모여 앉아 햄, 새우튀김, 장조림 등을 반찬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출출해서 10분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매점에서 빵을 먹는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분식

점이나 햄버거집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바로 도서관로 가서 피곤함을 참고 책과 씨름하게 된다. 공부하면서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을 가끔 먹게 되고, 옆 친구가 먹고 있는 컵라면 냄새를 맡게 되면 덩달아 컵라면 하나를 먹게 된다. 새벽 한 시경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게 되며 간단한 하루 일과가 끝난다.

이 학생은 시간도 없고 전날 먹은 밤참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여 아침을 항상 거르고 있고, 점심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고칼로리 고지방 도시락을 먹고 있다. 그리고 저녁은 간편하지만 칼로리는 만만치 않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신하고, 오후와 밤에 간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학생이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분석해 보면, 아침 0칼로리, 점심 700칼로리, 오후 간식 200칼로리, 저녁 600칼로리, 밤참 800칼로리로 하루 2300칼로리나 되어 이 학생의 하루 필요 열량 1800칼로리보다 매일 500칼로리씩을 더 섭취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아침을 거르므로 몸의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 섭취한 열량을 가급적 아껴서 나머지 열량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에너지 절약형' 체질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한 달에 2~3kg씩 불어나게 된 것이다.

이 학생은 체중이 늘다 보니 쉽게 피로해지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똥

똥해진 자기 모습이 싫어 집안 식구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게 된 것이다.

좋은 학업 성적을 거두는 데에는 공부 시간 자체보다는 학습의 능률이 더 중요하다. 대개 학생의 경우는 공부하는 절대 시간은 길지만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효과로 학습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생만 실컷 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방이 내려졌다.

우선, 밤참을 먹지 말고 간단히라도 아침을 꼭 먹도록 하였다. 또한, 오후에 먹던 빵도 끊고 수면 시간을 한 시간 늘리며, 아침에 20분 정도 줄넘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체중이 2주에 1kg씩 빠지면서 짜증도 줄고 공부의 능률도 오르게 되었다.

이 학생의 경우 비만의 원인은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탓이 아닐까 싶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짝여진 하루 일과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사치스러운 요구로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시를 앞둔 고등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초등 학생들도 방과 후에 평균 2~3군데의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무척 바쁘고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난감했던 경우를 필자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비만만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최근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고3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3 기간 동안 41%가 비만도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 체중을 보인 여학생 중 69%가 자신이 비만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저체중인 여학생 중에도 71%가 자신이 정상 체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비만도에 무관하게 91%가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사 대상 중 13%가 폭식과 결식을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보이고 있었고, 9%가 과식 후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일부러 토하거나 굶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48%의 학생들이 고3 시기에 체중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체중 조절을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한 방법은 식사 거르기(65%)로 건강을 해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도 1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체중 조절법에 대한 정보를 주로 친구, 잡지, TV를 통해 얻고 있었고, 87%가 올바른 체중 조절법에 대해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고3 시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하였고, 81%가 식사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체중 조절법이 범람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바른 체중 조절법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비만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의료인으로서 평소에 느끼는 점은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의료인보다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다. 청

소년기의 건강 상태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익힌 식사 습관, 운동 습관, 생활 방식이 평생 유지되며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과 적절한 식사 습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전 학생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의무화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된 체육 시간마저 학습 시간으로 돌리는 파행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다.

비만은 많은 성인병의 근원이며, 청소년기의 비만이 성인기의 비만과 각종 성인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점검하는 청소년기 비만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각 학교에는 양호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계시고 교의도 지정되어 있는데도 현재 학교의 보건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의료인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 교육계가 뜻을 모아 자라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비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의사로서, 또 한 아이의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바람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교육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선생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

# 장애아 재활 교육에 헌신해 온 곽준기 교장

경기도 광주군 삼육재활학교



곽준기 교장은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자, 친구이다.

특수 교육의 철학적 기초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장애 아동들이 그 장애 정도, 경제적 빈부, 성별,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똑같이 교육을 받은 뒤에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을 회복하여 차별 대우가 없는 사회로 통합되는 것이 특수 교육의 지상 과제입니다.

예로부터 산중고 물맑기로 소문난 경기도 광주군, 그 중에서도 푸르른 풀빛이 달빛과 한데 어우러지고, 넉넉한 지당(池塘)에 걸린 달 그림자가 잠시나마 일상의 허욕과 편견을 잊게 한다는 초월(草月)면 지월(池月)리. 그곳에 미래를 준비하는 장애인 교육의 산실, 삼육재활학교 광주 분교가 그 낮은 기와 지붕을 편안하게 이고, 역시 나즈막한 담을 두 팔처럼 활짝 벌린 채 오늘날도 재활의 꿈을 갖고 찾아오는 장애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고 있다. 삼육재활학교는 지체 부자유아 유

치, 초, 중, 고 교육 기관으로 상도동 서울 분교에 7학급, 이곳 광주 분교에 19학급, 상계동 한국여성마비복지관 내 상계 분교에 4학급, 그 외에 2년 전 순회 방문 교육 인가를 획득, 운영되는 2학급을 포함, 총 32학급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이곳 광주 분교는 1993년 9월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의 부설 특수 학교로 문을 열었다. 삼육재활센터는 만 오천 평 정도의 너른 터에 학교, 병원, 직업전문학교, 생활관, 체육관, 교회 및 보장구제작실 등의 재활 시설들을 갖춘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지체 장애인 종합 재활 센터이다.

곽준기 교장. 그는 그야말로 삼육재활학교의 산 증인, 산 역사이다. 1961년 10월, 26세의 약년(弱年)에 부친의 친구인 목사님의 소개로 삼육재활원이라는 장애인 수용 시설을 찾은 후, 그는 35년이 넘는 긴 세월을 장애인의 친구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들의 옆을 지켜 왔다.

“생애 첫 직장이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선 그곳엔 수백 명의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었죠. 실은 무척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3개월 가량 생활하다 보니 그들도 정상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욱 순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쌀 1가마니 값도 안 되는 월급을 갖고는 생계 유지가 막막했습니다.”

곽 교장은 자신이 과연 장애인의 교육에 평생 몸바쳐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몇 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당시의 보사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에 입소하여 1년간 사회 사업에 관한 연수를 받으면서 곽 교장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얻게 되었다. 특수 교육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전문성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곽 교장의 이러한 외형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는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사랑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을 졸업하고 삼육재활원 내 직업 학교에서 양재 기술을 가르치던 지금의 곽 교장의 부인을 만난 것이다. 결국 평생의 반려자가 평생의 일을 그에게 선사한 셈인데, 아직도 곽 교장은 그 점을 자랑스러워한다. 곽 교장의 부인 또한 18년이라는 세월을 장애인들의 어머니로서 살아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970년 3월 1일, 6학급의 삼육재활학교가 개교하면서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곽 교장은 거의 27년 동안을 한 학교에서 학교 운영 책임자로 일해 왔다. 대한민국의 교육계에서 이렇듯 장기 집권(?)한 교장이 있을까? 이에 대해 곽 교장은 학교 경영의 민주



곽준기 교장은 1961년 10월, 당시 삼육재활원을 찾은 후, 35여 년간을 이 학교에서 장애아의 친구로서, 교사로서, 교장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서 생활해 오고 있다.

화를 그 노하우로 꼽는다.

“학교 경영을 민주화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그 실천 과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방식은 시대적 변천과 요구에 따라 변화,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평생을 한 학교에서, 그것도 운영 책임자로서 지내는 일이 결코 쉽지않은 않았지만, 그 때마다 교사들과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어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한 마디로 모두들 서로에 대한 경애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힘든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잘 협력해 준 덕분입니다.”

곽 교장이 자신 있게 말한 이 ‘경애와 믿음’은 한바퀴 둘러본 학교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방학 중에는 난방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아 썰렁한 교사(校舍)였지만 사람들이 자리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그들의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제법 추운 기운이 도는 교무실에서 몇몇 교사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앞드려 계단 창을 닫고 있던

장애인 고용원은 그 일그러진 얼굴을 애써 펴며 반갑게 교장 선생님 일행을 맞았다. 여러 번 깜빡여서 간신히 초점을 맞춘 그 눈빛이야말로 꼭 교장으로 하여금 오늘까지 소신껏 특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가장 큰 무언의 힘이었을 것이다.

특수 교육은 장애 아동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장애인 재활의 기초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장애 상태에 맞는 특수한 시설과 교재들을 준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특수 교사들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꼭 교장은 전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일반 교육에 준한 교육과정과 특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 사립 학교와의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며,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삼육재활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장애별 상황을 보면 뇌성마비가 91퍼센트로 대부분이고, 뇌손상 1.7퍼센트, 척추 장애 1퍼센트, 소아마비 0.6퍼센트, 진행성근위축증 0.6퍼센트 등으로 총 15종류의 질환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근위축증은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병으로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 병으로 죽은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모든 장애 학생들의 소원이 장애 정도가 경감되는 것인데,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 온 그들의 절망감이 어떠하겠습니까? 교사들도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

니다. 저 또한 묵묵히 학생들의 구부러진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죠. 그리고 빨리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장애 고등 학생들의 소망은 대학 진학입니다. 실제로 정상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하여 대학에 진학한 예가 꽤 있구요. 금년에는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의 덕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 학과에 입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졸업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여 첫 등록금 250만원은 결국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 가운데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김인호는 이 학교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선망하는 선배라고 꼭 교장은 말한다. 남의 나라 미국 땅에서 장애를 딛고 우뚝 선, 인간 승리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인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미국무부에 특별 채용되었다.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그의 사진은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복도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 갈 수도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지막한 위치에 걸려 있다. 학생들이 이 사진에서 얻는 감동의 근원은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김인호 선배의 웅크린 작은 체구가 뽀는 당당함일 수도, 큰 키의 미국 대통령이 보여 주는 사람 좋은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부순 그들 공통의 미소가 아니겠습니까.”

“학교 경영 철학이요? 한마디로 참된 휴머니티의 실현입니다. 특수 교육의 철학적 기초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머니티의 전제는 모든 인간이 개체로서의 생존, 생활권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오며 그 개체성(Individuality)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멸시받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장애 아동들이 그 장애 정도, 경제적 빈부, 성별,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똑같이 교육을 받은 뒤에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을 회복하여 차별 대우가 없는 사회로 통합되는 것이 특수 교육의 지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특수 교육은 휴머니티에서 출발하여 휴머니티에 이르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교장의 이러한 사회 통합에 대한 바람은 삼육재활학교의 교표에서 잘 나타난다. 교표를 보면 둥근 원 내부에 정삼각형이 맞대어 있고, 또 그 안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지체 장애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장애인이 삼각형의 세 변으로 상징되는 지(교육적 재활), 덕(사회 심리적 재활), 체(의료적 재활)의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이 없는 모나지 않은 둥근 사회로 통합되는 것이 결국 특수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알자, 사랑하자, 튼튼하자’라는 이 학교의 교훈 또한 교육적, 사회 심리적, 의료적 재활의 교육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삼육재활학교 재학생 장애 정도가 가볍고 학력이 정상 수준이 되는 학생은 재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일반 학교로 보내 통합 교육을 시켜 왔다. 지금까지 308명의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성공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받는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해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체육 대회가 열린다. 인근 초·중·고등학교와의 이 체육 대회를 통하여 장애 학생은 장애 극복의 의지를,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얻게 된다.

또 하나, 꼭 교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삼육재활학교 경영의 목표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즐거움으로 가득차게 하는 것이다. 즐거움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이해하고, 친구를 사귀며, 자신이 인정받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솟아나는 데, 이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굳건한 공동체 의식과 바른 장애관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꼭 교장은 확신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서로에게 거는 신뢰와 기대는 무척 크다. 교육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아는 학생들은 스스로를 장애인들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야 할 주역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삼육재활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질서 지키기, 내 이웃 사랑하기, 어려운 친구 돕기, 환경 보호하기 등의 전인 교육 활동에 앞장서게 한다. 한 예로, 최근 모 방송국 ‘숨은 양심 찾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철저한 교통 질서 준수로 우리



들을 부끄럽게 한 장애인 부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학생들은 신문, 방송에서 그들 부부에게서 받은 놀라움과 감동을 호들갑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법석이야말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 특수 교육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근대 교육적 의미로 보면 광복 1960년대부터야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에 조금씩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했고,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비롯하여, 1988년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전후하여 특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크게 제고되어 오는데 이른다 한다.

특히, 지난 해 교육부에 특수교육 담당관실이 설치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무척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꼭

교장을 비롯한 특수 교육 종사자들이 교육부에서 내어 놓은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위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꼭 교장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일단 수립된 교육부 특수 교육 정책들이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한 감독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는 열악한 사립 특수 학교의 미비한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무리를 하면서 꼭 교장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판별 및 교육적 조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건의를 덧붙였다. 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판별 문제는 특수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의료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글·윤인섭, 서울 경기여고 교사)

#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

교육부는 지난 1월 18일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 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를 기본 방향으로, 학교 현장 혁신 운동 확산, 대학 교육의 질 향상, 교육 복지 구현, 교직 사회의 활성화·자율화, 교육 행·재정 제도 정비를 역점 시책으로 확정 보고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추진 성과와 반성

□ 문민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교육 개혁의 추진으로 우리 교육의 모습이 새롭게 변해 가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변화되어 초·중등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이 확산되고 대학은 자율과 경쟁으로 다양·특성화되어 가고 있음.  
- 교육 재정 GNP 5% 확보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 투자로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교육의 정보화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 OECD 교육평가단은 우리의 교육 개혁 방안을 대담하고 포괄적이며 그 비전이 세계적이라고 평가함.  
□ 교육 개혁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 가족들의 호응과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앞으로 교육 개혁을 학교 현장의 혁신 운동으로 확산시켜 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임.

## '97 주요 업무 계획

### 기본 방향

- 교육 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
- 교육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 역점 시책
- 학교 현장 혁신 운동 확산
- 열린 교육 확산과 교육 개혁 홍보
-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
- 교육 환경 개선
- 학부모 부담 경감
- 대학 교육의 질 향상
- 대학의 자율화 정착
- 대학의 특성화 유도
- 대학의 경쟁력 제고
- 교육 복지 구현

-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 직업 및 평생 교육 내실화
- 재외 동포 교육 지원 강화
- 교직 사회의 활성화·자율화
- 교원 양성·연수 체계의 개선
- 교원 임용 제도의 다양화·자율화
- 교원 복지 향상
- 교육 행·재정 제도 정비
- 교육 규제 실효성 제고
- 학교 운영 방법 개선
- 교육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1. 학교 현장 혁신 운동 확산

가. 열린 교육 확산과 교육 개혁 홍보

- 열린 교육 확산
- 열린 교육 중심 학교를 지정하여 중점 지원 (초등 180교, 30억원)
- 열린 교육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케이블 TV, 에듀넷 등 적극 활용
- 학업 성취 수준별 교재 개발 및 이등식 수업 활성화
- 한 학년, 한 과목 우선 시행
-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 충실
- 과학 실험실 확충(358실):('96) 77.5% → ('97) 79.6%
- 과학 실험 보조원 배치 등 과학 교육 여건 개선
-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의 다양화
-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 개정('97. 12월 고시)
- 고등 학교 1년까지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하고, 고 2~3학년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설정
-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선택권 보장
- 초등 학교 학교 재량 시간, 중·고교 선택 과목 운영 다양화 권장
-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을 위한 시범 학교 운영
- 학업 성취도 절대 평가 기준 개발
- 국가 공통 절대 평가 기준 모형 개발
- 교과별 평가 기준 개발
-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
- 학생의 인격 존중 풍토 조성
- 품위 있는 용어 사용 및 체벌 억제
- 학생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학습 권장

- 체험 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인성 교육 추진
- 1개월 이내 도·농간 교류 학습 권장
- 가족과 함께 하는 6일 이내의 체험 학습 인정
-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학교 사회 사업 제도' 시범 학교 운영(4교)
- 현장 체험 위주의 통일·안보 및 민주 시민 교육의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
- 학교운영위원회의 확대 실시(국·공립 학교)

구 분	'96학년도	'97학년도
-시지역 (대상학교: 3,593교)	전면 실시(100%)	전면 실시(100%)
-읍·면지역 (대상학교: 1,859)	826교(44%)	1,301교(70%)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위원, 학부모에 대한 연수·홍보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시행 평가·보완
- 장학 기능의 활성화
- 주제별 장학 활동 강화
- 학업 성적 관리, 열린 교육 등 현안 과제 중심으로 주제별 장학팀 구성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육 개혁 활성화 유도
- 장학 협의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확대
- 학부모 교육 확대
- 교육 개혁에 관한 이해 및 올바른 자녀 교육관 정립
- 적성, 소질 계발 위주의 자녀 교육관 정립
- 교원연수원 및 각급 학교 등 주관으로 학부모 교육 확산
- 주제별 학부모 교실 운영 적극 권장
- 각종 학부모협의회 및 교육 유관 단체와 협조
- 전국 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 회원 대상 연수 확대
- 교육 개혁 홍보 강화

- 교육 개혁 정책 연수회 개최
-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 중심 합동 설명팀 구성·운영
- 교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 '교육소식' 간행
- 교육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이해 증진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격주 간행으로 교육 정책의 신속한 전파
- 교육 정책 직송(Direct Mail)망 운영
- 교육 개혁 추진 상황 등을 직송 홍보(언론, 시민 단체 590기관)
- 교육 정책 홍보 자료 연중 수시 송부
- 교육 개혁 모니터링제 운영
- 교육 개혁 등에 대한 현장 교원 의견 수렴
- 모니터링은 정기(2개월 간격) 및 수시 실시
- 모니터링 결과는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
- 나.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
- 초·중등 학교 정보화 3개년('97~'99) 계획 추진
-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
- '99년까지 초·중등 학교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
- 투자 계획

사업명	사업 개요	투자 목표
○ 교단선진화 추진	○ 교실에 컴퓨터, TV, VCR, 실용화상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	○ '99년까지 모든 교실에 완비 - '97년 지방 교육 재정 1,000억원 지원
○ 교사용 컴퓨터 보급	○ 성적 처리, 학사 업무 및 교재 작성 등을 위해 컴퓨터 보급	○ '99년까지 1교사 1 컴퓨터 보급 - '97년 50,000대 보급(550억원)
○ 컴퓨터 실습실 확충	○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	○ '99년까지 1교 2실 습실 확충(30학급 미만 1실습실)

- '97년 82,500대 보급(743)
- '97년 기업체에서 13만대의 컴퓨터 및 통신 장비 지원
* 486급 이상 신기종으로 교체

- 교육 및 교육 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 '97. 9월까지 고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 '98. 6월까지 고등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 '99. 12월까지 초·중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교육 행정 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
- 다양한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학교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무 및 학사 업무 전산화
- 23개 기관 시범사업 추진(9억원)
- 교육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65년 이후 '교육통계연보'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교원의 멀티미디어 기자재 활용 능력 배양
- '99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컴퓨터 연수 실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검토(신규·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 교원들의 컴퓨터 관련 연구회 활동 지원
- 가상 교육(Cyber Education) 실시 지원
- 멀티 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97. 4)
- 각종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40종), 데이터베이스(50편) 개발·보급
- 멀티미디어 개발 요원 연수 실시: 120명
- 에듀넷 운영 활성화

-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화(6종)로 주문형 교육 서비스 실시
- 다양한 민간 교육 정보 제공자 참여 확대:('96) 10 → ('97) 30기관
- 국내·외 각종 가상 학교(Cyber School)와 연동 서비스 실시
- 가상 대학 등 첨단 학교 운영 모델 개발
- 에듀넷 시범 학교 지원: 15개소
- 가상 대학 운영 모델 개발
- 외국어 교육의 강화
- 초등 학교 영어 교육 실시
- '97학년도 3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 주당 2시간씩 노래와 놀이, 역할극 등 놀이 중심 학습 실시
- 교육방송을 통한 영어 교육 지원 체계 강화
- 원어민 영어 교사를 활용한 교육 방법 개선
- 초청 인원 확대:('96년) 660 → ('97년) 1,000명
- 문법 중심의 영어 교육을 의사 소통 중심으로 전환
- 교원 국외 연수의 내실화
- 교원 국외 연수 기회 확대 및 주제별 연수를 통한 연수 효과 제고
-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유학의 건전화
-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치 기반 조성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한국 유학' 정보 제공 확대
- 속속 확보, 장학금 지급 등 편의 제공으로 유학 여건 개선
- 국외 유학 및 연수의 건전화 유도
- 조기 유학·연수에 대한 제도
- 우수 인재 선발 및 유학 대상국의 다변화 등 국외 유학 제도 개선
- 교육의 세계 진출 기반 조성
- OECD 가입에 따른 교육 관련 국제 기구에 능동적 참여
- 선진 교육 정보 입수 활용: 연구 정보 센터 지정(KEDI)

- 국가 위상에 걸맞은 회원국 의무 이행(APEC, UNESCO 등)
- 한국어 능력 평가 및 해외 한국학 지원
-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평가 표준 시험 실시('97. 10)
- 교수 파견 등 해외 한국학 사업 지원
- 다. 교육 환경 개선**
- 건전한 학교 생활 풍토 조성
-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
- 학생 희망별 특별 활동의 활성화
-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특별 활동 지도제' 권장
- 학생 지도 방법의 개선
- 학생 징계를 선도형으로 유도: 학교 봉사, 특별 교육 등
-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근검 절약 교육 강화
- 폐기물 재활용 등 건전 소비 실천 운동 전개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지속
-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97년도 생활 지도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활동 강화
- 학부모의 '학교 방문의 날' 지정·운영 권장
-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강화
- 학생 상담 활동 강화
- 전담 상담 교사제 시범 실시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각급 학교별 성윤리관,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화
- 이전·폐쇄 대상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 '학교 주변 환경 정화의 날' 행사의 내실화
-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교육 환경 개선 5개년 투자 계획에

따라 1조원 투자

- 초·중등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
- 열린 교육 및 정보화 교육 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범 학교 건립
- 농어촌 지역: 9교 300억원
- 도시 노후 학교 재개발: 6교 300억원
-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 추진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
- 조도, 소음 등 환경 기준 강화
- 최소 기준만 설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 건축공법, 냉·난방, 조도, 채광 등 교육 환경 개선 모형 개발
- 학교 급식 확대
- 초등 학교 전면 급식 실시
- '97년 초등 학교 급식 시설 설치 완료:('96) 4,989(87%) → ('97) 5,732교(100%)
-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위생 강화
- 중·고등 학교는 자율적으로 외부 위탁 급식 실시
- 학생의 급식 참여 의사 존중
- 학교 급식 실시 방법 및 식단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 확대
- 생활 보호 대상자, 결손 가정 등의 결식 아동에게 중식 지원
- 지원 대상 확대:('96) 12천여명(35억) → ('97) 17천여명(48억원)
- 라. 학부모 부담 경감**
- 사교육비 절감
- 방과 후 교육 활동 내실화
- 학부모, 외국인, 학원 강사 등 우수 강사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내실화
- 보충 수업비의 현실화 방안 검토
- 교육방송의 학교 교육 지원 강화
-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확대 편성

및 학년별 프로그램 세분화

- 오전 방송 실시로 학교 수업 활용 촉진
- 교육방송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위성 방송 실시
- 컴퓨터를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한 쌍방향 학습 체제 도입
- 에듀넷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에듀넷에 탑재하여 주문형 교육 서비스 제공
- 인터넷상의 가상 학교 및 교육 정보 원을 에듀넷에 연계
-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
- 유치원 교육의 무상 교육 기반 조성
- 읍 이하 및 도시 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자녀 교육비 지원 우선:('98) 도서벽지 → (2002) 도시 저소득층
- 유치원 교육 활동 지원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4종) 및 시범·실험 유치원 운영(12개월)
- 공립 유치원에 자원 봉사자를 학급 보조 교사로 활용: 3,600명
-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별 지원책 강구
- 유치원 취원을 제고
- 취원을 제고:('96) 44.8% → ('97) 47.5%(2005년까지 90% 목표)
- 유치원 신·증설: 258개원(972학급)
-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공립 유치원 우선 신·증설(공공 시설 등 활용)
- 유치원 종일반 확대·운영:('96) 2,292 → ('97) 2,592개원

**2. 대학 교육의 질 향상**

가. 대학의 자율화 정착

- 대학 운영의 자율화
- 교육 여건과 연계한 학생 정원 자율화 정책 지속 추진
- 교육 여건 지표가 준칙 기준 대비 80% 이상 대학: 학생 정원 자율 책정권 부여

- 교육 여건 지표가 준칙 기준 대비 80% 미만 대학: 계열별 증원 규모만 결정·통보(포괄 승인제)
- \* '98년 이후 일정 시점에 정원 조정 권한 대학에 일임
- 대학 설립 준칙 제도 보완
- 신학·의학 등 특수 분야의 대학 설립 준칙 별도 마련
- 대학 설립 준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 사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 일정 규모 이하 재산 처분시 신고제로 전환
- 대학 예·결산 공개 범위 및 방법 명문화
- 사립 대학 회계의 외부 공인 회계사 감사 제도 도입
- 등록금 예고제 시행 정착 및 등록금 환불 요건 확대
- 대학 학사 관리의 자율화
- 대학의 전과·편입학 제도 정착
- 전과 및 편입학 기회의 지속적 확대
- 지방 소재 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 간의 불균형 완화 방안 마련
- 대학의 필수 과목 지정 자율화 추진
- 대학이 필수 과목 지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의 자율화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
- 정부는 입학 전형 제도의 기본틀과 최소한의 행정 사항만을 규정
- 대학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선발
-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적극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 실질 반영 비율 상향 조정 유도
- 일부 교과목 및 과목별 가중치 반영 적극 권장
- 논술·면접 시험의 발전적 정착
- 종합적 사고력과 분석력, 창의성 등

- 을 다양하게 평가
-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인성 발달 측면을 면접 시험에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의 지속적 보완 발전
- 시험의 성격, 출제 형식, 범위, 방법 등 기본 골격은 현행 유지
- 통합 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 평가
- 다양한 문제 유형 개발 및 선택 수능제 도입 연구
- 장애아 평가 도구 개발: 점자와 음성 평가 도구 제공
- 수험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부담 경감
-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 사전 예고제 정착
- 대학의 수능 성적 평균 점수 등 진학 정보 공개 유도
- 복수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한 입시 일정 조정 검토
- 수험생의 복수 지원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전형료 적정화 유도
- 지역별 공동 접수 창구 확대·운영
- 표준 원서 서식 개발·활용 확대
- 나. 대학의 특성화 유도**
- 대학 교육의 특성화
- 대학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대학별 자체 계획 마련 추진
- 교육 개혁 추진 우수 대학 선정·지원으로 대학 특성화 촉진
- 지방 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 10여개 대학 선정 지원(100억원)
- 재정 지원을 통한 특성화 유도
- 지방 공과대학 중점 지원('94~'98): 매년 400억원
- 이공계 우수 대학원 중점 지원('95~'99): 매년 200억원
-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지원('96~2000): 매년 200억원
- 교수 직제를 다양화하여 교육 및 연



구 수준 제고  
 - 현행 정규 교수 외에 석좌 교수 및 기금 교수 제도 등을 법제화  
 □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  
 ○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  
 - 교육·연구 여건 우수 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중점 육성  
 - 연구비 및 재정의 중점 지원  
 - 학부 정원 감축과 연계한 대학원 정원 대폭 증원  
 ○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대학원 규정 제정 추진  
 - 대학원을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으로 유형화  
 - 학위를 학사 학위와 전문 학위로 이원화  
 -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 운영  
 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  
 □ 대학 평가 체제의 구축  
 ○ 다양한 평가 방안 수립  
 - 종합적인 평가 계획 수립 및 행·재정 지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 기구의 다양한 평가 결과 활용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발전 방안 수립  
 - 분야별 특성화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실시 및 차등 재정 지원  
 - 재정 지원 사업의 단계적 민간 이양  
 □ 연구비 지원 확대  
 ○ 대학의 학술 연구 활동 지원 강화로 연구 기반 확충  
 - 연구 기반 조성:('96) 900 → ('97) 1,200억원  
 ○ 우수 연구 인력 양성 및 국제 학술 교류 지원  
 - 박사 후 연수 과정(Post- Doc) 지원: 80억원(600명)  
 - 국내 박사 과정 학생 우수 논문 발굴·지원: 15억원  
 - 외국 석학과 공동 연구 지원: 25억원  
 - 국제 학술지 발간비 지원: 5억원  
 □ 교육·연구 환경의 정비화

○ '첨단학술정보센터' 설립·운영  
 - 국내·외 최신 학술 정보 수집·제공  
 - 학문 분야별 전문 정보 센터 지정·운영(10개 분야)  
 ○ 교육 전산망 확충  
 - 교육 전산망의 인터넷 전용 회선 고속화 추진  
 - 국립 대학 내 전산망(LAN) 확충: 20개 대학  
 - 교육 전산망 접속 기관 확대:('96) 160 → ('97) 330개 대학 및 기관

### 3. 교육 복지 구현

가.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 특수 교육의 강화  
 ○ 장애인 평생 교육 복지 지원 관리 체제 구축  
 - 유관 기관과 '장애인 평생 교육 복지 지원망' 구축 추진  
 - '장애인교육 복지정보 센터'를 국립 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  
 ○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 특수 학교 신설: 7교(서울 3교, 인천 1교, 경기 3교)  
 - 재택 순회 대상자 확대:('96) 735 → ('97) 1,000명  
 - 일반 학교 내 학습도움실 설치·운영: 132실  
 - 장애 유아를 위한 유치부 과정 설치 확대:('96) 83 → ('97) 107교  
 - 국립 재할 전문대학 설립 추진(24억원, 2000년 개교)  
 ○ 특수 교육 교사의 자질 향상  
 - 대학원 중심 교사 양성 체제로 전환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 자격 구분 없이 임용  
 - 특수 교육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국내 연수 1,607명, 국외 연수 40명  
 ○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추진  
 - 입학, 교육과정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특례 적용  
 ○ 장애 아동의 직업 교육 기회 확대

- 특수 학교 고등 학교 과정 졸업생에게 직업 교육 실시(16교, 553명)  
 □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대책 추진  
 ○ 학교 모델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 욕구 수용  
 - 중퇴생 등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 설립 추진  
 - 청소년의 대적적 문화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설립 추진  
 ○ 부적응 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 가출 학생의 임시 보호와 상담을 위한 '가출 학생 쉼터' 설치·운영(6개 소)  
 -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중퇴생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 중퇴생 학교 복귀를 위한 특별 대책 추진  
 - '97. 2~3월 '중퇴생 학교 복귀 특별 기간'으로 설정·운영  
 - 희망하는 학교에 전원 복귀 조치  
 □ 학습 부진아 교육 대책 수립  
 ○ 학습 부진아 판별 도구 개발 및 실태 조사 실시  
 - 학교급별·학년별 최소 기초 학력 검사 실시  
 ○ 학습 부진아의 기초 학력 신장  
 -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 실시  
 - 개별 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실시  
 □ 농어촌 출신 학생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  
 ○ 농어촌 출신 학생의 대학 특례 입학 지속 추진  
 - '96: 9,562(모집 정원의 1.8%) → '97: 15,654명(모집 정원의 2.8%)  
 ○ 농어촌 지역의 공립 고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 지원  
 - 거창·남해('96), 예천('97), 담양·주문진·옥천·청양·장흥('98 개교)  
 - 국고 지원: 시설비 교당 120억원, 운

영비 교당 30억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농특회계): 200억원  
 - 지급 규모: 만명, 학기당 100만원  
 - 상환 방법: 졸업 후 4년간 분할 상환(무이자)  
 나. 직업 및 평생 교육의 내실화  
 □ 고등 학교 직업 교육의 강화  
 ○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공업계 고교의 수용 능력 확충  
 - 공교 신설 및 학급 증설: 4교 신설, 130학급 신·증설  
 - 공교생 장학금 지원 확대:('96) 53 → ('97) 107억원  
 ○ 실업계 고교 시설·설비의 현대화  
 -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지원: 355억원(기준의 70% 수준)  
 - 원격 교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설치 확대(200실, 100억원)  
 - 첨단 기자재 공동실습소 확충: 28개소, 36억원  
 □ 대학 직업 교육의 내실화  
 ○ 전문대·개방대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전문대 지원 확대:('96) 927 → ('97) 1,487억원  
 - 개방대 지원 확대:('96) 530 → ('97) 728억원  
 - 전문대·개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97 신규: 450억원)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전문 학사 학위 수여  
 - '97. 2월 졸업생(145교, 187천명)  
 ○ 산업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산학 협동 강화  
 - 산업체 요구에 따른 '주문식 교육 제도' 시범 운영  
 - 교원이 산업 현장에서 연수하는 '연구 학기제' 권장  
 - 학생이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실습 학기제' 권장  
 ○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 교육 기회를 위한 기술 대학 설립

- 전문 학사 및 학사 학위 과정(각각 2년) 설치·운영  
 - 강의식 교육과 원격 교육 및 현장 교육 방법 병행  
 - '97년 상반기 설립 기준 마련  
 □ 우수 산업 인력 양성 기능의 강화  
 ○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 연계 체제 구축으로 인력 양성 효율성 제고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설치 및 직업 교육 훈련 기본 계획 수립  
 ○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자격 제도 도입  
 - 민간 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력 제고  
 □ 평생 교육의 내실화  
 ○ 교육행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 다양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및 평가  
 - 사회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 사회 교육에 대한 전국 단위 정보 교류망 구축 및 지원  
 ○ 시·도별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 지정·운영  
 - 각 지역의 사회 교육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립·운영  
 - 직업 교육 훈련 정책 개발 및 자격 제도 연구 등 기능 수행  
 • '97 상반기 개원(50억원)  
 - 기본적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직업 능력 인증제 도입 추진  
 • 도입, 운영 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정비  
 ○ 학점 은행제 시행  
 - 각종 사회 교육 기관에서 평가 인정된 학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 인정  
 • 시간제 등록 수업에 대한 학점 인정('97 상반기)  
 ○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한 평생 교육 기회 확충  
 - 초·중등 학교 시설을 이용한 사회 교

육 확대:('96) 5,811 → ('97) 6,500교  
 - 대학 부설 사회(평생) 교육원의 설치 확대:('96) 116 → ('97) 135교  
 - 공공 도서관을 지역 주민의 평생 학습장으로 활용: 6개 도서관 시범 운영  
 다. 재외 동포 교육 지원 강화  
 □ 재외 동포 교육의 내실화  
 ○ 동포 집중 거주 지역에 교육 기관 신·증설로 교육 기회 확대  
 - 한국 학교 신설: 상파울로, 프랑크푸르트, 카이로, 마닐라  
 - 한국 교육 센터 신설: 로스앤젤레스, 동경, 타슈켄트, 알마타  
 ○ 한글 학교 운영 지원 확대  
 - 영세 한글 학교의 통·폐합 유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현지 실정에 맞는 민족 교육 교재 개발·보급  
 - 한글 학교 표준 교육 과정 개발·보급  
 ○ 미국 SAT II 한국어 채택 사업 지원('97. 11. 제1회 시험 실시)  
 -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미국 중·고교(1교당 \$ 5,000)  
 - 한국어 교사 양성 및 교재 연구 개발  
 □ 재외 동포 초청 교육 및 연수 강화  
 ○ 정부 초청 재외 동포 장학생 사업 신설  
 - 동포 자녀 및 입양아 대상: 학사 또는 석·박사 과정 50명  
 ○ 재외 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  
 - 학생 및 동포 교육 담당자 초청 연수: 10개 과정 1,296명  
 - 중국 등 공공산권 지역 단기 연수 인원 확대(40 → 80명)  
 □ 귀국 학생 국내 적응 과정 신설 및 확대  
 ○ 국제 학교 신설 추진(초·중·고 과정)  
 ○ 귀국 학생 교육 시범 학교 운영(서울, 대전 등)  
 ○ 방학 중 귀국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

대 실시

#### 4. 교직 사회의 활성화·자율화

##### 가. 교원 양성·연수 체제의 개선

- 교원 양성 체제의 개편
- 일반 대학 교직 과정 이수 정원 단계 별 감축:('96) 33,000 → ('97) 26,000명
-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인정 및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기반 조성
- 평가 인정 운영 체제 마련 및 지표 개발
- 평가 인정 결과를 활용하여 교원 양성 기관간 통합 유도
-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 및 관련 학과 조정
- 사회·과학 등 통합 교과 표시 과목 신설
- 표시 과목의 대학 관련 학과 및 기본 이수 영역 조정
- 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복수 교과 지도 교사 양성
- 사범대학의 복수 전공·부전공 운영 확대
-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 기회 확대
- 교원 자율 연수의 확대
- 대학 부설 교원 연수 기관 확대 운영:('96) 56 → ('97) 70개 대학
- 교원의 연수 학점제 도입
- 교원 연수 이수 학점화 및 누가 기록제 시행
- 연수 결과를 보수 및 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 수요자 중심의 연수 과정 운영
- 교원의 연수 기관 선택제 도입
- 연수 프로그램 사전 예고를 통한 교원의 선택 폭 확대
- 나. 교원 임용 제도의 다양화·자율화
- 일정 기간 계약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제도 시행
- 정규 교사의 휴직, 파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또는 선택 과목 다양화에 따

- 른 교사의 한시적 수요에 대처
- 임용 기간:1년(3년 연장 가능)
- 능력 중심의 승진 제도 확립
- 능력이 우수한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경력 평정 기간 하향 조정
- 근무 실적 평정 요소의 합리화 및 평정점 개선
- 가산점, 평정 방법 등을 시·도교육청에 위임 확대
- 소규모 학교 등의 교육 내실을 위한 순회 교사제 활성화
- 과목 상치 해소와 교사간 수업 시수 균형을 위한 순회 교육 실시
-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재택 순회 교육에 활용
- 교원 교환 근무제 도입
- 일정 기간 타 시·도 파견 근무제 시행
- 교원 양성 기관과 초·중등 교원과의 교환 근무제 추진
- 교장·교사 초빙제 시범 학교의 확대 실시
- 교사 초빙 시범 학교:60교
- 교장 초빙 시범 학교 확대:('96) 53 → ('97) 112교
- 교육 전문직 임용 제도 개선
- 경력 요건 완화로 임용 연령 하향 조정
- 장학직과 교원직과의 전직 요건 강화
- 장학직과 교육 연구직의 일원화 검토
- 다. 교원 복지 향상
-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 초·중등 학교 교과 전담(중치) 교사 배치 확대로 주당 수업 시수 감축:4학년 이상(3학년당 0.75인) → 3학년 이상(학년당 0.25인)
- 초·중등 학교 학급당 학생수 지속적 감축
- 초·중등 교원연구실 연차별 확충(2000년까지 7,913실 확보)
-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향상 도모

- 교원의 처우 개선
- 초·중등 교원 보전 수당 및 교사 업무 추진 교통비 인상
- 교직 수당 인상 추진
- 자율 연수에 대한 지원 확대
- 학생안전공제회 활성화 방안 강구
- 기금 증대로 보상 기준 보완
- 교원 자녀 보육 시설(학교 유아방) 확충:('96) 170 → ('97) 200개소
- 교원 복지 기관의 기능 활성화 도모
- 생활 안전 자금 지원 확대:('96) 12,417 → ('97) 14,900억원
- 교원 편의 시설 및 휴양 시설 확충
- 교원 수업 외 업무 경감 지속적 추진
- 사무 자동화 기기 보급
- 교원 1인당 PC 1대 보급('99년까지)
- FAX 및 복사기 1교 1대 이상 구비
- 초·중등 학교 교원 업무 보조원(전산) 배치 권장

#### 5. 교육 행·재정 제도 정비

- 교육 규제 실명제 도입
- 교육 규제 실명제 도입으로 규제 증가 및 영속화 방지
- 교육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입안 책임자의 성명을 관보에 게재
- 새로 생산하는 교육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제' 도입·운영
- 시행 중인 교육 규제는 분기별로 존치 필요성 검토 후 정비
- 각종 교육 법령 등의 교육 규제 발굴·정비
- 교육부:169종(법률 39, 대통령령 69, 부령 61)
- 시·도교육청:1,240종(조례 669, 교육 규칙 571)
- ※ 교육 규제 정비 실적('96):훈령·예규·지침 등 1,250종, 2,639건
- 교육 규제 완화 영향 평가 실시
- 교육 규제 정비가 교육 현장에 미친 파급 효과를 평가하여 반영

- 학교 운영 방법 개선
- 초·중등 학교 통합 운영 추진
- 지역 실정에 따라 소규모 초·중·고 통합 운영 권장
-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통합 기준·운영 세칙 마련
- 고등 학교 설립 준칙 주의 도입
- 소규모, 특성화 고등 학교 설립 유도
- 대중음악고, 문예창작고 등
- 영세 사학을 단계적으로 공립화 또는 공익 법인으로 전환 추진
- 법인의 기본 재산 전체 또는 일부를 사학 설립자 측에 환원 검토
- 정비 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
- 교직원을 교육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 방안 검토
-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교육 관련 권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행정 위원회의 기능 수행
- 교원의 고충 및 소청 심사
- 교육 관련 각종 분쟁의 조정·중재
-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구제
-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확대·개편

- 교육부에 중앙위원회, 시·도교육청에 지방위원회 설치
- 지방 교육 행정 체제 쇄신
- 지방 교육 자치 제도 개선
-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
-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
- 표준 정원제 실시로 시·도 공무원 정원 관리의 자율성 및 책임 강화
- 기구 설치의 자율성 확대를 지방 교육 행정 수요에 부응
- 시·도교육청 종합 평가 방법 보완
- 연중 수시 평가 체제 수립
-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 평가 실시 유도
- 학교 평가 모형 개발
- 6대 도시 초·중·고 육성 회비 폐지
- '97학년부터 육성 회비 전면 폐지
- 육성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교원 보전 수당 가산금 확대 지급:6대 도시 평균 수준(월 2만원 내지 4만원)
- 육성회 직원(712명)은 시·도교육청에서 기능적으로 특별 채용

## 우리 교육의 달라지는 모습

-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학생
-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열린 교육의 실시로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가 커짐.
- 고등 학생의 과목 선택 폭이 확대되고 학업 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이 활발해져 적성과 능력이 맞는 학습이 가능해짐.
- 도·농간의 교류 학습과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이 허용되어 자연과 농촌을 배우는 기회가 늘어남.
- 활성화·자율화되는 교직 사회
- 교사 초빙제, 순회 교사제, 기간제

- 교원 등 교원 임용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교직 사회가 활기를 찾음.
- 초·중·고 학교에 교과 전담 교사가 확대 배치되어 수업 부담이 경감됨.
- 각종 교육 규제가 전면 정비됨에 따라 교육 활동에서 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됨.
-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학부모
- 방과 후 교내 과외가 활성화되고 교육방송, 에듀넷 등을 통한 양질의 학습 정보가 제공되어 과외비 부담이 줄어듦.
- 장애아, 중도 탈락자 등에 대한 교육

- 적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 이들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게 됨.
- 도서 벽지 중학생에 대한 교과서 무상 공급과 농어촌 특례 입학 제도의 시행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적 수혜가 늘어남.
- 쾌적한 학습 공간으로 변모하는 학교 환경
- 전국 초·중·고 교실에 멀티미디어 환경(PC, TV, VCR 등)이 조성되어 첨단 정보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짐.
-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의 50%가 교체되고 전국 교실의 70%에 사물함이 설치되어 쾌적한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함('99년 완료).
- 농·어촌 등에 정보화 시설 등을 갖춘 현대적 학교가 건립되어 지역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다양화·특성화되어 가는 대학
-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다양화되어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질·적성을 반영·평가하게 됨.
- 소규모 특성화된 대학(원)이 설립되고 대학별 특성화 계획이 실천됨에 따라 대학의 모습이 다양화됨.
- 학기, 졸업 학점, 수업 일수 등 학사 운영이 다양해져 학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짐.
- 우수 인력을 공급받는 산업체
- 실습 학기제 및 주문식 교육 등의 산학 협동 교육 실시로 현장 적응력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해짐.
- 기술 대학 제도 시행으로 산업체 근로자에게 고등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됨.
-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 자격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산업 인력 확보가 수월해짐.

# 1. 주요 업무 추진 실적('93~'96)

## 1.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초·중등 교육 운영

○ 선택 과목의 확대(34 → 60과목)와 수준별 이동식 수업의 확대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토대 마련('95:136 → '96:486교)

○ 검·인정 교과서를 확대하고 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과서 제작에 민간의 자율·창의 및 경쟁 보장('95)

○ 학생의 다양한 활동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시행('96)

○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94년부터 초·중등 교원교과 교육 연구 활동 지원('96:20억원)

○ 방과 후 교육 활동 활성화로 학교 밖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참여 학교 및 학생수('96. 10): 9,265교(90.0%), 320만 명(36.3%)

○ 국·공립 초·중등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운영('96)

- 시 지역 전면 실시, 읍·면 지역 일부 실시(4,419교)

○ 부모의 희망과 학교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초등 학교 입학율 5세아에게도 부분 허용('96)

- 전국 2,000교에서 5,661명 입학 허용('96 학령 아동의 약 1%)

○ 평준화 지역에서의 중·고등 학교 학생 선발 방식을 '선복수 지원, 후추첨 제도'로 개선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부여('96)

○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유해 업소 등 3,637개소 이전·폐쇄 조치

○ 일제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국민 학

교' 명칭을 '초등 학교'로 변경('96)

## 2. 대학의 자율화·다양화를 촉진하고 재정 지원의 대폭 확대

○ 학기제, 졸업학점 등 학사 운영 관련 사항은 대학 스스로 결정·시행('94) 토록 하고, 학생 정원의 자율화 단계적 추진

- '96년도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방 7개 대학에 정원 자율 조정권 부여

○ 소규모의 특성화된 대학(원) 설립이 가능토록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96 설립 인가:17개 대학)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으로 효율성 제고

- 대학 재정 지원 규모 확대:('93) 3,297 → ('96) 10,136억원

- 특성화 지원 사업 신설:공과 대학 중점 지원('94) 등 4개 분야

○ 학술 연구 조성비 확대('93:272 → '96:900억원)와 박사 후 연수 과정(Post- Doc) 지원 제도 신설('96) 등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

○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을 자율화·다양화하고 학습자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키 위한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개선('96)

- 국·공립 대학은 국·영·수 위주의 필답 고사를 폐지(논술 고사는 가능)

- 사립 대학은 대학이 정하는 전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

## 3. 직업·평생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산업체 인력 수요에 부응키 위해 공업계 고교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공교 '2+1 체제' 도입('94)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기술 인력 양성

○ 일반계 고교생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실시(158천명)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 농·수·상고 학과 개편 지원(157학급, 108억원)

○ 산업체 임직원을 전문대학 겸임 교원으로 활용('96년 1,864명) 하고, 산업체 현장 근무를 위한 '연구 학기제'와 '실습 학기제' 도입 등으로 산학 협동 강화

○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 확충('93년:48 → '96년:116교)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 교육 기회 확대

## 4. 교직 사회의 활성화 및 복지 개선

○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를 재임용('94) 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화합 분위기 조성(1,342명)

○ 초등 학교에 교과 전담 교사제(11,917명) 및 사무 직원(6,230명) 확대 배치로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 출산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근무 배우자를 동반하는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96)하는 등 교육 공무원 휴직 기회 확대

○ 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96:49교) 및 교장 명예 퇴직제 도입('96)으로 교직 사회의 활성화

○ 초·중등 교원의 교직 수당을 매년 2만원씩 인상('93:월 13만원 → '96:월 19만원)하고, 담임 수당 신설('96년:월 3만원)

○ 대학 부설 연수 기관을 확대('93년:27개 → '96년:56개)하고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 연수 시범 실시 등으로 교원의 현직 연수 기회 확대

○ '96학년 2학기부터 1일 근무 시간(8시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 출·퇴근제 시범 실시(91교)

## 5. 세계화·정보화 교육 강화

○ 원어민 보조 교사 초청('95~'96년:774명), 교사 해외 연수 확대, 어

학실 확충 등으로 외국어 교육 강화

○ 대학(원)의 국제 관계 학과를 신·중설하고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96년 신규, 200억원) 세계화 인력 양성

○ 특별 활동 또는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초등 학교 3~6학년에 대한 영어 교육 실시('96년, 5,370교)

○ 교육방송 독립 기구화, 교육 종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 '에듀넷'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 구축·운영('96)

○ 재외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한국 학교 설립비 지원, 미국(LA)에 민족 교육관 설치비 지원

## 6.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정책 추진

○ 읍·면 지역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제도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대('95년:2% → '96년:3%)

○ 점심을 먹지 못하는 초·중·고등 학교의 결식 아동에게 중식 지원('96년:12,381명, 35억원)

○ 중학교 의무 교육을 도서 벽지에서 '94년부터 군 이하 지역의 전학년까지 확대 실시('96 수혜 학생:481천 명, 20.2%)

○ 특수 교육 대상자의 대학 특례 입학 허용, 조기 특수 교육 제도 도입, 특수 학교 신설 등으로 장애아의 특수 교육 기회 확대

## 7. 교육 행·재정 제도 쇄신

○ 교육 규제 일몰제를 도입,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발령한 행정 명령 2,379종(5,322건) 중 1,250종(2,639건)을 폐지·완화('96)

○ '교육 재정 GNP 5% 확보 방안' 수립 추진('95)

- 3년간('96~'98) 총 62.3조원(납입금 포함시 65.8조원) 투자

- 초·중·고등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

과 교원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육 환경 개선 5개년 투자 계획'을 마련('96년 1조원 투자)

○ 시·도교육청 종합 평가를 실시('96)하여 우수 교육청 위주로 예산을 차등 지원(500억원)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규모가 영세한 소규

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93~'96:초 1,505 중 22교)

○ 교육개혁박람회 개최('96. 7. 20~8.2)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여 교육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시·도교육청, 대학, 언론 기관 등 56개 기관 참여, 90만 명 관람

# 2. 교육 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 가. 추진 상황

□ 열린 교육 사회·평생 교육 사회의 기반 구축 등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제1차 교육 개혁 방안의 48개 과제 중

○ 현재 43개 과제(89.6%)가 전부 또는 일부 시행 중

○ 5개 과제는 '97년 상반기에 시행 또는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신교육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제2차 교육 개혁 방안의 30개 과제 중

○ 현재 7개 과제(23.3%)는 전부 또는 일부 시행 중

○ 22개 과제는 '97년 중에 시행 또는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교직 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제3차 교육 개혁 방안의 24개 과제 중

○ '97년 중 22개 과제에 대하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2개 과제는 추진 일정에 따라 '98년 이후 연차적 추진

□ 1,2,3차의 총 102개 교육 개혁 과제 중

○ 현재 50개 과제는 시행 중

○ '97년에 38개 과제 추가 시행(전체의 86%) ⇒ 교육 개혁 추진성과 가시화

## 나. 미제 현황

분야별	과제수	분야별	과제수
<제1차 과제>	48	○ 교육 재정 GNP 5% 확보	1
○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 기반 구축	7	<제2차 과제>	30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11	○ 신 직업 교육 체제 구축	20
○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	2	○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혁	5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	9	○ 전문 대학원 제도의 도입	1
○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입학제도	2	○ 교육 관련 법령 체계 개편	4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 교육 운영	7	<제3차 과제>	24
○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	2	○ 지방 교육 자치 제도 개선	1
○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7	○ 교직 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정책의 개혁	9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5
		○ 교육 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 방안	7
		○ 열린 학습 사회를 위한 사회 교육 개혁 방안	2
		합 계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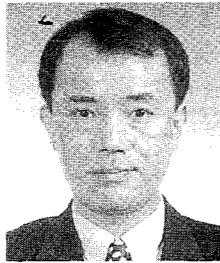
# 학생 의무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힐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길 학수고대한다.”

“공 부해라”, “책 좀 읽어라.”  
- 자라면서 부모님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다. 이때의 책은 교과서 혹은 학습 참고서를 뜻하고, 책을 읽는 행위, 즉 독서는 지겨운 입시 공부의 연장일 따름이다. ‘명문 학교 입학생 수 늘리기’라는 왜곡된 학교 교육의 지상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의 맹목적인 교육열로 정작 필요한 독서의 실체는 도외시된 채 일회용 시험 답안을 위한 책읽기만이 미래를 걸머질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화 사회는 정보 사회이다. 정보 사회는 지식이 기반이 되고 창의력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지식과 창의력의 근간이 독서인 이상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할 사항이 독서 실태와 그 실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서러워 ‘잘 살아 보세’ 노래 부르며, 수출 입국 경제 대국을 지향하여 준선진국으로서 OECDE 회원국이 된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여태까지의 개발·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21세기 선진국 진입이 이루어지리라고 내다보기엔 너무도 암담하다.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확실히 우리 것으로 자리매김 못한 채 ‘세계화’로 명명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뒤떨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작 두려운 것은 힘 있는 열강들과의



**김성룡**  
(주)교보문고 이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필독 도서를 제시,  
의무 독서시켜야 한다.**

무한 경쟁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이에 맞서 싸울 힘의 원동력이 될 공동의 선·가치·규범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공동화 현상이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의 치유책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폭 넓은 독서 교육이 편성 실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3년째 ‘책사랑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독서 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도 독서와는 거리가 먼 학교 교육의 실태를 보며 고소한 경험이 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모교 도서 보내기 운동’을 펼쳐 해당 학교에 도서를 보냈더니 이를 진열할 도서실 공간이 없어서, 또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는 학교가 있는

가 하면, 좋은 저자를 교섭해서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도모할 수 있는 ‘저자와의 대화’를 교내 행사로 제안했더니 별무 반응인 학교가 태반이었다. 알량한(?) 도서 예산도 시설·기자재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이 다반사다.

물론, 척박한 독서 환경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학교 교육에서만 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독서 운동이 대중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 실천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독서 운동이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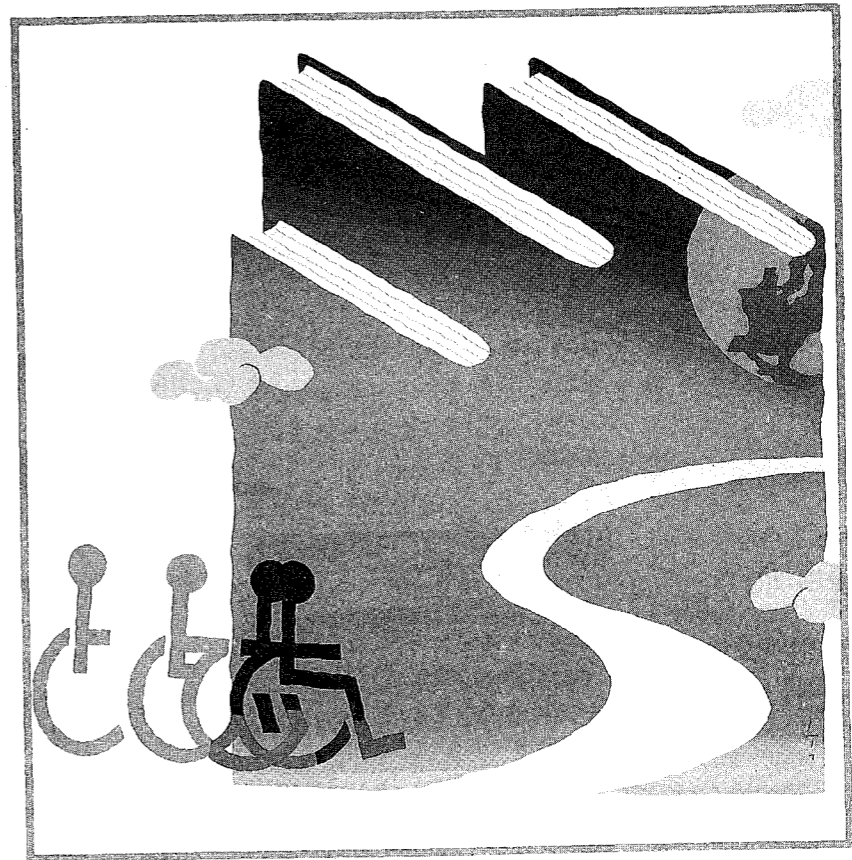
입시 지옥, 쾌락만을 추구하는 경박한 상업 매체 홍수, 뒤죽박죽 뒤끓는 빈 공간 속에 미래의 주인공들을 방치한 채 앞날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힐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지길 학수고대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인격의 틀이 만들어지는 중·고등 학교 시절에 적어도 최소한 요구 수준의 양서 몇 십 권을 필독서로 정하고, 의무 독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교육 당국에서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이 길만이 21세기 정보화 사회,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방법이다. \*

# 복지 사회 구현과 특수 교육의 과제

우리 나라에 특수 교육이 도입된 지 1세기.

우리 나라의 특수 교육은 지속적인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특수 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의 복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특수 교육의 이념과 모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특수 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특별 기획으로 마련했다.



# 한국의 특수 교육, 그 오늘과 내일

우리 나라에 근대식 특수 교육이 도입된 지 이제 1세기가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특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자녀 양육 자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교육 분야에서도 특수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는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향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을 내놓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월보>는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특수 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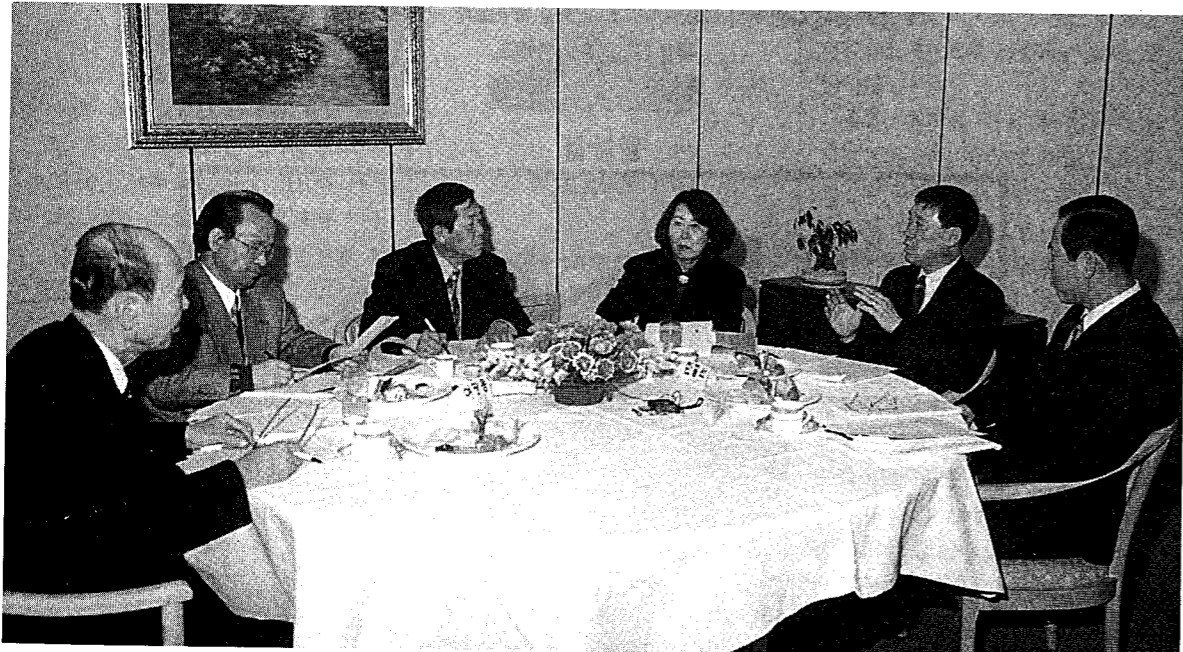


사진 : 정계철 · 국정교과서 (주)

##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은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의 비전

**김승국**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아태 장애인 10년'의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했고,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특수

### 참석 인사

- 김승국** (단국대 교수, 특수교육연구소장)
- 김장현** (서울맹학교 교장, 한국특수교육협회 부회장)
- 박추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
- 서광웅**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여광응** (대구대 교수, 특수교육학회장)
- 한홍석** (한국육영학교 교감)

**일시** : 1997.1.10(금)

**장소** : 교육부 상황실

**정리** : 김영운 (교육부 교육연구사)

교육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특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발표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 그리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 교수께서 장애아의 교육 기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광응** 앞으로 3년만 있으면 2000년대의 새 역사를 경영하는데, 우리

의 특수 교육도 교육 개혁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특수 교육 발전 방안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특수 교육은 장애아의 완전 취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수 학교, 특수 학급 교육 중심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방안에서는 교육 수요의 범위를 가정과 복지 시설, 그리고 일반 학급에까지 확대하였다는 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교육을 완전히 책임져 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특수 학교 현황을 보면 66%가 사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사립 특수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볼 때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번 방안 가운데 중도 장애아를 위한 재택 순회 교육, 특수 학교 증설, 경도 장애아를 위한 통합 교육, 학습도움실 설치 등 장애의 특수성과 요구를 고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반 학생과의 통합 교육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 교육 수혜율을 앞으로 5년 동안에 100%로 높이겠다는 방안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를 위해 특수 교육 대상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국**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오신 서광웅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광웅**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부의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을 보고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짧은 기간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 가운데는 중도 장애아를 위한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학생들과 장애아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수 유치원을 세우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일반 아동과 함께 지내는 기회가 많게 해 주는 것이 장애아를 위한 진정한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은 일반 아동들에게도 건강한 자기의 모습에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특수 교육에 관한 국민 인식 바뀌고 장애아와 함께 하는 기회 늘려야

**김장현** 현재 일반 학교에도 시력이 나빠 특수 학교에 보내야 할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은 특수 학교에서 특수 시설을 통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력이 좋아지면 다시 일반 학교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홍석** 이제 우리 나라도 특수 교육에 대해 시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모나 행정하는 분이나 우리 장애 아동들의 당당한 교육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좋지만,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나 자원 봉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서 장애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교사 한 사람이 14.5명의 자폐증 아동을 맡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도 해서 보조 교사를 쓰고자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학교 아동들의 '책가방 없는 날' 운영시 갈 곳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장애아와 함께 하는 날'로 정해 오늘은 시각 장애 학교, 다음은 정신 지체 학교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인성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추자** 이번 특수 교육 발전 방안 중 통합 교육을 점차 확대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분리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한꺼번에 통합 교육을 시도하다 보면 거부 반응이랄까,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염두에 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 학교 주변에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하여 상호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저나 학교장들이 망설이던 마음과는 달리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의 활동이나 봉사 활동 시간에도 특수 학교를 방문토록 하여 더불어 사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애 영역,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련, 시행해야

**김승국**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통합 교육 여건 조성이지,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적 책무성을 높이는 보완



김승국

**특수 학교 시설·설비의  
현대화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서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제7차 특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수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까요?

**김정현** 한국의 특수 교육도 어느덧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당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정부와 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나날이 성장하여 이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학교 교육 과정이 체계를 잡기 시작한 지는 30여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차례의 개정 노력 속에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특수 교육이 추구하는 '각 장애 아동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교육'을 하기에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장애 아동 각자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위계화함은 물론, 일반 교육의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 영역별로 또는 각 학교별로 시간 배당의 자율

성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린 교육과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수립과 함께 직업 교육의 현실성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다 명세화함과 아울러 중증·중복 장애아에 대한 교육적·직업적 대책도 깊이 있는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추자** 현행 특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일선 학교 교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영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일반 학교 교육과정도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특수 학교 교육과정도 경도 장애아는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되, 중증 장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특수 학교용으로 별도 마련,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홍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는 분야가 정서 장애 영역입니다. 그동안 정서 장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들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감각

장애아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낮은 단계에 통합시키고, 정서 장애아 교육과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감각 장애아들을 청각이나 시각, 지체 부자유 등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 대부분 대동 소이합니다. 따라서, 굳이 나누다면 감각 장애와 정서 장애로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광웅**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도 장애아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증 장애아인 경우, 지적인 내용보다는 생활 방법의 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나, 실제 운영할 때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특수 교육을 0세부터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수업 연한제나 장애아 취학 기회 확대 등 탄력적 학제 운영이 바람직해**

**여광웅** 이번 새로 개정될 교육과정은 몇 가지 특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장소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따라서 일반 교육과정도 그대로 적용하되 정상 아동 교육과정으로는 따라 가지 못하는 특수성만 거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제시하면 학교에서 판단,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운영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을 상세화한 운영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아 조기 교육을 위해 6세 미만의 장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발달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대안 과정까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심도 있게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국**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과 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번에 마련 중에 있는 특수 학교 교육과정은 이제까지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포함될 것 같아 다행스러운 것 같군요.

이번에는 특수 교육의 학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 장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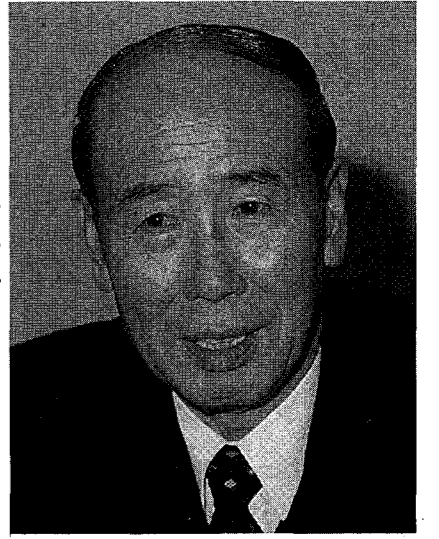
**박추자** 이번 특수 교육 발전 방안에 나와 있는 학제 계획을 보면, 현재 현장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12년 통합 운영제나 무상 교육 연한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연중 수시 입학제·수시 방학제로 장애아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등은 특수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한홍석** 그렇습니다. 특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지금보다 훨씬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연간 법정 수업 일수 22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일수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든지, 개별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수 단위·이수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방학 기간을 조정해 교육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 지체아나 자폐증 아동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교육시킨 결과가 방학을 보내고 나면 다시 원점에

김장현

**정보화 시대를 맞아  
장애아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정보망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 줘야 합니다.**



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에 취학시킬 것인지 망설이다가 3월 한 달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특수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학제에 걸려 학교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부모들은 두 번 울게 됩니다. 특수 학교의 학제는 보다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광웅** 특수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위하여 앞으로 특수교육법 개정시 많은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압니다. 학습 단계 적용이 무의미한 정서 장애, 정신 지체는 초·중등을 통합, 12학년제로 묶을 수도 있고, 수시 입학제·수시 방학제도 다 그런 입장에서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장애아 졸업식장은 울음바다  
실질적인 진로·직업 교육이 필요해**

**김승국** 학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의 내용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로·직업 교육에 대해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서광웅** 일반 학교의 졸업식은 부모들로서 기쁨의 장이겠지만 특수 학교의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곤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장애아들이 졸업 후 직업 현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업 인식을 보다 확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아들은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졸업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평생 복지 지원 체계가 이룩되어야 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보호 고용제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보호 작업장이나 재택 고용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 차원에서 적극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특수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1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폐교 시설을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해 준다면 장애아 교육에 획기적인



박추자

특수 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자매 결연 추진과  
봉사 활동 시간을 활용한  
특수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음을  
깊어야 합니다.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장현** 직업 교육은 장애 영역에 따라 다른데, 청각 장애아의 경우, 교육과정의 50% 이상 직업 교육을 시켜도, 졸업 후에는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교통이 따르고 시간적인 낭비가 큼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아의 경우는 '이료'라고 해서 안마부터 3호침술까지 일종의 인술을 배우는데, 3년의 교육 기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3년제 전공과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는데, 그에 따른 어떤 자격증을 준다든지, 학력을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홍석**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특수 교사, 치료 교사, 특수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기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일정한 특수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추자** 특수 학교 학생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직업 능력 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직업 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현장 중심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직업 훈련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장애아의 평생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부서,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지금보다도 훨씬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복지 시설을 책임지고, 노동부에서는 적당한 일자리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광응** 진로·직업 교육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 정도와 내용에 따라 각기 달리 접근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도 장애와 중도 장애가 달라야 하겠지만, 감각 장애와 발달 장애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에 관해서도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만 고치기보다는 특례 입학을 받는 대학에 지원을 한다든지, 학생에게 특례를 주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국**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직업 교육 과정 개발과 직업 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첨언하면, 지금 노동부에서는 직업 훈련 교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 양성 과정에 특수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을 특수 학교 직업 담당 교사로 배치한다면 양질의 직업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에는 교원 양성과 자격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 자질의 바탕 위에  
특수 교육 소양 겸비한 교원이 필요해**

**여광응** 교사 양성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특수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볼 때, 교원 양성 체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원 양성 체제와 자격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특수 교육 현장에서는 일반 교사 자질과 특수 교육 소양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방안에서는 대학원 중심 특수 교사 양성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선 일시에 바꾸는 것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또, '특수 학교 교사'라는 명칭은

앞으로 특수 학급 담임 교사, 요육 교사, 학습도움실 담당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 지체나 정서 장애 중도·중복 장애 학교의 초·중등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초등·중등 교사를 따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나 초·중등 교사의 자격 제한을 완화시키고, 통합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대로 나가다 보면 2000년대 초엔 특수 교육 교사가 크게 부족합니다. 일반 교사를 훈련시켜 특수 교사로 대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 교사는 결국 일반 교육 교사의 바탕 위에 특수 교육에 관한 심화된 소양을 겸비하였을 때 바람직한 자격을 가진다고 할 때, 복수 자격화해야 합니다. 특수 교사는 평생 특수 학교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고, 통합 교육에도 위배됩니다. 당분간 복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박추자** 여 교수께서는 교원 양성에 관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교육 행정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학교 교사는 크게 나누어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갖지 않은 교사, 가진 교사 중에서도 일반 교육을 경험하고 특수 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와 특수 교육 전공 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일반 학교 교사 경력과 특수 교육 경력을 함께 가진 교사를 원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통합 교육 시대를 대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일반 학

서광웅

학교 졸업 후에 갈 곳이 없는  
특수 학교 졸업생들은  
울음바다입니다.  
현장과 연결된 진로·직업 교육과  
평생 복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 주었으면 합니다.



교와 특수 학교 교사를 교류하여 특수 교사들의 사기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서광웅** 일반 학교의 특수 학급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 당시 K선생님의 정성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분은 특수 아동을 맡고 싶다고 하는데 일반 교사 자격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수 학교 교사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학교로 가시겠다는 분은 가시게 하는 이른바 교사 희망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홍석** 특수 학교 교사들은 45세가 되면 정년 퇴임할 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특수 학교 교사들에게 일정한 보수 교육을 거쳐 일반 학교 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수 교육 발전 방안에 특수 유치원 교사 양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특수 유치원 교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현** 저는 29년간 특수 학교에 근무

무해 오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교장의 입장에서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우수한 교사들이 특수 학교에 와서 조금만 경험하면 매우 훌륭한 특수 교육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에게는 사랑과 열의가 필요한데, 대개 신앙을 가진 교사 가운데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사랑, 희생 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음을 경험했습니다.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양성 과정에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승국** 아까 여 교수께서 정신 지체나 정서 장애 중도·중복 장애아에게는 초·중·고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며, 교사 자격증에 학교급별을 표시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활 연령에 따르는 경험을 발달 수준에 맞추고, 장애 아동이나 비장애 아동이 경험을 공유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내용은 발달 수준에 맞게 한다 하더라도 경험은 연령이나 학력에 맞춰야 하고, 따라서 초·중·고 학교 급별



여 광 응

**특수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일반 교육 교사의 바탕 위에 특수 교육에 관한 심화된 소양을 겸비한 교사를 양성, 복수 자격화하여 앞으로 통합 교육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한홍석** 정신 지체아에 있어서는 고등부에 있는 학생이 초등부 학생보다 지적인 능력이나 행동에 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등 교사 자격을 가진 여교사는 덩치가 큰 고등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초등 교사 자격을 가진 건장한 남교사를 고등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초·중등 자격의 구분은 이러한 때 학급담임을 배정하는 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승국** 그 문제는 앞으로 특수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의 교류가 가능해질 때를 생각하면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특수 교육 시설·설비에 관해 의견들을 나누어 보시죠.

**장애 영역별 학교 실정에 맞는 시설·설비가 필요해**

**한홍석** 발전 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특수 교육의 대상이 학교마다 분명히 다르지만 시설면에서는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각 장애 학교와 정서 장애 학교 시설이 같아서는 안됩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각 장애아 교실과 행동이 산만하기 그지없는 정서 장애아 교실의 면적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대상별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는 23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없는 경영자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제 자기 학교에 필요 없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느 정신 지체 학교를 가더라도 목공실이 다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경영자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 학교 여건에 맞는 문패를 달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라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특수 학교 교구 설비 기준도 장

에 정도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름장을 모든 장애 학교에 다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의 특수 학교 시설의 선진화라고 하는 발전 방안에 크게 기대를 가져 봅니다. **김장현** 시각 장애 학교인 저희 서울맹학교는 지난해 노동부의 지원으로 많은 첨단 기자재를 도입했습니다. 최첨단 정보망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건이 좋은 일본의 맹학교와 자매 결연을 통해 선진 기술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은 전 장애 학교에도 보급되어야 하겠고, 첨단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도 힘쓰는 한편,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정년 퇴임자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서광웅**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공립 특수 학교의 시설 설비는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립 특수 학교입니다. 국·공·사립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장애아 중에서 특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은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에서 사립 학교까지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시설을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추자**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광역시 경우는, 공·사립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 열악한 사립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승국** 시설·설비에 관한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설·설비의 현대화와 노후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장애 정도 또는 장애 유형별 바람직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 분야 연구자나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각계 각층에서 기준 설정에 필요한 연구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행·재정 지원 체제에 대해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모든 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고, 학교 경비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박추자** 모든 사업이나 계획은 예산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2001년까지 6천 명의 특수 교육 인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금년에 3명 확보에 그쳤습니다. 학교 운영비도 학급당 1년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재 특수 교육 담당 부서가 확보된 시·도는 9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유아 교육과 특수 교육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선진된 특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로 이어지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홍석** 학교 경비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투자를 위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성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특수 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한 홍 석

**특수 학교의 학제와 교육과정은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입학 시기나 방학 기간 조정 등 운영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예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장애 영역별로 전문 담당 장학사를 두는 것이 장애아 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서광웅**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정부의 간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간섭이 많다는 것은 많은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규제를 더욱 과감히 풀어, 학교 교육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국** 마지막으로, 평생 복지 지원 및 교원 복지 정보망 구축에 대해 김장현 교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화·세계화 시대 장애아들도 정보 활용 능력 키워야**

**김장현** 교육 현장에서 정보망 구축은 학생 스스로가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능동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21세기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한 지식과 기능

을 습득해야 하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맞아 장애아들도 더불어 살아 갈 수 있으려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여건으로 지식이나 기능 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 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은, 장애아들이 가지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국**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특수 교육,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대 사회와 장애인

김미선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는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장애인 친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발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디기 위해서, 혹은 한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애쓰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그들의 삶을 기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에 깃들어 있는 소박한 희망과 끈질긴 생명의 자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참 다르게도 생겼다. 삐뚤삐뚤 발걸음을 지그재그로 옮기는 것은 물론, 온몸을 흔들기가 일쑤고, 말은 어눌하다 못해 아예 한 마디도 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왜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다.

‘똑같은 인간이야’ 하고 머리는 말하고 있지만, 느낌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기분이 든다. 도저히 동류의 인간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불안함이랄까, 답답함이랄까, 아니면 애처로움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고 만다. 말을 한 마디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는다. 혹시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컴컴한 그림자가 나한테로 옮겨와 들어붙지 않을까 싶은 공연한 걱정까지 드는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상책이다. 언제부터인가 남의 일에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내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백발 백중 이 시대의 낙오자이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천사표가 붙은 특이한 인간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단정까지 내리고 만다.

두 말하지 않아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성이란 뭐니 뭐니해도 빠른 속도감에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백 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몇 십 년 안에 이루어지게 생

겼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이제 이천 년대로 진입하고나면 단 1,2년 안에 해치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하고 자동적인 의문을 품어 보지만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닌 다음에는 짐작도 못할 일이라고 하니 평범한 범부에 불과한 우리는 그냥 기가 죽을 뿐이다.

그래서인가? 요즘 유럽인의 바캉스는 예전처럼 산과 바다로 나가 자연을 만끽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찰이나 명상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인류의 질이 고상한 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일까, 고개를 가웃해 보지만 이것도 다 고도의 스피드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의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듯이 보이는 스피드가 물고 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인간은 종교나 내적인 세계로 귀의하는 것으로 그나마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한 것으로 치자면 구태여 유럽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조목조목 불안한 요소를 들어 보자면 우리 나라만큼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풍부한 대국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우선 남북이 아직도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고, 차량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의 수가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일도 그렇고, 한창 일할 나이인 사십대 남자들의 사망률도 역시 세계 1위라고 하니 그것만 해도 가히 압도적인 불안 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천방 지축 혈기로 뛰어다니던 2,30대를 지나 이제 인생의 깊이를 알만한 나이가 되어 삶을 관조하고 가꿀 수 있는 나이가 40대이고 보면 이제야말로 ‘진짜 멋을 아는 연령, 혹은 아름다운 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나이에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접어들자마자 자신이 속해 있던 곳을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함을 동반하고 있다.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발밑이 겁나고 다리 건너가기

도 무서운 경험을 반복해야만 했다. 연이어 터져 나왔던 대형 사고로 인해 백화점 가기도 무서워서 저녁 반찬 하나 사기 위해 슬리퍼 신고 뛰어나갈 때에도 행선지만은 반드시 밝혀 놓아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명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웬 명태?’ 열대어나 시베리아 수입품 등으로 물고기만 해도 하고 많은 먹거리 중에서 유독 그것만을 찾고 있으니, 갑자기 명태가 대단한 정력 식품이나 건강 식품이라도 되었던 말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 ‘명에 퇴직’의 준말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고도의 성장을 영위해 오고 있던 우리 나라 경제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지구력으로 여태까지 몸바치고 마음바쳐 일해 온 직원들을 명예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떨구어 낸다는 것이다. 회사 다니는 중견 사원마다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 ‘명퇴’라는 이름으로 다 떨어지고마는 것인지, 유난히 호들갑스러운 매스컴 때문인지, 이래저래 우리는 불안한 징조들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상의 결함을 밝히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그럴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이, 아니면 삶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믿어도 좋을 만큼 튼튼하거나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아파트 관리실과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방송이 두 번이나 거꾸 나왔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리소에 나와 있사오니 해당자는 모두 나와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킬로 미만인 아이의 접종비는……”

처음 방송이 나올 때는 ‘그것 참 고맙게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소까지 가려면 버스를 두 번 타거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일부러 나와서 맞춰 준다니 그것보다 고마울 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빨리 나오라는 내용의 방송이 또 다시 시작되었다. 쪼직쪼직거리는 잠음도 섞이는 데다가 방송을 하는 사람도 퍽 없이 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영 짜증스런 기분이 들었다. 한 번 알려 주었으면 그만이지 어련에 잡치듯이 또 다시

재촉할 게 뭐람. 이유야 자기들 실적이나 올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나는 뼈뚫음한 시선으로 엉뚱한 비판까지 늘어놓고 있었다.

하기야 나도 글이 잘 되지 않으니깐 괜한 데다 짜증을 부리는 것이지 결코 타할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터였다. 어쨌든 예방 접종을 해주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까짓 방송 소음 좀 만들어 낸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이 되랴. 병들어 골골거리는 것보다 한 번 따끔하긴 해도 미리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였다.

나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왕 방송으로 인해 딴 생각이 들었던 것만큼, 한 번 머리를 식혀 주는 일도 나쁘지 않을 것이었다. 주전자에 물을 부어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나는 팔짱을 낀 채로 서성대고 있었다. 그런데 주전자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노란색의 그것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도 멋있게 디자인된 요즘의 신식 주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낡은 알루미늄 주전자였다.

묵은 때가 손잡이나 이음새마다 켜켜이 앉아 있었다. 그걸 볼 때마다 이제는 버려야지, 버려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한 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다. 집에 다른 주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또 새로 산다고 해도 몇 천원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남이 아무리 구질구질하다고 놀려도 나의 손때가 묻은 그것에 정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주전자보다도 빨리 끓는다는 편리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문득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빨리 끓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김미선  
소설가, 동서문학 신인상 수상,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의 다수

런 속도 모르고 한결같이 갔다 내버리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돈 몇 천원에 벌벌 떠는 아주 쫄쫄한 구두쇠로 서슴없이 오해까지 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이제는 정말로 내다버리자고 결심을 하고 있을 즈음, 우리 시어머니께서 다니러 오셨다. 그러더니 어느새 이 고물 주전자를 뺏듯뺏듯하게 뒹아 놓으신 것이 아닌가.

무딘 내 손으로는 도저히 뒹여지지 않던 묵은 때들이 어머니의 맵찬 손끝에서 깨끗이 벗겨나가고, 마치 묵옥 재계한 새신부처럼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버리고 말리라는 조금 전의 결심을 얼른 거두어 넣는 대신, 나는 다른 원대한 결심을 하나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주전자에 관한 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이었다.

그토록 많은 사색이 오갔던 사랑스러운 주전자를 들여다보며 나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피잔을 뜨겁게 데워내고 나서 설탕과 커피 한 숟가락씩을 넣었다. 마지막에 주전자 손잡이를 잡고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나는 번개처럼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예방 집중!**

바로 그것이었다. 장애인은 바로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예방 집중과 같은 것이라는.

사람들은 질병과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균을 약하게 만들어 몸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자기 몸안에 없던 새로운 면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 집중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이 사회의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상실에 대해서 이겨 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 주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발자국을 찍어 나가기 마련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감을 만들어 낸다. 더구나 현대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달리고 있어서 미지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른 만큼, 가변적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진 사회이기도 하다.

전에는 지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 중의 거의 99퍼센트가 이렇게 말했다.

“쫄쫄, 아깝게도 소아마비구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언제 교통 사고를 당했어요?”

혹은,

“무슨 사고를 입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쟁 이후의 저조한 영양 상태와 불량한 위생 조건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염병인 소아마비 후유증 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이후에는 공해와 약물 중독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많이 나타나 장애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이나 행동이 어눌한 경우가 많아 두뇌도 어눌한 줄 알고 어른을 아이 다루듯이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 장애 유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마디로 결코양만으로는 장애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 사고일 것이다.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입는 영구적인 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 회복기 동안의 일시적인 장애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란 특정한 사람들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주민들의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 운동이다. 동네에 장애인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일어나 데모를 하고 거세게 밀어내는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구태여 복잡한 도시 속에 들어와 힘겹게 살려고 하지 말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살이라고 기꺼이 충고까지 해 준다. 고마운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장애인은 깊은 산속에 홀로 핀 꽃이나 창공에 날아 다니는 새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장애인도 인간인지라 인간 속에 섞여서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각종 희로애락으로 인생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흔쾌히 살 수 있는 사회란 일반인에게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반대로 장애인에게 겁나고 무서운 곳이라면 일반인에게 역시 무섭고 황포한 곳으로 적용되고 말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나오는 근원적인 불안의

내용은 죽음때문이라고 했다. 그 다음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가장 큰 고난은 병들고 이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슨 수로 다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나마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배울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점에 있어서라면 장애인을 따를 사람이 없다.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앓고, 그리고 극복해 낸 사람들이다.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해 버린 것이 아니라, 어렵게나마 나름대로의 새 길을 내고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것이다.

그 사실을 믿어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회의 불안은 한층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차근차근 따지고 나면 장애인의 일이란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대학 시험을 보았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한 여학생이 있다. 벌써 오래 전의 일로, 요사이 는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십 년 전만 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일이 흔히 일어나곤 했었다.

그 여학생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면접에서 그녀를 떨어뜨리도록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학과장이 다름 아닌, 한 장애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격분을 감추지 못하던 그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 아들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다른 장애인에게조차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감감한 상황이 되어버렸겠어요?”

나도 그 말에 진심으로 동감했다.

어느 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 아버지에게 다가온 아들의 장애라는 상황은 암흑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런 형편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뜨리기까지, 또한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인지 짐작해 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생명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도 가지고 있지 못했으므로 기어이 그

학생을 밀어내고 말았다. 그건 한 학생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라도 쫄쫄이 살아 있고자 하는 고귀한 생명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까지 저 멀리 어둠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그리고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절망과 냉혹함을 선택한 것이다.

장애를 극복해 가며 훌륭하게 살고 있는 장애인 곁에는 늘 좋은 친구가 있는 법이다. 또한,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폭넓은 사람 옆에는 반드시 장애인 친구가 한두 명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이야말로 우리 곁에 있는 가장 낮은 존재이면서 또한 가장 똑같은 인간임을 알게 해주는 경험을 기꺼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는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장애인 친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발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디기 위해서, 혹은 한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애쓰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에 깃들어 있는 소박한 희망과 끈질긴 생명의 자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삶이 각박하면 할수록, 현대의 사회가 불안하면 할수록, 참다운 삶을 위한 예방 집중으로 우리는 기꺼이 장애인을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아 교육 수혜 현황**

\* 자료 : 교육부(단위 : 천명)

교육 수혜자		비수혜자	
유치원	특수 학교 1.0	일반 학교	8.3
원 16	특수 학교 0	가정·복지 시설	6.7
초등학교	특수 학교 10.2	일반 학교	56.6
교 91	특수 학교 21.2	가정·복지 시설	3.0
중학교	특수 학교 5.7	일반 학교	42.8
교 58	특수 학교 4.9	가정·복지 시설	4.6
고등학교	특수 학교 4.9	일반 학교	49.3
교 60	특수 학교 0.1	가정·복지 시설	5.7

# 특수 교육, 그 패러다임의 전환

김정권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때 분리된 특수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갖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분리된 특수 교육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분리 교육에 대한 비판을 야기시켰고, 장애 아동이 사회와 학교에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성복을 입던 시대는 지나가고 마춤옷을 입는 시대가 되었다. 본래 우리는 마춤옷을 입고 살았는데, 20세기 초엽 기계화, 자동화 시대를 맞으면서 기성복을 입고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모든 생산품은 주문자 요청에 맞추어 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금세기 초엽 새로운 산업 혁명은 객관주의적이고 미시적 가치관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후기 산업 혁명 시대는 주관주의적이고 거시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1980년대 이후 이런 변화는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21세기 초를 이런 패러다임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특수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수 교육의 재구조화를 촉구하게 되었고, 또 일반 교육의 재구조화는 상대적으로 특수 교육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 1.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시작에 되었다. 후기 산업 혁명기의 특성인 정보, 질, 융통성, 수요자 중심, 계속적 연구에 의한 새로운 정보의 창출 등은 학교 교육에서도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 것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라고 보여지며,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질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현대의 변화는 패러다임적이며, 그것은 우리 사고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질, 융통성, 수요

자 중심이란 모두가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학교의 변화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가. 교육의 질과 교육의 재구조화

질은 각자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학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계속해서 자기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비록 적더라도 더 좋은 일을 수행하고 더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성취하고, 더불어 일하면서 먼 미래까지 조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은 정보 제작소나 학생의 머리에다가 어떤 사실을 수동적으로 쏟아 붓고, 그것을 다시 분출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 질이란 경쟁에서 협력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 교육 내용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 학생은 고객이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초점은 학생에게 둔다.
- 교사는 교실에서 질을 제고하는 촉진자이다.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토대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한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그들의 생활과 상황에 관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이다.

삶의 질은 삶 속에서 갖는 사람의 안전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내적 만족감이나 성취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 완전 통합은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될 것이고, 삶의 질 제고는 자연스런 전체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에 대한 고려가 난해하고, 너무 복잡한 상황을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와 사회의 역량은 개인이 안전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일반 교육의 최근의 변화

최근 세계적 교육의 변화는 무척 급진적이고 인간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후기 산업 혁명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 나라는 이런 변화에 둔감한 상태이지만, 대통령 자문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열린 교육, 학생 중심 교육, 평생 교육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어서 이런 이상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조처된다면 세계적 교육 변화에 우리도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에 교육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해 일반 교육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더욱 교육의 순결주의자적 접근 방법이 강조되었고, 이것은 구성주의자 운동의 결과였다. 구성주의는 학습은 개별화되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학생은 그들의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나 조력자로서 기여하고, 지식의 보급자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비고츠키(L. S. Vygotsky)의 저작은 교육적 사고와 수행에 대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구성주의자의 방법은 수업과 학습에서 바로 행동주의나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구성주의자의 방법은 완전 통합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이 사회적 과정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래와 또래 학습의 지원이 강조된다. 지식의 획득이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 학생의 교육 목표와 학습 결과가 조화되는 것이다.

위계적 기능 계열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성취자를 만들 기보다는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체제를 마련한다.

## 2. 장애 학생의 교육권

‘세계는 하나’라는 표어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좌절과 갈등, 그리고 분리와 투쟁이 지배해 왔다. 장애 학생이 분리된 교육 장면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20세기 초·중엽에는 상식이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된다.

물론,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때 분리된 특수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갖는 것이 무척 다

행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분리된 특수 교육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분리 교육에 대한 비판을 야기시켰고, 장애 아동이 사회와 학교에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특수 아동의 교육권 보장 문제는 몇 가지 관점에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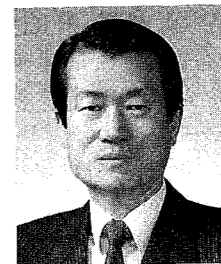
첫째, 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적 배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조기 교육 특히 출생이나 장애아로 인정이 되는 시점부터 무상·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고등부의 의무 교육화 등이 해결 과제이다.

둘째, 적절한 교육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교육권 보장이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개인 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능력)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교육 기관이 그러하듯이 특수 교육 기관도 프로그램 중심적이었다. 예를 들면, 정신 지체 특수 학교이기 때문에 정신 지체 학교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 지체 특수 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교육적 욕구가 모두 다르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개개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육 기관은 프로그램 중심에서 개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체제 전환이 없으면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양적 교육에서 질적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 아동의 교육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에서 그의 또래와 같이 교육받아야 하고, 그들과 벗하면서 정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권  
대구대, 특수교육학

### 3. 통합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완전 통합 교육(regular education initiative)의 개념은 최근에 대두된 개념이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full inclusion)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자연스런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연스런 상태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장애 학생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 학교에 다니면서 이웃과 사귀고 그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 지역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용 시설이나 기숙제 학교로 분리해서 별도의 환경을 구성하여 보통의 사회와 격리시킨 데 대한 윤리적·도덕적 비판은 1960년대 이래 계속 고조되어 왔었다. 최근 30여 년에 걸쳐 장애 학생의 통합 교육의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되었고, 또 몇 번의 패러다임 이동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찌 격리·수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이 미국에서는 장애아교육법(EHA; PL 94-142, 1975)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적어도 아동을 교육 배치할 때 제한적 환경(분리되고 고립된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극소화하고 열린 환경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류화(mainstream)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86년에는 이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원리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새로 강조하게 된 원리는 완전 통합 교육이다.

1970년대 초기의 주류화 논쟁과 1980년대의 완전 통합 교육 논쟁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논쟁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두 가지 논쟁의 기초 가정을 토론하고자 한다.

완전 통합 교육 논쟁은 세 가지 면에서 주류화와 비교가 된다.

첫째로, 특수 교육 실천의 측면과 효과에 대한 비평과 새로운 접근법의 제안이다. 1960년대에 비평의 목표는 분리된 특수 학습의 모델이고, 주류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오늘날에는 주류화는 비난을 받고 있고, 완전 통합 교육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제안되고 있다.

둘째로, 두 가지 새로운 접근은 반대에 부딪히고 현장에서는 분열이 일어났다. 주류화에 대한 반대가 있었어도 완전 통합 교육에 대한 반대보다는 가벼운 것이었다.

셋째, 주류화와 완전 통합 교육은 일반 교육에서 명백한 개혁의 시기에 발생한다. 1960년대에 던(L. M. Dunn)은 주류화는 미국 교육의 개혁이라고 보았고, 그는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인정하였다. 즉, 이 때 학교 교육에 나타난 개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학교 조직(예, 팀티칭, 무학년제, 열린 학습, 융통성 있는 집단 구성)
- ② 교육과정(더욱 강력한 교수 공학)
- ③ 직원의 역할과 실천(더욱 보조적 직원의 활용과 개별화 교수)
- ④ 교육 기자재(예, 컴퓨터, 학습 기계, 교육용 TV)

던(L. M. Dunn)은 이런 개혁이 주류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개혁은 일반 교육 제도가 학생들의 개인차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완전 통합 교육 옹호자들은 수월성 운동 초기에 더 높은 학력 성취(표준화 점수)를 강조하는 것이 완전 통합 교육이나 주류화에 부정적이라고 보았지만, 최근 수월성 운동 안에서 학교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 통합 교육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믿고 있다. 1980년대 일반 학교에서 일어난 변혁은 다음과 같다.

- ① 더욱 강력한 교수 기법(적용 교수, 협력 학습, 또래끼리 지도하는 교육)
- ② 전문적인 실천(교육과정 중심 평가, 협력적 자문, 사전 평가) 등이 완전 통합 교육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혁은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한 것이고, 이런 변화가 완전 통합 교육의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이다. 주류화와 완전 통합 교육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주류화 교육에서의 관계자들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전통적 학교 조직의 적합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관계자들은 다만 학교의 전통적 조직적 배치 내에서 일반 교육에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 통합 교육의 지지자들은 장애 학생의 학습상 문제를 일반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적 학교 조직에 연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완전 통합 교육 반대자도 동의하는 것이다.

주류화와 완전 통합 교육 논쟁의 두번째 차이는 1960년대에 특수 교육 전문가 집단이 윤리적 문제와 특수 교육의 실제적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특수 학습 모형과 관계된 문제를 개념화하지 못하였다. 주류화와 장애아 교육법(실제와 도

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었으나,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정치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적 문제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윤리성과 특수 교육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대안적 이론에 관한 논의는 현장에 적용되는 사회 과학 이론을 통찰하는 것과 특수 교육 문제 해결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 통합 교육 논쟁은 실천되고 있는 특수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적 비판을 하는 것이고, 대안적 논의는 기본 가정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된다.

### 4.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의 전환

일반 교육에서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을 위한 성공적 학습 경험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전략은 팀에 의한 작업이다. 개인 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도록 교사팀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학교 재구조화의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협력 학습이나 또래 지도 학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적 서비스 전달에서 요청되는 것은 훈련된 전문가, 보조 교사, 가족간의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아동을 위해 학생을 배치하는 실제적 목표는 아동의 여러 전문 영역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전문가가 팀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학위나 자격증과 관계 없이 아동에 대한 최대 관심사가 그의 전부라면 다른 사람의 생각, 경험, 기술을 고려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협력 학습은 아주 다른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완전 통합시키는 데 긍정적 전략 중의 하나이다. 협력 학습은 학생들의 상호 작용을 학습 집단간 이동, 그리고 개인의 학습 습관을 잘 수용하는 것이다. 감각 손상이 있는 중복 장애 아동에게는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나타내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더욱 학생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교수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 구조화된 학습 결과들, 즉 교육 목표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무엇을 언제 가르칠 것인가를 시사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내포된 모든 것은 동시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목표가 단계별로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 학생의 학습 수

행 행동, 수행 방법, 학습 수행 환경 등에 대해 분명한 검목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위에 매 프로그램마다 성취 준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중심 평가(curriculum-based evaluation)는 학생의 학업 성취에 관한 직접적 정보를 얻게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수행할 학습 기대에 대한 예언이 가능하게 된다.

### 5. 더불어 사는 사회

다가오는 사회는 역할 분담 사회이며 협력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구성원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모든 구성원은 다 다르며, 그 누구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은 모두 다른 사람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공동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장애 학생은 경쟁이란 개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겠지만, 협력이란 개념에서는 가장 좋은 참여자가 될 것이다.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성취에 기여하는 협동적 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개인에게 역할 부여를 효율적으로 할 때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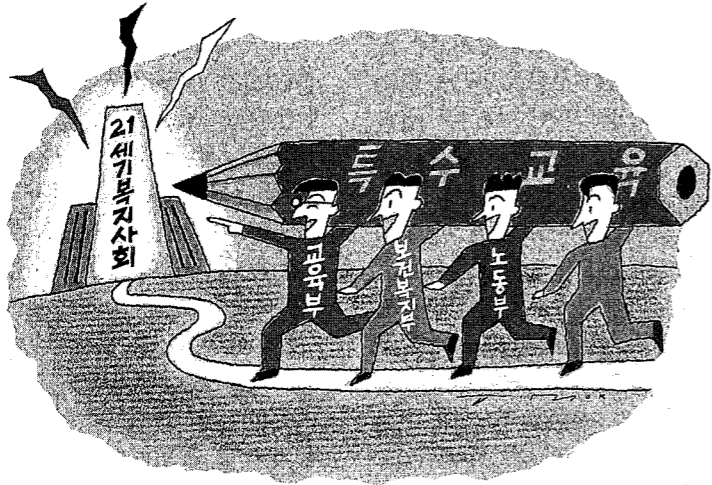
장애인이란 개념은 없어질 것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장애를 느끼면 장애인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사회 생활에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은 정신적·물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회임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고 그 일에 지장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학교도 정신 지체로 불리는 학생은 없고, 그저 그 학생의 이름으로 불리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장애 학생이 그 학습에 꼭 있어야 할 구성원으로 역할 매김을 받고 급우와 다정한 벗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원으로 인정될 때, 우리 사회는 차별 의식, 분리, 좌절과 같은 전근대적 사고는 없어지고, 초현대적 사고인 탈구조적 조직, 열린 사회, 반기초적 사고, 모두가 역사의 주연 배우가 되는 사회를 창출해 낼 것이다.\*

# 특수 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

김원경



그림·오진목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현행 특수 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의 복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특수 교육의 이념과 모형을 모색하고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의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향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97~2001)'을 수립하였다. 이제 범정부 차원의 실천 의지와 뒷받침이 요청된다.

## 시작하는 말

그 대식 특수 교육이 이 땅에 도입된 지 1세기를 거치는 동안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특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특수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과거에 국가 사회가 보이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이제 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갖던 소극적인 자녀관을 탈피하여 자녀의 적절한 교육 기회의 확보를 위해 나서는 등 적극적인 양육 자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특수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특수 교육의 전달 체제, 교육 방법, 교육 자료,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등 특수 교육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속해 왔던 특수 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세기에 대한 준비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 특수 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 특수 교육의 발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특수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우리 나라의 특수 교육은 1894년 미국 선교사 홀(R. S. Hall) 여사가 평양에서 맹교육을 시작한 이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사학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 그 동안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미루어져 왔던 장애 아동의 교육 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환기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중학교 평준화와 이에 따른 학습 지진 또는 정신 지체 학생의 진학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책의 하나로 1974년 일반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특수 학급이 설치되게 되었다. 이어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특수 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특수 학교와 특수 학급이 양적으로 계속 확충되어 1996년 4월 현재 특수 학교의 수가 109개교(국립 3, 공립 34, 사립 72)에 이르고 있으며, 특수 학급은 3,533학급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6년 현재 장애 학생 교육 수혜 현황을 보면 5~17세의 학령기 대

특수 학교 현황 ('96. 4 현재)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비 고
국립	3	93	1,107	195	사립의존도 66.0%
공립	34	746	7,318	1,304	
사립	72	1,275	13,613	2,057	
계	109	2,114	21,948	3,556	

※ 일본의 특수 학교('94) : 963교(국립 45, 공립 901, 사립 17)

특수 학급 현황 ('96. 4 현재)

구분	설치교	학급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비 고
초등학교	2,218	2,849	21,150	2,849	여의도고교 약시학급
중학교	600	681	4,906	681	
고등학교	1	3	31	3	
계	2,819	3,533	26,087	3,533	

장애 아동 교육 수혜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대상자	교육수혜자			비수혜자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일반학급	가정, 복지 시설 등	계(%)
유	16	1	-	1 (6)	8.3	6.7	15 (94)
초	91	10.2	21.2	31.4(34)	56.6	3.0	59.6(66)
중	58	5.7	4.9	10.6(18)	42.8	4.6	47.4(82)
고	60	4.9	0.1	5 (8)	49.3	5.7	55 (2)
계	225	21.8	26.2	48(21%)	157	20	177(79%)

※ 5~17세 특수 교육 대상자(225천 명)의 약 70%(157천 명)가 일반 학급에 편성되어 특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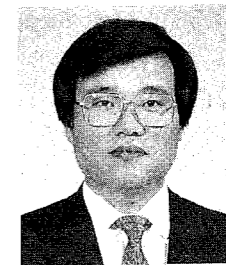
상 학생 225천 명 중 약 21%인 48천 명만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79%인 157천 명은 특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반 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수혜 대상 가운데 유치원 과정은 6%, 초등학교 과정은 34%, 중학교 과정은 18%, 고등학교 과정은 8%로서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수혜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2. 문제점

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알맞은 교육 모형의 미정립  
특수 교육은 심신에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특수 교육 기관의 수업 연한, 학기, 입학 시기, 교원 배치 기준 등이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분리 교육 위주의 특수 학교와 특수 학급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분리 교육을 원치 않는 정도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가정, 복지 시설, 병원 등에서 이동 능력 제한 등의 사유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중·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나. 교육 수혜율 저조 및 교육 기회의 불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 교육의 수혜율이 낮다. 연령별로 보면, 3~5세 기준 장애 유아 48천 명 중 2%인 987명만이 유치원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7천 명은 주로 가정에서 조기 치료를 받거나 일부는 사회 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6~17세 기준 초·중등 교육 대상자 209천 명 중 22%(47천명)만이 특수 학교 및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162천 명(78%)은 일반 학급, 사회 복지 시



김원경  
교육부 특수교육담당관

설, 가정 등에 방치되어 있으며, 고등 교육 기관의 진학률은 대상 장애 86천 명 중 0.9%인 75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자폐 아동 및 정신 지체 아동 교육 시설이 절대 부족(자폐 7.8%, 정신 지체 61.3%의 수용 능력 보유)하고, 12개 시·도에는 장애 영역별 특수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다. 직업 교육 시설 부족 및 높은 실업률**

특수 교육에서 직업 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와 독립 생활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장애 영역별로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여 시각 장애의 경우는 안마, 침술 등 2종에 제한되고 있으며, 15~29세 기준 직업 교육 대상 334천 명 중 1.8%(6천 명)만이 직업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직업 교육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1995년 현재 15세 이상 장애 인구 중 생산 가능 장애인 수 435천 명의 72.6%(316천 명)가 취업 중이고 나머지 27.4%(119천 명)는 실업 상태에 있다.

**라. 특수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치 못하는 교원 양성 체제**

특수 교육 현장은 일반 교과 지도 능력과 특수 교육 소양을 함께 지닌 교사를 필요로 하나 특수 교육 소양 위주의 양성 체제로 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 지체, 정서 장애 학교는 초·중등 자격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데도 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제도가 경직되어 있는 실정이다.

**마. 행·재정 지원 체제 및 부처간 협력 체제 미흡**

현재 중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이 완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육 여건의 미흡 등 전반적인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특수 교육에의 우선적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95년도 GNP대비 교육 예산 비율은 3.8%이나 교육 예산 대비 특수 교육 예산('95 2,147억원) 비율은 1.7%로 저조하다. 부처별로 장애인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치료, 교육, 직업, 보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수준**

사회 각 부문의 복지 정책이 정상인 위주로 추진되고 장애인은 항상 뒷전에서 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자녀 교육에 대한 나쁜 영향 등을 이유로 주택가나 인근 지역에 특수 교육 시설의

설치를 적극 반대할 정도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발전 과제**

우리 나라의 특수 교육은 계속적인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현행 특수 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의 복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특수 교육의 이념과 모형을 모색하고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의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향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97~2001)'을 수립하였다. 특수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 발전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 교육 복지 지원 관리 체제 구축**

출생에서 사망까지 각종 검사 결과, 치료 이력, 학습 경험, 직업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 관리하는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망'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들을 접촉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계통의 모든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종합교육복지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 장애 아동 교육 수혜 확대**

2001년까지 모든 특수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 혜택을 부여한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특수 학교 20개교를 신설하고, 분교 등을 운영하여 대상 장애 아동 32,000명을 전원 수용한다. 통학이 곤란한 중도·중복 장애 아동에게는 현재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복지 시설, 병원 등을 교실화하여 교사가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서비스 모형을 도입한다. 재택 교실은 2001년까지 1,000실을 설치하여 대상 장애 아동 10,000명에게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하여 10

명을 단위로 1개 교실을 편성하여 순회 교사 1명씩을 배치한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 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도 장애 아동에게는 일반 학생들과 별도 또는 통합 교육을 시키는 유동식 교실인 학습도움학급(Resource Room)을 설치하고 전문 교사 5,458명을 배치한다. 1998년까지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10개의 국·공립 특수유치원을 우선 설립 운영하며, 사립 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권장함과 아울러 운영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전국 109개 특수 학교에 유치부 과정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3. 고등 교육 기회 확대**

방송통신대학을 활용한 원격 학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입학할 희망하는 장애인 전원에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1개 학과(직업 교육 7개 학과, 재활 지원 4개 학과) 370명을 수용하는 국립 특수전문대학을 설치하며,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각 1교씩 장애인 교육 시범대학을 지정하여 지원 육성하고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한다. 1997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부터 시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와 음성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해서는 수험 장소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4. 별도 학제 마련**

무상 교육 연한을 현행 1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여 2년간은 생활 적응 훈련 심화 과정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학습 단계의 적용이 무의미한 장애 영역의 학생은 초·중등 과정을 통합한 12년제로 하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6-3-3제, 6-6제, 12년제 등 다양한 학제를 운영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중 입학제 및 수시 방학제를 운영토록 한다.

**5. 직업 교육 강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장애인 직업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 정책연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 자격 제도, 직업 교육과정 및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실업계 고교의 2+1제를 특수 학교에 적용하고, 현장 교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실을 특수 학교에 설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한다.

**6. 교사 양성 체제 개선**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대학원에 특수 교육 전공 과정을 설치하고, 8개의 특수 교육 교사 양성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현직 교사 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대학원 중심의 교원 양성 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특수 교육 교사의 신규 채용시 대학원 과정 이수자나 복수 자격(일반 교사+특수 교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제를 마련한다.

**7. 행·재정 지원 체제 강화 및 범정부 협력 체제 구축**

특수 교육 운영비를 증액한다. 투자 실적이 저조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적정 규모 투자를 권하는 '적정투자권고제'를 도입한다. 특수 교육 예산 투자 실적을 평가하여 지방 교육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 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보장한다. 그리고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수 교육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특정한 달을 지정하여 '장애인의 달'로 설정, 학교 중심으로 각종 계몽 운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자원봉사인력은행'을 설립한다.

이 밖에도 특수 학교 신설시 선진화 모형을 도입하고, 낙후된 사립 특수 학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맺는 말**

오늘날 세계 각국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5년에 교육 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고에 제시한 특수 교육의 발전 과제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특수 교육의 구조나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현실과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선결 과제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천 의지와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수 교육에 관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

# 특수 교육의 경영, 그 질의 관리

정정진

특수 교육의 질은 교육 배치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화, 개별화 교육의 심화, 교사 교육의 질 제고, 조기 교육의 강화, 일반 교육 환경의 개선 및 교육 재정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통합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특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 사회의 인식 변화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세계의 특수 교육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상화라는 기본 전제하에 과거의 분리 교육에서 완전 통합을 지향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특수 교육은 특수 교육 기관과 취학 인구 및 특수 교사 수의 증가 등 양적이고 외형적인 증대와 더불어 특수 교육 자체의 특성만을 강조하면서 특수 교육 고유의 위상 정립에 주력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특수 교육은 일반 교육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독립적인 고유의 영역을 확인하고 나누기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제 우리의 특수 교육도 민주 사회가 지향하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알맞은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양적인 특수 교육의 확장보다 내적인 교육의 질을 추구하여야 한다. 교육의 질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특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 배치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화, 개별화 교육의 심화, 교사 교육의 제고, 조기 교육의 강화, 일반 교육 환경의 개선 및 교육 재정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교육 배치의 다양화

특수 교육 대상자 모두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양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배치하여야 한다.

첫째, 진단·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진단·평가의 목적은 그들을 가장 적절한 교육 환경에 배치하고, 독특한 요구에 알맞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려는 데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학습 장애, 정서 장애 및 언어 장애 등과 같은 정도 장애의 진단·평가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점이 많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진단·평가 도구가 개발·활용되어야 한다. 진단·평가의 정확성은 도구의 타당성·신뢰성 및 객관성에 의존한다.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 교육 대상자의 능력과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도구가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진단·평가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단·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충분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합당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및 배치 과정은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영역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된 학제간 전문 위원에 의해 진단·평가되고, 학교판별위원회와 지방심사위원회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교육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적 배치 장소가 다양해야 하고, 배치 방법과 시기를 유연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자 모두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 교육 요구의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장소에 따른)이 다양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특수 교육은 특수 학교와 특수 학급 프로그램이 위주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습도움실(특별학습실)이 다양하고 체계적으

로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일반 학급에 특별 지도 프로그램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배치 방법이나 시기를 학년이나 학기에 고정하지 말고, 학생의 진전과 요구 수준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에 적절한 시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 2.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

특수 교육과정은 교육 대상자의 장애 특성과 능력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종전의 특수 학교 교육과정은 정신 지체 영역을 제외한 맹·농·지체 부자유 영역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였으며, 장애의 개선과 극복에 필요한 특수 교육 관련 교육 활동은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되었다.

그 결과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부적합하고 무리한 점이 크게 지적되어 오던 중, 1989년 특수 교육 대상자 장애 특성과 능력에 알맞은 교육과정 기준이 되도록 기초·기본 교육의 강화, 장애 극복과 개선을 위한 특수 교육 관련 활동의 강화, 직업 교육 및 조기 교육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고, 특수 학교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을 일반성과 공통성을 중시하는 국가 수준의 상위 기준과 구체성과 실천력을 중시하는 하위 기준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교육 자료도 다양하게 개발·보급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반 교육과 분리된 특수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에 국한된 것이었고, 특수 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재학하고 있는 특수 학급이나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신 지체 특수 학교 교육과정과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혼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상세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특수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은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어떻든, 우리 나라 특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제정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특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수 교육과정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 교육과정 전담 요원을 배치하거나, 교육부 교육과정담당관실에 특수 교육과정 전담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하나, 특수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후속하여 부수적, 또는 일과성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기초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특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연구와 수정·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자는 개인차가 심하고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지역 및 학생의 실태에 맞게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고 독자적인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설정·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데, 학교나 학년 및 학기를 일률적으로 구분지어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학교 종류, 학년 및 학기와 같은 제도에 고착하지 말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넷째, 지역 수준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특수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지역 수준 교육과정 편성 지침-학교 수준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수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관리의 방향 및 기준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 명료하게 상세화될 뿐 아니라, 학급 수준 및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지침까지 제시되어야 의도된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특수 학급 교육과정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없고, 특수 학급 교육과정 운영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특수 학급 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정정진  
강남대, 특수교육학

못하여 특수 학급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 학급 운영의 정상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수준 특수 학급 교육과정 기준이 제정되어야 하며, 특수 학급 운영 모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반 학급 학습도움실(일반 학급+특별 지도)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부 제시 '특수 교육 발전 방안'(97~2001)에 의하면 통합 교육을 위해 외국의 특별학습실 형태로 학습도움실을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자들과 특수 교육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특별도움실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서 장애 학교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서 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신 지체 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서 장애 학생 교육 실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서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된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개별화 교사의 심화

특수 교육의 주요 특징은 교수 방법의 개발에 있으며, 개별화 교수는 특수 교육의 기본 원리이다. 교수 방법으로서 개별화의 원리는 개성에 맞는 교육이라는 측면과 잠재된 개성을 개발한다는 양면적 측면을 고려할 수가 있다. 각 개인은 지적·정의적·신체 운동적 특성과 생활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은 이와 같은 학습자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개인이 가진 잠재적 개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통합된 인력을 완성하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개별화 교수는 교육 방법으로서 기본 원리가 있다.

그런데 왜 비단 특수 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가? 일반 아동과 비교해서 특수 교육 요구 아동들은 어떤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특수 아동들은 일반 아동처럼 일체 수업을 통해서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특수 아동들은 직접 교수에 의한 개별화 수업을 통하여 개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다음, 그것을 일체 수업을 통해 '일반화'해야 활용성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별 특수 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수가 필요 불가결한

지도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별화 교수는 교사대 학생비가 1:1, 1:2, 1:3이 될 수도 있다. 개별화 교수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수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개별화 교수를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 4. 교사 교육의 제고

교사의 자질은 특수 교육 질 관리의 우선적 필요 조건이 된다. 특수 교육 교사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적 요구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교육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자질이 요구된다. 특수 교육 교사는 일반 교육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과 아울러 특수 교육 특정 영역의 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특수 교육 교사 양성 과정과 체제는 일반 교육 교사 양성 과정이나 체제와 동일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특수 교육 교사의 수행 능력상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특수 교육 교사 양성 과정의 이수 학점 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수 교육 교사가 일반 교육 교사의 수행 능력 위에 특수 교육 교사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 교사의 이수 학점보다 더 많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 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장애 영역 전공, 교과목 선정, 시간 수 등의 차이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우수 교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사 양성 교육과정 모형이 마련되어 특수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수 학교 중·고등부에 직업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직업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양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진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며, 그로 인해 특수 교육 대상자들은 직업 재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직업 담당 교사의 양성 체제가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교육 교사는 특수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교사 양성 과정에 '특수 교육'을 교직 과목으로 설정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5. 조기 특수 교육의 강화

특수 교육 경영의 기본 원리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평가하여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다. 장애아 조기 교육이란 장애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수 방법을 의미한다. 장애아의 조기 교육은 장애를 경감하고 주장으로부터 파생될 2,3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결국 장차의 교육 비용을 절감시키는 큰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아 조기 교육은 공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수아 조기 교육을 강화하여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재정비하여 일반 유치원에 특수 학급을 증설하고, 특수 학교 내 유치부 교육을 강화하고, 독립 특수 유치원을 신설하고, 비공인 특수 유아 교육 기관을 양성화하여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특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 6. 일반 교육 환경의 개선

특수 교육 대상자의 사회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지역 사회 일반 학교에 특수 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통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교육의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 교육 교사의 특수 교육에 대한 소양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수 교육의 질 개선의 정도는 통합 교육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통합 교육의 성패는 일반 교육 교사의 특수 교육에 대한 자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일반 교육 교사는 특수 교육에 대한 이해력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특수 교육 교사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들과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해야 하며, 일반 학생들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 과정에 '특수 교육'을 교직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사 연수 교육에 '특수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급당 학생수가 적정화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교육 환경의 열악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급당 학생수의 과밀화이다.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 환경에서는 통합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후진국형 분리 교육이 강화되고 통합 교육이 구두선에 머무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급당 학생수의 과다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학급 내에서 다양한 개별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요구에 알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 교사가 특수 교육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급당 학생수가 30명 내외로 적정화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 학교의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자들이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들이 학습에 활용할 교재 및 교구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시설, 설비가 미비되어 분리 특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7. 교육 재정의 확보

특수 교육은 교사 대 학생의 수,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 교육 요원, 특별히 설계된 교실, 특별한 교재·교구의 확보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에 비해 교육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특수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교육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수 교육의 질 개선은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빈약한 상태이다. '97년도 국민 총생산비 대 교육 예산 비율은 3.8%였으나 교육 예산 대비 특수 교육 예산은 겨우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 교육에 대한 몰이해, 경제 성장 일변도의 국가 발전 계획, 특수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릇된 인식, 대학 입시 위주의 비인간화 교육 등이 상호 결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 교육 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통합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특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 교육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 특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 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김영환

전환기는 고등 학교, 중등 후기 서비스 및 고용 후 첫 몇 년간을 함께 일컬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장애인 개인이 의미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고용되고, 지역 사회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무의 재구조화와 재사고화로, 중복되지 않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 결함이나 손상을 지니고 있는 개인은 그로 인하여 능력의 발휘가 제한되고 나아가 사회 생활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 질병과 달리 결함이나 손상이 일평생 지속되므로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담 역시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교육은 '장애인의 정상화'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다. 즉, 결함으로 인하여 능력을 제한받는 개인이 가능한 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하거나, 불리한 입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특수 교육과 복지의 지향하는 바이며, 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환기란 한 가지 조건이나 장소로부터 다른 조건이나 장소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며, 개인은 일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접하게 된다. 어린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졸업 후의 환경으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취학 전 환경에서 학교 환경으로 옮겨 가는 데에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장애인들의 경우는 특히 이 과정이 다른 일반인에 비하여 어렵다. 따라서, 장애 학생들에게는 중등 학교에서 일반 사회 내지 직업의 세계로 옮겨 가는 전환기 교육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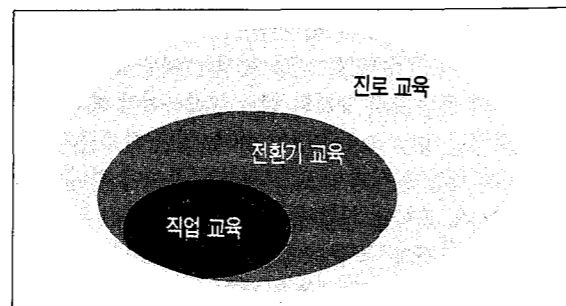
## 1. 전환기 교육의 위상

전환기 교육이란 중등 학교 후기부터 직장에 취업한 이후 몇 년간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의 교육을 의미한다. 따

라서, 전환기 교육이란 지금까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 지던 직업 교육과는 달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직업 준비 교육과 졸업 후 직장에 배치되어 추수 지도를 받던 직업 정착 교육을 동시에 포함하는 다소 광의의 직업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환기 교육은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 교육은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며, 개인을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지역 사회의 시민으로서, 나아가 한 개인이나 가족의 후원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전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진로 교육의 단계는 진로 인식, 진로 탐색 및 진로 준비 등으로 구분된다. 진로 탐색 단계에서는 학령기 초기에 성인 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직업, 직업 윤리, 자아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춘다. 진로 탐색 단계에서는 직업의 세계를 탐색할 기회를 가지며, 직업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직업 준비 단계에는 고등 학교 수준에서 시작하는 직업 프로그램, 대학에서 중등 이후 훈련에 대한 준비, 직업 기술 학교 및 현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협의의 직업 교육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의 같이 진로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환기 교육이 이루어지며, 전환기 교육 중 특히 중등 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직업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 영역의 관계는 진로 교육 - 전환기 교육 - 직업 교육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도식하면 그림과 같다.

## 2. 장애인 전환기 교육의 중요성

직업이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직업은 개개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며,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특히, 국가의 복지 수준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때 장애인의 삶은 개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직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학생, 부모, 교사 및 훈련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있어 직업 교육을 위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가 비록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회수 되는 결과는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업 교육은 세상에 의존하던 시민을 납세자로 바꾸며,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감을 정서적 안정감으로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지대하다.

장애인이 잠정적으로 유능한 자원으로 고려되려면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길러 주고 개발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생활 기술과 작업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이든, 전환기 교육이든, 직업 교육이든 모든 이들로부터 지지받기는 어렵다. 어떤 이들은 학교 중심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고 엄격히 주장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진로 발달과 전환기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들의 견해를 보면 교육은 학생들이 성인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하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등 납세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도 않고 진심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기능적 장애(disabilities)로 인한 사회 환경적 장애(handicap)는 훈련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능적 장애로 인한 사회 환경적 장애를 지닌 개인은 그들을 성인 세계에 접근시켜 줄 행동, 기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무한대의 무제한적 지원형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복지 형태는 생산적 복지, 개인차를 고려한 제한적 복지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사회 및 보호자가 장애인의 일생을 보호와 수용,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을 한 개인으로서 일반인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가능한 한 주류의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교육하고 재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그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의미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육과 재활의 최대 목표가 된다면, 이를 위한



김영환  
국립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학

전환기 교육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3. 전환기 교육 현황

#### 가. 교육과정 운영면

직업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현명하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특수 학교 직업 교육 과정은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장애 영역별로는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의 네 가지 영역에 따라 직업 관련 교육 과정이 구분이 되며, 지체 부자유는 다시 장애 정도에 따라 I, II, III 유형으로 구분되어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시각 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활동, 생활 적응 활동,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지고 그 외에 학교 재량 시간이 있다. 청각 장애 학교는 크게 교과 활동, 요육 활동,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으로 구분되며, 정신 지체 학교 교육과정은 생활, 요육 활동,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으로 구분된다. 지체 부자유 학교의 직업 관련 교육과정은 I, II, III 유형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가 난다.

특수 학교 전환기 관련 교육을 장애 영역별로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 장애 학교 중학부 실업·가정은 실생활에 필요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현실과 미래의 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생활 적응 능력은 일상 생활 및 보행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의 중요한 직업 전 기술이다.

고등부는 실업계 형태로 운영되는데, 안마, 마사지, 지압, 침구이고, 그 외에 컴퓨터, 피아노 조율, 악기 연구, 전화 교환, 타자, 수예, 편물, 등공예 등을 중심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도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각 장애 학교 중학부의 실업·가정은 일반 학교와 차이가 없고 '직업의 세계'라는 교과서를 이용하여 직업을 탐색한다. 고등부는 목공예, 도자기, 공예, 상업 미술,

인쇄, 자수, 편물, 한재, 양재, 축산, 전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 지체 학교는 중학부부터 직업 교육 과정이 강화된다. 전환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활동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 및 그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장면을 통해서 장차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교육 활동이며, 고등부 직업으로 이어지는 기초 과정이다. 고등부는 중학부의 작업 학습을 기초로 해서 정신 지체 학생에게 근로의 의의를 이해시키고 함께 직업 생활 및 가정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시켜 실천적인 태도를 육성하고자 하며, 지도 내용은 사육, 재배, 공예, 자수, 편물, 가사, 판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지체 부자유 학교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 따라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을 하고 있고, 중학부에서는 중도 장애의 경우 장애 부위의 기능 훈련과 기초적인 동작의 훈련을 배려하여 적합한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도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향상시키며 작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고, 경도 장애 학생의 경우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을 함양시킨다.

고등부에서는 중도 장애 학생의 경우, 일상 생활 동작의 제반 기능 향상과 작업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며, 중도 장애 학생의 경우 작업의 기초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며, 적당한 직종을 통하여 실제 작업 능력을 함양시키고, 경도 장애 학생의 경우, 개성에 알맞은 직업 선택에 관련된 종목의 지식과 기능 습득 및 직업 생활 능력을 함양시킨다. 고등부 직업 교육에서는 전자 조립, 컴퓨터 조립, 포장, 판매, 시설 관리, 원예, 사육, 기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나. 졸업생의 취업 현황

교육 통계 연감에 의하면, 1994학년도 특수 학교 고등부 졸업자는 1,193명이었다. 그 가운데 시각 장애인은 143명, 청각 장애인은 290명, 정신 지체인은 598명, 지체 부자유인은 152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를 보면, 시각 장애인은 136명으로 95%, 청각 장애인은 270명으로 93%, 정신 지체인은 131명으로 22%, 지체 부자유인은 45명으로 28%였다(교육부, 1995).

<표 1> 특수 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4학년도)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무직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93	768	425	46	24	22	582	402	180	565	342	223
시각 장애	143	101	42	7	7	0	136	94	42	0	0	0
청각 장애	290	189	101	3	1	2	270	181	89	17	7	10
정신 지체	598	382	216	31	16	15	131	97	34	436	269	167
지체 부자유	162	96	66	5	0	5	45	30	15	112	66	46

특수 학교의 직업은 공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교육부, 1993), 정신 지체 및 지체 부자유 졸업생이 실제로 취업하는 직종은 학교에서의 공과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582명의 취업자 중 시각 장애인의 안마와 청각 장애인의 양재 및 목공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타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시각 장애 학교와 청각 장애 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직종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많은 졸업생이 특정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정신 지체나 지체 부자유 졸업생은 직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표 2> 특수 학교 졸업생의 취업 직종 (1994학년도)

구분	계	침구업	안마업	제회업	양재업	목공업	원예업	인쇄업	기타
계	582	8	124	8	62	32	1	2	345
시각 장애	136	8	124	0	0	0	0	0	4
청각 장애	270	0	0	2	51	23	1	2	191
정신 지체	131	0	0	6	9	6	0	0	110
지체 부자유	45	0	0	0	2	3	0	0	40

기타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 지체와 지체 부자유인 경우에는 85%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업 경로를 거쳐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직업 교과와 적절성이 보통 내지 적절하다고 응답한 많은 비율에 대한 신뢰성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 4. 전환기 교육의 문제점

#### 가. 진로·직업 교육 체계의 미비

진로 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장애의 유무에 따라 진로·직업의 필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로·직업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과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진로·직업 교육은 개인의 연령에 알맞은 독립 생활을 달성하도록 돕고, 인간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소홀이나 결핍을 보완해 줄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을 위한 생활·진로 개발과 전환 계획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조기 개입이 특히 중요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나. 직업 교육 유형의 다양성 부족

장애인의 직업 교육은 크게 지역 사회 내의 고용(경쟁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전환 고용, 보호 작업장), 직업 관련 활동(작업 활동, 일상 활동) 등을 목표로 실시할 수 있다. 특수 학교에서의 직업 교육은 장애인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수 학교 직업 교육은 직업 재활 유형과 연계될 때 직업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족

교육과정이 주어지는 시간과 편제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특수 학교 직업 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직업 교육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정신 지체 학교나 정서 장애 학교의 경우 교과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 교과간의 통합적 접근, 교과간 통합 운영 등에 대한 문제들도 신중히 논의할 대상이다.

#### 라. 전문 인력의 미비

교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 좌우된다. 진로·직업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방법을 훈련받은 전문 교사가 없는 가운데 특수 교육은 일반 교육, 치료 교육,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적절히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은 그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5. 전환기 교육 대책

#### 가. 진로 교육 체계의 확립

특수 학교 진로·직업 교육은 이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교과간의 종적·횡적 연계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업 교과는 장애인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필요와 능력에 기초하여 설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진로·직업 교육은 특수 교육의 이념인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통합화를 추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직업 교육의 다양화**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동적인 진로·직업 교육으로 일관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학 특례 입학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때 보다 경제성 높은 경쟁 고용도 시도할 문제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환기 교육, 즉 직업 준비 교육은 생활 중심 진로 교육, 경험 중심 진로 교육, 학교 중심 진로 교육 등 각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적절한 모형을 채택하고 보다 현실적인 전환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종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환기 교육은 직전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제 직무 능력은 현장과 연계시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환기 교육의 목표는 경쟁 고용에 두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지원 고용, 전환 고용, 보호 작업장 등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 교육의 장은 장애 학생들의 능력과 필요에 의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

우리의 학교는 엄격한 규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직과 기구의 융통성 있는 활용과 운영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교육과정 역시 편제에 따라 단위 시간의 이수를 엄격히 고수하는 등 내용의 실효성보다는 형식적인 운영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편협성을 탈피하고 학제와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면, 전공과는 고등부와 연계되어 5년간이란 기간 동안 현장과의 협동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직업 준비 교육과 직업 적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교를 과감히 벗어나, 고등부만 있는 곳은 1+2, 2+1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전공과가 있는 경우는 1+4, 2+2, 3+2 등 다양한 형태

의 산학 협력 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현장 교육은 산업체 내 현장 학습을 설치함으로써 산학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문 인력 및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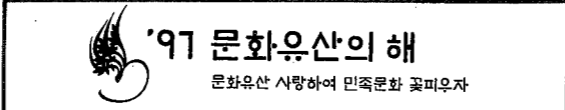
진로·직업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는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중등 과정의 직업 관련 교과 담당 교사를 범직업 교사군으로 묶어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체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직업 교육과 관련된 시설, 설비 및 관련 규정과 법을 정비하여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진로·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전환기는 고등 학교, 중등 후기 서비스 및 고용 후 몇 년간을 함께 일컬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장애인 개인이 의미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고용되고, 지역 사회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무의 재구조화와 재사고화로, 중복되지 않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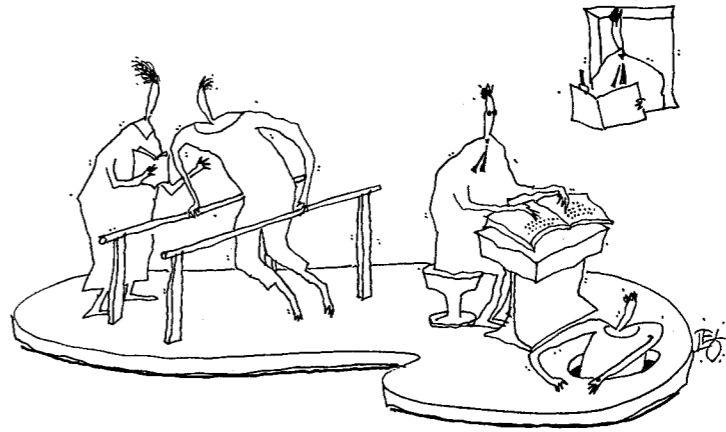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중등 후기 환경에서 전환기 교육은 장애의 정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환기 교육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별화된 종합적인 전환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케이스 관리 접근을 이용할 것
  - 둘째, 성인 서비스와 연계시킬 것
  - 셋째, 지역 중심으로 설계할 것
  - 넷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 이제 우리의 전환기 교육도 생활 중심 진로 교육, 경험 중심 진로 교육, 학교 중심 진로 교육 등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보다 경주해야 할 것이다.\*



# 특수 교육과정의 성격

김병하



그림·최정훈

특수 아동을 위한 교실 교육의 질적 개혁을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이 꼭 중요한 대안일 수 있으나, 그것의 철학적 전제와 교사에 의한 실천적 결과 간의 괴리를 여하히 메워 나가느냐가 궁극적 과제가 된다. 이처럼 특수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궁극적 과제는 그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의 능력과 책임성 여하에 달려 있다.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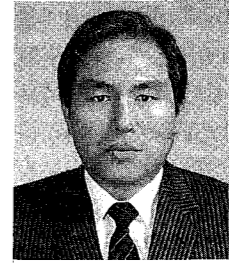
**특수 교육과정의 존재 이유와 개발 원칙**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이 왜 있어야 하는가, 있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과정은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안하고, 운영할 때에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근본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현행의 특수 아동 교육과정은 특수 교육의 본질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숙고해 봄으로써

우리는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개념화할 수 있다.

**1.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은 왜 개발해야 되는가**

특수 교육은 개개 특수 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수 교육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서 볼 때,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이 특별히 구안되어야 할 이유는 적어도 다음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김병하  
대구대, 특수교육학

첫째로, 특수 아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수 교육은 이들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구안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특수 아동이 가진 독특한 교육적 욕구의 '독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교육적 장면에 배치(placement)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안된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양하게 된다. 즉, 특수 아동이 기숙제나 통학제 특수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일반 학교 속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에게 공급될 교육과정의 성격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특수 교육은 특수한 교육적 욕구(special needs)를 지닌 아동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히 설계되고 구안되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특수 아동의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일반 아동에 위한 교육과정을 그 준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특수 아동의 독특한 욕구의 실체에 대한 바른 진단·분석·평가를 통해 재해석되고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청각 장애 아동은 전반적으로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y)에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문제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 지체 아동은 전반적으로 일반적 지능이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히 지체되므로 그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 프로그램보다 생활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 2. 특수 아동 교육과정은 어떤 원칙에 따라 개발돼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당위성에 따라 특수 아동 교육과정이 구안되어야 한다면,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존중되어야 할 주요 원칙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첫째로,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은 개개 아동의 특수한 교육적 욕구에 상응하는 개별화(individualized)의 원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안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개별화의 원리가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교육과정 모형이 따로 제시될 수 없다. 때문에 개별화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있어 특수 아동 교육과정은 학년 중심이나 부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편성될 것이 아니라, 정밀하

게 위계화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개개 아동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특수 아동 교육과정은 대상 아동의 수행 능력 중심(competency based)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수행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 특수 아동의 현재 수준 능력이 정확하면서도 다면적으로 진단되어야 한다. 이런 진단 정보에 기초하여 그 아동이 도달해야 할 장·단기 목표가 진술되고, 이 목표에 따라 그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내용과 자료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 때 교육과정 투입의 효과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진단-처방적 교수 설계를 전략화하는 것이 특수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전략화는 가끔 교육과정 내용을 지나치게 분절화(分節化)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기술 공학적 메커니즘으로 물성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셋째로, 특수 아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심 평가(curriculum-based assessment)가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중심 평가(CBA)는 최근 특수 교육 분야에서 특수 아동에게 공급되는 교육과정 내용과 그 내용의 성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연관지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강조한다. 이것은 특수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낮은 성취 수준과 그들에게 공급되는 교육과정 내용 수준(과제) 간의 불일치를 매우자는 것이다.

특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이 그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매체가 되지 못할 때, 특수 아동들은 교육이라는 경기를 치러 낼 기본적인 기술도 익혀 있지 않고, 또 경기 규칙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 아동들은 그 교육과정으로부터 패배감을 감수하는 인내심만을 강요당하게 되며, 마침내는 그 교육과정에 의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

### 특수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이번에 일반 학교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특수 교육 과정도 개정되게 되는데, 2000년대에 적용하게 될 특수 아동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

지가 우리 나라 특수 교육계의 주요 현안 문제가 된다. 이번에 개정될 특수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에 개정될 특수 교육 과정 개정의 기초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기초하게 된다. 신교육 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열린 교육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복지 사회(edutopia)를 그 비전으로 하고 있다.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추진 원칙으로 학생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고, 교사는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현장으로부터의 개혁에 적극 참여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신교육 체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서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특히 강조한다. 즉, ① 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도입하고, ② 학생의 진로 선택과 학습 능력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③ 기본 문해력, 의사 소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학력 교육을 강화하고, ④ 교과서 집필과 제작에 자유 경쟁 원칙을 도입하고, 개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며, ⑤ 개별화된 학습(individual-paced learning)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서, 교육 시설·설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활용케 한다는 것 등이다.

교육 개혁 방안에서 제시하는 신교육 체제에 의한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 방향에 따라 이번에 개정될 특수 아동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

첫째로, 장애 영역별 편제와 유치·초등·중등에 따른 부별 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수 교육의 최근 동향 가운데 비범주화(noncategorizing)가 강조되고 있음에 비추어, 특수 아동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장애별 구분에 따른 벽을 가능한 한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특수 학교는 장애 영역별 특성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치·초등·중등에 따른 부별 편제에 있어서도 정신 지체 영역에서는 무학년제에 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타 장애 영역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기존의 부별 편제 기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로, 교육과정 각론에서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준거로 한다고 하지만, 장애 영역의 특성에 따라 그 준거의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점이다. 정신 지체 특수 학교의 경우 교과 내용 편성 자체가 일반 학교의 틀과 달리 생활 중심형 통합 교과 체제로 개발되어야겠으나, 여타 맹, 농, 지체 부자유 등의 특수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의 교과 편제를 준거로 하면서 과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 내용의 양과 수준을 장애 특성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맹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자체를 일반 학교용 교과서를 그대로 점역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맹학교용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학교의 경우에는 농학생들의 현실적 학습 수행 능력 수준에 비추어 교과 내용의 편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지체 부자유 특수 학교의 경우 현행의 유형별(I.Ⅱ.Ⅲ) 교육과정 기준을 지양하고, 정신 지체 등 부가적 장애를 수반한 뇌성마비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정상 학습이 곤란한 지체 부자유 학생에게는 개별화 지도를 강화하고, 여타 정상 학습이 가능한 지체 부자유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장애 학생들의 장애 보상을 위한 요육(치료 교육) 활동 영역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특수 학교 교육과정에서 특수 아동의 장애 보상을 위해 시각 장애 학생은 생활 적응 활동으로 보행 훈련 등을, 청각 장애 학생은 요육 활동으로 언어 수용과 표현 훈련을, 정신 지체 학생은 요육 활동으로 감각 운동 기능, 언어 훈련, 행동 적응 훈련 등을, 지체 부자유 학생은 재활 훈련 활동으로 감각·지각 운동, 언어 훈련, 작업 훈련, 물리적 훈련, 신체 활동 훈련, 사회·심리적 훈련 등을 편성하고 있다.

이상의 요육 활동 영역에서 언어 훈련 영역은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장애 영역에서 모두 편성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언어 훈련' 영역을 장애 영역에 관계

없이 묶어서 통합해야 할지, 통합 편성하되 그 운영상의 유의점에서 장애별 특성을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별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종래처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검토해야 할 과제가 된다.

넷째로, 특수 학교 고등부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 교과 과정을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할 것인가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요 현안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 학교 고등부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실업계 고등 학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 교과 이수 단위(104-126단위)가 전체 이수 단위의 약 48-54%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특수 학교 전문 교과 과목은 시대성을 반영한 직업 교과 과목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등부 과정에서 이수한 직업 과목이 실제 취업에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장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함에 따라 직업 교육에 대한 현실적 유인기는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또 최근에 와서 고등부 과정에 연결되는 전공과 과정이 특수 학교에 개설되므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은 전공과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부 과정에서의 직업 교육은 진로 지도 및 직업 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 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특수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변인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성패는 교사 변인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특수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꼭 권위 있는 기준으로서 개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과 시간 배당 편제에 있어 그 규제가 상당히 획일화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교육과정 편제의 운영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가능하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구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특수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학교 중심 교육과정(school-based curriculum)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어야 함에도 현장 교사들에게 종래에 없었던 또 하나의 새로운 짐을 떠맡게 하는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교사 집단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르쳐 오던 방식대로 가르치려는 보수성이 특히 강한 집단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이해와 준비가 갖춰지지 않을 때, 그 개혁에 대해 교사는 예상치 못한 '역연금술'을 연출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나라의 특수 교육 풍토와 교직 문화에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지 않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수 아동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의 작성과 시행은 꼭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75년에 제정된 연방특수교육법(PL94-142)에서 개개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공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식 문서로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EP)을 구안하여 교육과정 운영 도구로서 반드시 적용할 것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특히, 이 IEP가 특수 교육 현장에 교육과정 운영 도구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양성 과정과 현직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즉각 반영시켜 왔다.

IEP의 구안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 간의 팀 접근에 의한 문서 작성이 강조되지만, 실제로 이 IEP를 교실 교육에서 시행하는 주체자는 특수 아동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자신이기 때문에, IEP의 구안과 시행에 따른 교사 수행 능력은 필수 요건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특수 아동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의 실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제고되어 오던 중, 1994년에 전면 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에서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방안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개별화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개개 특수 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매학년 시작 전에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시행 규칙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당해 학교에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수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안과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교사 수행 능력(competencies)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수 학교 교사, 특수 학급 담당 교사, 특수 교육 담당 장학관(사)들에 의해 가장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상위 5개의 수행 능력은 다음과 같다(김병하, 1995).

- ① 특수 교육 대상 아동의 장애 특성과 현재 기능 수준을 밝히기 위해 형식적·비형식적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능력
- ② 개개 장애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 수업 자료를 적용하는 능력
-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업 전략으로는 학습이 불가능한 장애 학생을 위해 다양한 대안적 수업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
- ④ 주어진 과제를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과제를 위계적(位階的)으로 분석하는 능력
- ⑤ 장애 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진단·평가 기법을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는 능력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 아동에게 개별화 교육 계획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교사 수행 능력으로 우리나라 특수 교육 교사들에 의해 그 중요도가 특히 높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능력, 장애 특성에 따른 대안적 수업 전략 설계와 필요한 수업 자료의 활용, 학습 과제의 위계적 분석 능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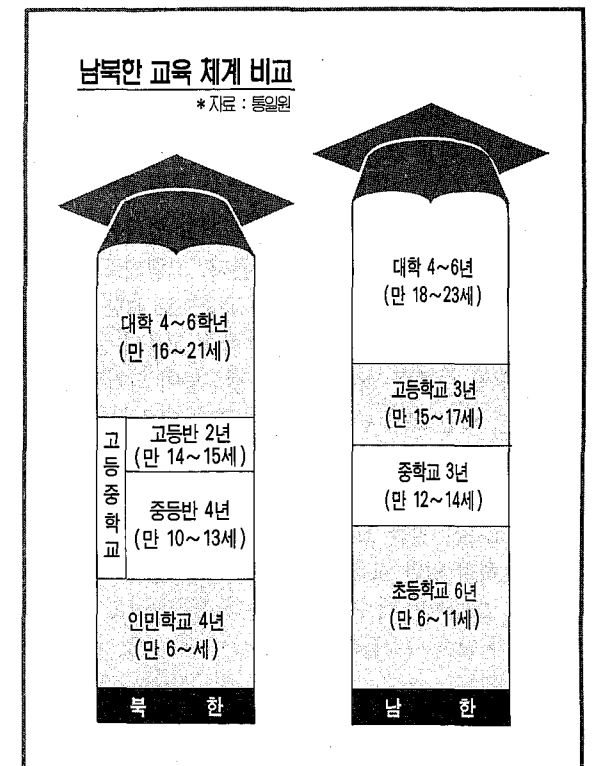
또한,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안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 수행 능력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특수 교육 교사들은 이것에 관련한 자신들의 수행 능력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구안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 정신 지체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교사 업무량의 과다, 교수·학습 자료 준비의 부족, 형식적 문서에 불과한 점, 진단과 평가의 부적절성, 현실성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 IEP에 대한 교사 이해 부족,

보조 교사·관련 전문가·부모의 협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IEP를 특수 교육 교육과정 운영 도구로 적용해 온 미국에서도 교사들에 의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Gerardi(1984) 등은 IEP의 구안과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관료주의를 파생시키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IEP의 운영이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에 충분히 활용되지도 않으면서 IEP 구안과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 아동을 위한 교실 교육의 질적 개혁을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이 꼭 중요한 대안일 수 있으나, 그것의 철학적 전제와 교사에 의한 실천적 결과 간의 괴리를 여하히 메워 나가느냐가 궁극적 과제가 된다. 이처럼 특수 교육 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궁극적 과제는 그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의 능력과 책임성 여하에 달려 있다.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어야 한다. \*



# 통합 교육에 대응하는 교수·학습 전략

김삼섭

**일반 아동과의 체계적인 상호 작용이 장애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일반 아동과의 상호 작용은 장애인 정상화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 교육 체제에서 장애 학생과 일반 아동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수업의 기본 원리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 교육 발전 방안 발표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 교는 가르치고(교수) 배우는(학습) 곳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에 관한 논의의 범주는 넓을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들만 보더라도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특수 교육계에서는 특수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교수·학습 이론이 있는 것처럼, 혹은 '특수한' 교수·학습 이론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시·청각 장애 등 감각 장애아에게 보다 적절한 혹은 특수한 교수·학습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특수 교육이 너무 '특수화'되고 있다는 자탄의 소리도 여기에서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수 교육을 '특별한' 교육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특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통합 교육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일반 교사나 학부모들이 특수 교육을 '특별한' 교육으로 간주하는 한 특수 아동을 일반 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수 교육은 일반 교육의 틀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반 교육의 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수 아동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아가 일반 사람들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보통 사람이다."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곧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정상화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 밑에 깔려 있는 믿음은 "장애인도 보통 사람이다."라는 대전제이다.

장애인의 정상화는 일반인과 가능한 한 동일한-최소한 비슷한-환경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상화될 환경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같거나 비슷해야 할 환경이 학교일 경우는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그 환경이 지역 사회일 경우는 탈수용화(deinstitutionalization)라는 말이 주로 사용된다(김삼섭 역, 1996, p. 35). 다시 말하면, 주류화나 탈수용화는 정상화의 구체적인 예들이다. 그리고 주류화는 분리 교육이 아닌 통합 교육에 의해 실천되고, 탈수용화는 분리 수용이 아닌 지역 사회 통합에 의해 실천된다. 다시 말하면, 통합은 정상화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실제적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통합 교육에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수·학습 전략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과정과 별개로 논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합 교육에 대응하는 ① 교육과정과 ② 교수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통합 교육에 대응하는 교수·학습 전략

### 1. 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육의 핵심으로서 가르칠 내용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흐름은 교과 중심·생활 중심(경험 중심)·학문 중심·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흐름의 선후는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즉, 나중 것이 앞의 것에 비해 더 가치롭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강조하는 바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특수 학교 혹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혹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흔히 생활 중심 교육은 사회의 필요 또는 일상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강조한 교육을 의미하고, 경험 중심 교육은 아동의 흥미·필요·경험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일관성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함께 경험 중심 교육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생활 중심 혹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실용적 기능' 혹은 '기능적 기술'(functional skills)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장차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살아 갈 바로 그 환경에서 사용되어질 실제적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교육과정은 환경 모형이나 계열화된 개별화 교육과정 모형(Individualized Curriculum Sequencing Model)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특수 교육의 중심이 되어 온 발달 모형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계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발달 모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장애 아동들이 반드시 '정상적'인 발달 순서에 따라 기능을 발달시키거나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기능들 중에는 결코 학습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둘째, 발달 모형은 '기능' 보다는 '특정한 행동 형태'(예를 들면 '혼자서 걷는다')와 같은 행동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한다(예를 들면, 장애 학생들은 걷는 것 대신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셋째, 발달 모형의 교육 내용들은 장애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과제를 학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조건이 달라진 상황으로의 일반화 혹은 전이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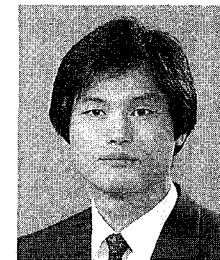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환경 모형(생태학적 모형)은 아동의 현재 혹은 미래의 환경에 필요한 기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영역으로 나누고, 아동이 현재 혹은 미래에 기능을 발휘할 환경을 결정하며, 각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나 기능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형의 장점은 발달 모형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준다(백은희·김삼섭·구본권, 1994, p. 183).

첫째, 가르칠 행동 목록들이 각 아동의 개별적인 환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개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기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이 모형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다. 따라서, 나중에 아동이 생활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활동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셋째, 수업 목표로 선정된 기능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된 과제와 상황에서 실제적 생활의 맥락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넷째, 이 모형은 각 기능들을 별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전반적인 기술을 가르친다는 점도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 모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장애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계열화된 개별화 교육과정 모형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능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이점을 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은 일반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 전 영역에 걸쳐 혹은 '기능군'에 걸쳐 공통된 반응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이 모형은 두 가지 수업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분산된 시행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된 과제의 배열이다. 전자는 특정 프로그램 혹은 내용을 반복·시행하는 사이사이에 다른 프로그램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하나의 훈련 단위 시간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백은희·김삼섭·구본권, 1994, p. 186).

이 모형은 ① 학생들은 기존의 모형에서보다 어느 정도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점 ② 특별히 일반화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일반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③



김삼섭  
공주대, 특수교육학

학교 직원들 간의 의사 소통이 고무된다는 점 ④ 각 기능들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 ⑤ 초학문적 공동 접근과 잘 들어맞는다는 점(백은희·김삼섭·구본권, 1994, p. 186) 등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 교육 체제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하여 시사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모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장애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장차 살아갈 데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바로 그 환경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소위 '지역 사회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community-based curriculum)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 2. 통합 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앞에서 통합 교육 체제에서 장애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 각각의 전략을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략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

에 학생을 위한 수업 원리·전략은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Orelove와 Sibeser(1991)은 장애 학생을 위한 기본적인 수업 원리로서 ① 기능적 과제와 자료 ② 자연스런 환경과 단서 ③ 초학문적 서비스와 통합 치료 ④ 집단 수업 ⑤ 일반 아동과의 상호 작용 ⑥ 자료에 기초한 수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백은희·김삼섭·구본권, 1994, pp. 192-194).

**기능적 과제와 자료** : 환경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이나 처치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정된 기능은, 아동이 생각하기에 그 기능은 자신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기능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결국 획득하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기능적인 기술(functional skills)은 비기능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질 수도 있다. 예컨대, 면밀히 살펴보는 기능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가장 유용하다. 그러나 아동으로 하여금 전혀 관련이 없는 몇 가지 물건을 놓고 면밀히 살펴보게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기능적 활동과 자료에 대해 일반화할 수가 있다. ① 같은 연령의 일반 아동들은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②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혹은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자료나 활동은 무엇인가? 허리 운동은 학교에서 장난감을 붙고, 계산기를 이용하고, 혹은 잡지를 펼친다든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도 연습이 가능하다.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조작하고, 전화기를 들고, 칫솔을 제자리에 꽂는 행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런 환경과 단서** : 장애 학생들은 일반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 학생이 수행하리라고 예상되는 자연스런 환경(natural settings)에서 기능을 연마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머리 빗기'는 세면대에서나 거울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전통적으로 '치료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행동들은 교실뿐 아니라 운동장·도서관·기타 학교의 다른 곳에서도 가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에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르치기에 가장 자연스런 환경은 학교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의 많은 부분은 가정이나 공장, 혹은 지역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능적 단서는 궁극적으로 행동을 유발시키는 자극이나 지시로서 주로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된다. 기능적 단서는 환경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결정된다.

**초학문적 서비스와 통합 치료** :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려면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실시해야 하는 바, 이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접근하는 초학문적 공동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을 말한다(김삼섭, 1994, p. 26). 중복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서 '수업'과 '치료'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실시될 때,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한다. 특히, 의사 소통과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은 일상의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 즉 20-30분간 반복해서 어떤 반응을 가르치는 대량 시행 학습(massed-trial sessions)에 덜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파인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될 수 있는 한 기능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치료(integrated therapy)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집단 수업** : 현실적으로 학교 직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수업 단위로 아동들을 집단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개별화 수업이 일대일 대응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만큼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애 아동들은 하루 일과 중 일부라도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집단 수업(group instruction)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집단 수업을 통하여 아동들은 서로간에 반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이 이미 나타내고 있는 기능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집단 수업에서 일반 아동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델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며 강화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한편, 집단 수업의 형태를 계열 내 집단 수업(Intra-sequential)과 계열 간 집단 수업(Intersequential)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각 아동이 기능 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계열성(같거나 다름)을 지니고 있지만, 아동들로 하여금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자는 각 아동의 계열 내에서 하나의 기능은 다

른 아동과 상호 작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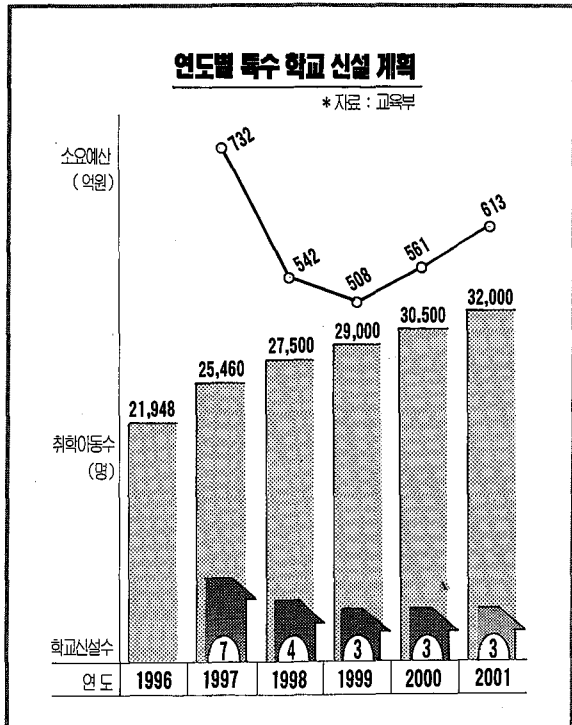
**일반 아동과의 상호 작용** : 일반 아동과의 체계적인 상호 작용이 장애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집단 수업이나 지역 사회에 기초한 수업 방법이 일반 아동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제안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일반 아동과의 상호 작용은 장애인 정상화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 교육 체제에서 장애 학생과 일반 아동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수업의 기본 원리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자료에 기초한 수업** : 효과적인 수업에 필수적인 마지막 요소는 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료(data)란 특정 과제에 대한 아동의 수행에 관해 체계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말한다. 물론, 매일 모든 행동에 대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수업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것인지, 혹은 아동이 기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맺는 말

우리 나라의 경우,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우세한 장애아 교육 모형은 군집 접근(群集接近)이다. 이 접근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한 처치 방법도 다르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탈수용화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주류화 운동은 장애인도 보통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고 방식에서,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1996, p. 5).

이와 같은 사고의 변화와,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1994년 1월 특수교육진흥법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 장애아 통합 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아 통합 교육은 특수 교육 관련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장애인 자신·부모·가족, 특수 교육 관련자, 장애인 지원 관련자들은 물론 일반 사회인 모두가 의식의 대전환(大轉換)을 가져와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참고 문헌 생략) \*



#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

김효선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이란 장애인이 그들의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완전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기업 및 재활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의 배려가 그들이 속해 있는 일반 사회의 생활 공간 속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구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교육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합 교육’이라는 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다. 이 노력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첫째, 장애인이 일반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둘째, 일반 사회의 소규모 모형인 교육 제도 내에서 이러한 구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미국 교육에서는 ‘통합’의 정의가 이 개념을 실천하는 두 가지 교육 모형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모형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적 배치만을 고려하는 ‘통합 교육(mainstreaming)’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을 때 필요로 하는 특수 교육의 배려 정도를 고려하는 ‘완전 통합(full inclusion)’이다.

통합 교육의 모형은 아동을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교육에 통합하는 시간을 계단식 배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 교육에 통합된 동안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마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 모형에서는 아동의 장애가 중증인 경우에 특수 학교나 기숙제 특수 학교와 같이 분리된 교육장으로 배치하는 방법에서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통합의 정도가 다양

한 특수 학급, 자료실, 일반 학급과 같이 점차 가장 적게 분리된 교육장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 아동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 아동과 통합된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으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어지는 과목은 특수 학급으로 보내져 특수 교사로부터 일반 아동과 분리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적인 배치만으로 통합 교육을 성취하려는 모형은 오히려 교육과 치료라는 이유 하에 장애 아동을 비장애 아동으로부터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완전 통합의 모형은 통합을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적 배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필요로 하는 특수 교육 서비스의 정도로 정의하고, 모든 장애 아동이 주거지 근처의 일반 학교에 통학하며, 장애에 따른 특수 교육적 배려가 일반 학급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모든 아동은 주거지 관할 교육구청 내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의 유무를 막론하고 주거지에 가까운 일반 학교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는 아동이 입급되어 있는 교실 내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통합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간의 협동은 물론이거니와 특수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간의 협동 체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교육계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어 온 통합 교육의 개념을 장애인의 사회 생활에 적용시킬 때,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통합 교육의 의미를 사회 통합에 적용한 사회 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 사회 속에서 직장을 얻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방

법은 학교를 떠나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장애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일반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오직 분리된 사회 환경 속에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일반 사회 속으로 통합하기보다는 분리하는 모순을 초래했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는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통합’이라는 개념의 해석 차이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분리를 정당화하게 만든 미국의 선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이란 장애인이 그들의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완전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기업 및 재활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의 배려가 그들이 속해 있는 일반 사회의 생활 공간 속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 발달이나 지적인 발달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의 잠재 능력을 보다 많이 계발하고 육성하겠다는 전제 하에 분리 교육을 주장하는 것이 아동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학교 체계를 떠난 성인의 사회 생활을 담당하는 사회 제도에서는 분리된 서비스의 모형이 설 자리가 없고 본다.

학업 성적만이 평가 척도가 되고, 소규모 사회 모형인 학교 체계 속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구분이 확실히 나타나며, 학습이 뒤떨어지는 아동들이 설 공간이 축소되지만, 실질적인 대규모 일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는 직업과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선택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다양한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많은 사회 교육과 전환 교육 및 취업의 배려가 일반 사회 속에서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완전 사회 통합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요인들을 알아보면 (1) 행정적 요인, (2) 교육적 요인, (3) 학습자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적 요인이란 완전 사회 통합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

의 마련을 담당하는 정부 차원의 행정 체계의 확립을 말한다. 교육적 요인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사회 적응을 준비시키는 모든 교육 경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비장애 아동들과의 통합된 사회 생활을 교육 모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와 담당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의 자질과 아동의 장애 정도에 적절한 개별화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 요인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정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얻은 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개인의 보건 위생 관리 능력의 정도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 정도와 자기 존중 및 의사 발표 능력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부모들의 활동과 장애인을 수용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 및 기업가들의 올바른 인식 및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 가. 행정적 요인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은 무엇보다도 일반 사회 내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본 이념을 정부 차원에서 장애의 유무와 장애의 정도에 관련 없이 적용하는 완전 사회 통합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치료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치료와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 교육(inclusion)의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이 일반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통합되는 데 필요한 환경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건물의 장애물 제거 및 교통 수단의 개선과 장애인 차별 대우 등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여러 행정 부서간의 협력으



김효선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특수교육학



로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제도가 행정적으로 확립될 때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적 요인**

이것은 교육 내용, 교육과 관련 서비스 전문인, 전문인들 간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먼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부터 특수 교육, 전환 교육, 직업 및 사회 교육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은 장애를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가시적인 장애는 없으나 장애를 가질 고위험도의 영유아들도 반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장애가 가시적으로 명백히 구별될 때까지 교육을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 유아 및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도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적절한 조기 치료 교육을 통합된 환경에서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의 진행을 최소화함으로써 막아야 한다.

장애 아동의 초등 교육은 반드시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 특성과 연령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하되 학업 중심보다는 기능 교육 중심의 교육이 일반 학급 내에서 특수 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협력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 간의 협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 경험은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에게도 유익한 경험이 되며, 일반 사회에 나아가 같이 살아갈 때 서로 간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된다.

중·고등 교육에서는 장애 아동을 학교 교육 이후에 맞이할 사회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과 생활 중심의 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 교육은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고, 장애 학생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직업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직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는 것 이외에 직업과 사회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의지력, 지속력, 동기 유발 및 흥미, 사회성 및 인성, 의사 소통 및 의사 발표력을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 계획이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전환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최대한 일반 사회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환

교육은 늦어도 중학교부터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장애 평가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은 장애인 교육과 재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는 전문인들이 각 분야에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각 관련 분야에서 배출된 전문인들이 대학 교육을 통한 지식만으로 장애인 교육과 재활 현장에서 최고의 교육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은 관련된 전문 분야의 모든 전문인들 간에 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전인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계획을 세울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특수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특수 교사, 사회 사업가, 요육 교사들 간의 협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과 간호사 및 의사와 같은 의료계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유지나 기업가 등과의 협동이 요구된다.

고려대학교 부속 발달장애재활센터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과 간의 협동 체계를 보면,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가 장애와 고위험도 군의 가능성을 보일 때 바로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소아과, 신경과, 방사선과, 정형외과, 치과 등의 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진의 경우 제시한 고려대학교 부속 발달장애재활센터 모형과 같이 전문 임상과로 분리된 것에서 탈피한 임상과 간의 협동이 매우 절실하다.

**다. 학습자 요인**

장애인의 사회에 완전 통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통합의 중심이 되는 장애인 자신이라 할 수 있다. 통합된 사회 환경에 적응해 낼 수 있는 기술과 기능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자신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와는 달리 직장에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자 인내하는 정신력이 있어야 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존중해야 하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거나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경도 장애인 경우 특히 이러한 학습자 요인이 완전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재화를 하겠다는 동기 유발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개인의 보건 위생 관리 능력을 학습한 것

과 재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는 것이 많은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서비스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에 필요한 이러한 학습자 요인은 물론 장애인이 선천적으로 타고 난 성격이거나 혼자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학습자 요인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장애인의 의타심이나 동기 결여나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열등감을 의심하기 전에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 이외에 정서적인 면과 사회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교육 체제에서 분리된 특수 교육을 12년간 받고 졸업한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을 계획하고 완전 사회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어려서부터 비장애인과 같이 통합된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풍부히 경험하고, 부모나 교사의 높은 기대 정도를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

**라.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인으로 장애인의 권익에 관심을 두는 부모와 지역 사회의 지도자 및 기업가를 포함하는 구성원을 들 수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특수 교육과 일반 교육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접할 경험이 적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사회 환경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장애인들에게 비쳐지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상황에서 완전 사회 통합이란 행정과 교육적 제도만의 개혁이나 장애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사회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방송과 언론 기관들의 참여로 사회에서 올바른 장애인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완전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비장애인과 기업가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자신들 이외에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들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부모들이 교육과 재활을 위한 활동에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보다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하여 한 단체로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단체들 간의 협동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교사와 관련 치료 전문가와 의사들과 함께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부터 통합 교육을 위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전환 교육 및 사회 통합을 계획하는 모든 결정 과정에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들의 교육적 필요 및 사회 통합적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자신의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일반 사회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치료적 배려를 일반 사회 속에서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의 완전 통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완전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부모 및 가족,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인, 기업가나 정치인 등을 포함한 지역 사회인들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음의 사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장애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전국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해 특수 교육과 재활 의학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포괄적인 평가팀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생아에서부터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충분한 통합의 경험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기능 중심과 생활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가능한 한 일찍 전환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섯째, 완전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지식과 기능 이외에 장애인의 정서적인 면과 자기 주장을 통한 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곱째, 일관성 있고 조직적인 부모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하고, 장애인 교육의 협조 체계의 한 일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권장되어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도록 사회인 전체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방송 및 언론 기관과 장애인 권익 관련 기관 등에서 사회 교육과 홍보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

# 복지 사회를 향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

교육부는 21세기의 복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특수 교육의 이념과 원리를 모색하고, 특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와 수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특수 교육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향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97~2001)'을 소개한다.

## 대책 수립의 배경

○원하지 않은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제 사회에서도 「UN 장애인 10년」에 이어 '92년 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서 '93~2002년을 「아세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대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우리 나라는 '80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에 이어 '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 의료, 보호, 고용 등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

○그러나 그 동안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 추진에 따라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수 교육 수혜율이 21%에 불과하여 나머지 79%는 방치되어 있으며, 직업 교육과 고용 분야도 매우 제한되어 실업률이 27.4%('95)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임.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복지 국가를 향한 국가적 전략을 여러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장애인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다른 부문의 뒷전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국내·외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고 봄.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 교육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의 복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특수 교육의 이념과 원리를 모색하고, 특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와 수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청됨.

## I. 특수 교육 현황

### 1. 특수 학교 현황

('96. 4 현재)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비고
국립	3	93	1,017	195	사립 의존도 66.0%
공립	34	746	7,318	1,304	
사립	72	1,275	13,613	2,057	
계	109	2,114	21,948	3,556	

※ 일본의 특수 학교('94): 963교  
(국립 45, 공립 901, 사립 17)

### 2. 특수 학급 현황

('96. 4 현재)

구분	설치교	학급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비고
초등학교	2,218	2,849	21,150	2,849	여의도교
중학교	600	681	4,906	681	
고등학교	1	3	31	3	
계	2,819	3,533	26,087	3,533	약시학급

### 3. 장애아 교육 수혜 현황

(단위: 천명)

구분	대상자	교육 수혜자			비수혜자		
		특수 학교	특수 학급	계(%)	일반 학습	가정, 복지 시설 등	계(%)
유	16	1	-	1(6)	8.3	6.7	15(94)
초	91	10.2	21.2	31.4(34)	56.6	3.0	59.6(66)
중	58	5.7	4.9	10.6(18)	42.8	4.6	47.4(82)
고	60	4.9	0.1	5(8)	49.3	5.7	55(2)
계	225	21.8	26.2	48(21%)	157	20	177(79%)

※ 5~17세 특수 교육 대상자(225천명)의 약 70%(157천명)가 일반 학급에 편성되어 특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 II. 특수 교육의 문제점

### 1.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맞는 교육 모형 미정립

- 특수 학교의 학제, 교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학급 편성 기준 등이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지 않고 획일적임.  
- 특히, 수업 연한, 학기, 입학 시기 등 학제 관련 사항과 교원 배치 기준이 일반 학교와 동일함.

□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흡

- 분리 교육 위주의 특수 교육 운영, 특수 학교 및 특수 학급 중심  
- 분리 교육을 원치 않는 경도 장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비  
- 재택 중·중복 장애아를 위한 순회 교육제 미정착('96년부터 시작)

### 2. 교육 기회 보장

□ 장애아 교육 수혜율 저조  
- 장애 유아(3~5세) 교육 수혜율: 48천명 중 2%(987명)가 유치원 교육 수혜, 나머지 47천명(98%)은 주로 가정 혹은 조기 치료, 일부는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수용

- 초·중등(6~17세) 교육 수혜율: 209천명 중 22%(47천명)가 초·중등 교육 수혜, 나머지 162천명(78%)은 일반 학급, 사회 복지 시설, 가정 등에 방치

- 고등 교육(18~21세) 기관 진학률: 장애아 86천명 중 진학자는 750명으로 진학률 0.9%에 불과

□ 장애 유형별, 지역별 교육 기회 불균형  
- 자폐 및 정신 지체아 교육 시설 절대 부족: 자폐 7.8%, 정신 지체 61.3%  
- 12개 시도가 장애 영역별로 특수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3. 직업 교육

□ 직업 교육과정의 다양성 미흡  
- 장애 영역별로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시각 장애의 경우 안마, 침술 등 2종에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직업 교육 시설 부족  
- 15~29세 기준 직업 기술 교육 대상 334천명 중 6천명 정도인 1.8%가 직업 교육 수혜를 받고 있음  
- 특수 학교(고등부)를 포함한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 및 보호작업장의 수용 시설 절대 부족

□ 취업률 저조  
'95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생산 가능 장애인수 435천명의 72.6%(316천명)가 취업 중이나 나머지 27.4%(119천명)가 실업 상태

### 4. 교원 양성 체제 및 자격 제도

□ 특수 교육 현장 요구에 부응치 못하는 교사 양성 과정  
- 교육 현장은 일반 교과 지도 능력과 특수 교육 소양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 교사를 양성하는 추세임.

□ 교육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자격 제도  
- '특수 학교 교사' 자격 명칭 부적합, 특수 학급, 통합 교육, 순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명칭 사용상 혼란

- 정신 지체, 정서 장애 학교는 초·중·고등 자격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 장애 특성상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사 자격 소지자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

□ 특수 교육 교사 부족 현상 심화 예상  
- 특수 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소요 인력의 양적 부족: '97~2001년까지 8천명 정도 소요, 양성 2천명 정도(부족 6천명)

- 다양한 특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자격 소지자 부족, 통합 교육 담당 교사, 치료 교사(대구대 30명 배출), 특수 교사(유) 등

### 5. 교육 여건 조성

□ 내부 설비 및 외곽 시설 확보 미흡  
- 초·중·고 단계 치료기 등 고가 기자재 부족: 54.9% 확보(△45.1%)  
- 시청각 교실 등 외곽 시설은 학교 간 격차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충분치 못함

□ 복지 시설 부족  
- 기숙사: 수용률 13.4%('95), 통학버스: 부족 58대, 노후 42대  
- 기숙사, 통학버스 등 복지 시설의 미흡으로 원거리 중증 장애아 통학 불

편과 취학 유인에 문제

### 6. 행·재정 지원 체제

□ 특수 교육 진흥 재정의 우선 투자 유인 체제 미흡  
특수교육진흥법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우선 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 미비로 우선 투자 사실상 불가

※ '95년도 GNP대 교육 예산 비율 3.8% → 교육 예산 대비 특수 교육 예산(총 2,300억원) 비율 1.7%

□ 교육청의 특수 교육 전담 인력 및 조직 미설치

15개 시·도 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특수 교육 담당 장학관 미설치

□ 특수 교육 관계 법령의 정비 보강의 필요성 대두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7. 부처간 협력 체제 등

□ 장애인 관련 업무의 부처간 분산으로 체계적 지원 곤란

교육부는 교육, 보건복지부는 치료·재활, 노동부는 고용 등 부처간 장애아 업무가 분산, 분장되고 있음.

- 교육부: 교과 교육, 치료 교육, 직업 교육 → 특수교육진흥법

- 보건복지부: 치료, 재활, 보호, 실태 조사 → 장애인복지법

- 노동부: 직업 교육, 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수준

사회 각 부문의 복지 정책이 정상인 위주로 추진, 장애인은 항상 뒷전에서 체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낮은 수준

**결론**

특수 교육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기회 보장, 직업 교육, 교원 양성 체제, 교육 여건 조성, 행·재정 지원 체제, 부처간 협력 체제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의지 표명과 종합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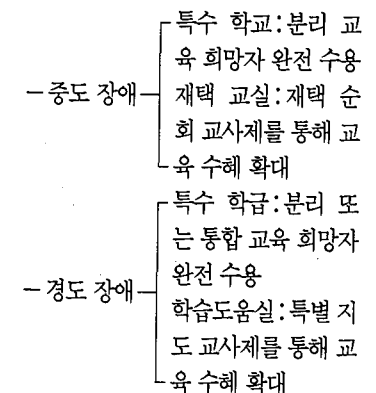
**III. 특수 교육 발전 방안**

**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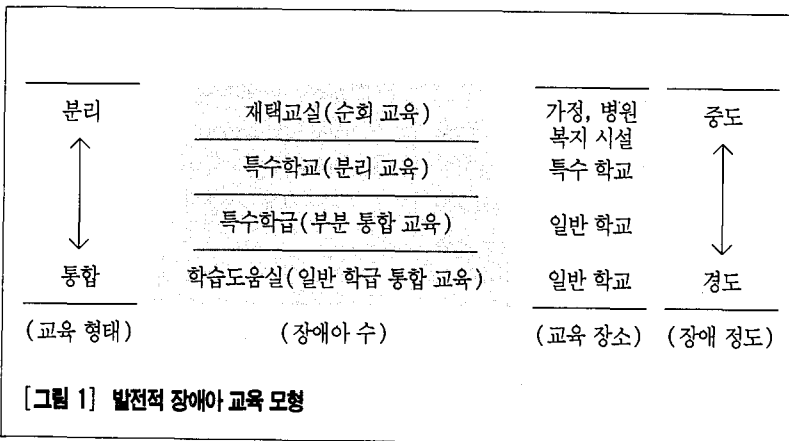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21세기 복지 사회형 장애인 교육 모형 정립

○ 종전의 완전 취학 개념의 정책 방향을 교육 수혜 범위 확대로 전환

○ 2001년까지 모든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100% 교육 수혜를 목표로 추진



○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처한 환경, 학부모·학생이 희망하는 교육 수요 등에 가장 적합한 교육 서비스 제공



**[그림 1] 발전적 장애인 교육 모형**

- 이동이 불편한 중도·중복 장애아 → 재택 순회 교육, 원격 교육 방식
- 분리 교육을 원하는 중도 장애아 → 특수 학교
- 분리 교육을 원하는 경도 장애아 → 특수 학급(부분 통합 교육 방식 병행)
- 일반 학교 교육을 원하는 경도 장애아 → 학습도움실(일반 학급+특별 지도) [그림 1] 참조.

**2. 실천 계획**

**가.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관리체제 구축**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망」 구축 개요
  - 장애인의 각종 검사 결과, 치료 이력, 학습 경험,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누가 수록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망
  - 관리·운영 체제를 표준화하여 장애인을 접촉하는 모든 교육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기록(입력)하도록 의무화
  - 이를 바탕으로 LIFE CYCLE에 적합한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치료-직업-보호 분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

- 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킴.
  - 추진 계획
    - 교육 부문부터 우선 출발하되
    - 치료, 직업, 보호 등 다른 부문과의 연계망 구축을 위해 '97년 중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공동 협력하에 정책 연구 추진
    -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설립·운영 개요
      - 장애인 평생 교육 복지 지원 구축 등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
      - 관련 부처간·유관 기관간 공동 활용 및 협력 접근 체제를 구축
      - 추진 계획
        - '98년도 시행을 목표로 '97년 중에 정책 연구 추진
        - 이용 대상 및 방법
        - 장애인과 장애인 교육, 치료, 직업 훈련, 고용 사업장 등 관련 기관
        - 개인별, 기관별 ID카드 발급 → 개인 정보의 유통 체계 확립
        - 관계 부처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업무(예시) <표 1> 참조.

**<표 1> 관계 부처 협조 업무**

부처	유관기관	협조 업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심리 정보 DB화 - 조기심리 진단 체계 확립, 성아동심리검사 → 발전 - 심리 특성, 교육 내용, 방법, 성취 정보 DB화 - 심리 검사 결과 해석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운영 - 정보망 구축 업무 주관
		○ 진단, 치료 상담 정보 DB화 - 영유아 조기 진단 → 조기 발견 - 의료, 치료 상담 정보 DB화 - 장애인 재활 관련 정보 DB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개인의 직무 능력, 직업 훈련 기관, 직업 시장 정보의 DB화 - 직업 평가 정보 DB화 → 개인의 적성 파악 - 직무 능력 개발, 훈련 결과 DB화

**<표 2> 교육 추정 및 교육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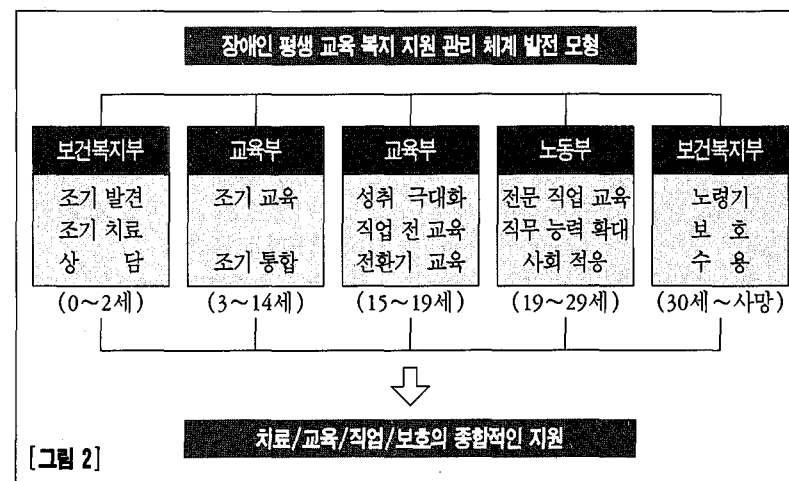
대상 아동수	교육 수혜자	비 수혜자	교육 대책	
			특수학교	재택순회교육
42,000 (100)	21,948 (52.3)	20,052 (47.7)	10,052 (50)	10,000 (50)

**<표 3> 연도별 특수 학급 신설 계획**

구분	'96	'97	'98	'99	2000	2001	계 ('97~2001)
	학교수		7	4	3	3	3
취학아동수 (수혜율)	21,948 (68.6)	25,460 (79.6)	27,500 (85.9)	29,000 (90.6)	30,500 (95.3)	32,000 (100)	
소요예산		732	542	508	561	613	2,956

**<표 4> 연도별 재택 교실 설치 계획**

구분	'97	'98	'99	2000	2001	계 ('97~2001)
	교실수 (교원수)	100 (100)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소요예산	14	40	74	118	171	417



**[그림 2]**

**나. 장애인 교육 수혜 확대**

- 중도 장애아의 교육 수혜 대책
  - 교육 수요 추정 및 교육 대책 <표 2> 참조.
  - 특수 학교 신설
    - 2001년까지 20개교를 신설, 대상 장애아 10,052명 전원 수용
    - 신설교는 지역간 장애 유형별로 균형 배치로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표 3> 참조.
    - 재택 교실 설치 [운영 모형]

- 통학이 곤란한 중도·중복 장애아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정, 복지 시설, 병원 등을 교실화하여 교사가 순회 교육하는 적극적 교육 서비스 모형
  - 인근 학교와 연계시켜 가정, 병원, 복지 시설 등과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치 계획]
  - 2001년까지 1000실 설치, 대상 장애아 10,000명에게 순회 교육
  - 교통 편의 등을 고려, 10명 단위로 1개 교실 편성, 순회 교사 1명 배치 <표 4> 참조.

- 경도 장애아의 교육 수혜 대책
  - 교육 수요 추정 및 교육 대책

**<표 5> 교육 수요 추정 및 교육 대책** (단위: 명%)

대상 아동수 (%)	교육 수혜자 (명)	비 수혜자 (명)	교육 대책 학습도움실 (통합교육)
182,762(100)	26,087(14.3)	156,675(85.7)	156,675

- 학습도움실(Resource Room) 운영 [운영 모형]
  - 현재 일반 학급에서 특수 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학습 장애아, 경도 정신지체, 경도 정서장애

이를 위한 통합 교육 모형

- 특수 학급과 같이 고정식 학급 형태가 아닌 유동식 교실로써 기존의 유휴 교실, 특별 교실, 상담실 등을 학습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함

- 학습도움실에는 특수 교육 교사(Resource Teacher)를 배치하여 운영하며, 일반 교과 교사와 협력 학습(Team Teaching) 병행

[학습도움실 교사 배치 계획]

〈표 6〉 연도별 학습도움실 교사 배치 계획

(단위:명/억원)

구분	'97	'98	'99	2000	2001	계
교사수	312	800	1,200	1,600	1,726	5,458
소요예산	19	139	342	619	931	2,050

※ 8,376명(총소요) - 2,918명(특수 학급 설치 학교) = 5,458명

- 2001년까지 5,458명의 특수 교육 교사를 배치, 대상 장애아 156,675명에게 특수 교육 수혜

- 학교별 배치 기준

〈표 7〉 교육 수요 추정 및 교육 대책

(단위:명/%)

중도장애유 이수(%)	교육수혜자	비수혜자	교육희망자	교육 대책	
				독립유치원	유치부과정
9,103 (100)	1,269 (2.6)	7,834 (97.4)	2,759 (100)	500 (18.2)	2,250 (81.8)

\* 교육 희망자는 비수혜자 7,834명 중 30% 정도로 추정  
\* 교육 수혜자 1,269명 중 장애 유아 어린이집 수용 282명 포함

〈표 8〉 시도별 설립 계획

(단위:명/%)

구분	국립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원수	1	3	2	1	1	1	1	10
수용인원 (학급수)	50 (10)	150 (30)	100 (20)	50 (10)	50 (10)	50 (10)	50 (10)	500 (100)
소요예산	28	89	58	28	28	28	28	287

\* 국립은 일산 한국경진학교에 부설, 유치원 규모:  
원당 10학급, 학급당 5명

• 300명 이하 학교: 지역교육청당 5명을 배치, 순회 지도

• 301~600명 학교: 3개교당 1명을 배치, 순회지도

• 601~1,500명 학교: 교당 1명 배치

• 1,501명 이상 학교: 교당 2명 배치

□ 장애 유아 교육 대책

○ 교육 수요 추정 및 교육 대책

〈표 7〉 참조.

○ 공립 특수 유치원 시범 설립 운영  
- 유치부 과정 특수 교육 기관 시범 설립 운영

- 치료 교사를 확보하여 교육과 치료를 겸한 종합 프로그램 운영

- 설립 계획: '98년 개교 목표로 국립 1, 공립 9개원 총 10개원 우선 설립  
〈표 8〉 참조.

○ 특수 학교 등에 유치부 설치 확대  
- 109개 특수 학교에 연차별로 유치부 과정 설치

- 사립 유치원에 특수 학급 과정 설치 권장, 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

〈표 9〉 연도별 설립 계획 (단위:명/억원)

구분	'97	'98	'99	2000	2001	계
설치학교수	-	20	20	25	25	90
수용인원 (학급수)	-	500 (100)	500 (100)	625 (125)	625 (125)	2,250 (450)
소요예산	-	147	183	255	255	884

\* 설치 규모: 교당 5명 기준

□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

○ 원격 학사제 도입

- 방송대를 활용하여 원격 학사제 운영('98학년도부터 시행)

- 방송대에 입학할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원 입학 허용

- 원격 학습 프로그램 및 도구 개발  
• 보급은 국립특수교육원과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 점자 학습 자료, CD TITLE, VEDIO TAPE, 방송 매체 등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보급

○ 재활 전문대학 설립 확대

- 국립재활전문대학 설치 시범 운영('97예산: 24.7억원)

2000년 개교 예정, 11개 학과 370명 수용

직업 교육 7개 학과, 재활 지원 4개 학과 설치

- 공립 또는 사립으로 설립 확대

• 공·사립으로 설립 신청시 시설비 일부 국고 보조 방안 강구

• 사립은 기존 대학 부설로 설립 적극 권장

○ 장애인 교육 시범 대학 지정 운영

- 재정 대학과 지방 대학 각 1개교를 장애인 교육 시범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 육성, 연차별 확대('97학년도부터 시행)

- 장애인을 위한 기숙사, 도서관 등 편의 시설 확충 비용을 대학 자구 노력 지원 예산 배정시 INCENTIVE 부여

방안 강구

- 대학 평가시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배려 사항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많은 대학이 특례 입학에 참여 하도록 유도

○ 수학 능력 시험 전형시 장애아 최 대한 배려

- '97년 수능 시험부터 시각 장애 학생에게 점자와 음성 평가 도구 제공(선택)

- 지체 부자유 학생은 수능 장소 배려(경사로 설치 학교, 특수 학교 등)

다.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학제 마련

□ 장애아 무상 교육 연한 연장

현행 무상 교육 최대 연한 18년(유치부→전공과)을 2년간 연장하여 20년까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2년간은 생활 적응 훈련 심화 과정으로 운영).

장애 정도, 교육상 필요, 학부모의 형편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교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

□ 12년 통합 운영제 도입

학습 단계의 적응이 무의미한 장애 영역(정서 장애, 정신 지체, 중도 중복 장애 등)의 학생은 초·중등 과정을 통합한 12년제로 운영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로 6-3-3제, 9-3제, 6-6제, 12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연중수시 입학제 운영

입학 시기를 학년초 또는 학기초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입학을 원할 경우 수시 입학 허용

이 경우 입학자의 학년과 교육과정 이수 프로그램 등은 연령, 수학 능력 등을 감안,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 결정

□ 연중수시 방학제 운영

장애 영역별 교육상 필요에 따라 계

절별, 월별 집단 방학제로 운영

또는 개인적 교육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개별 방학제 등 운영

〈표 10〉 현행 학제

학 제	일반 학교와 수업연한, 학기, 입학 시기 동일
교원 배치 기준	일반 학교와 동일(초: 교당 1명, 중·고: 교당 1.6~2.0명)
시설기준	모든 특수 학교가 단일 기준 적용
학급 편성 기준	단일 기준에 의거 편성(교당: 15명)

라. 직업 교육 강화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전담 부서 설치

○ '97년에 신설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부서」 설치

○ 전담 부서의 기능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 정책 연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 자격 제도 등 개발, 장애인 직업 교육과정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장애 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 교육 과정 개발

○ 장애 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의 종류, 자격 제도, 직업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부서」의 연구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과정 운영

○ 실업계 고교의 2+1제를 특수 학교에도 적용

학교-산업체간 이동이 자유로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 재학 중 취업 허용, 취업 졸업제 도입 등

○ 현장 교실 운영

- 학생이 실습 중인 산업 현장 또는 취업 중인 산업체를 교실로 지정

- 담당 교사가 정기적인 순회 지도 실시

□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실  
- 공학적 메카니즘이 동원된 최첨단 훈련 장비 설치

○ 설치 계획

- 국고 재원으로 국립 특수 학교에 시범 설치하여 공동 활용

- '97년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세부 계획 수립 후 '98년에 설치

마. 교원 양성 체제의 개선

□ 특수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설치·운영  
- 특수 교사 양성 대학들이 협력하여 위원회 구성, 개편안 마련

- '97년도에 정책 연구, '98학년도에 교육과정 반영

○ 발전적 특수 교사 양성 교육과정 모형 개발

-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개발·연구 추진

- 대학 교수, 외부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위원회 구성

□ 대학원 중심의 교원 양성 체제로 전환

○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대학원에 특수 교육 전공 설치

- 11개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우선 개설

- 사립대 대학원에도 특수 교육 전공 설치 적극 권장

○ 특수 교사 양성 대학의 대학원에 현직 교사 양성 과정 설치 권장

- 8개 대학 중 5개 대학 설치 예상

○ 특수 교사의 일반 교사 또는 치료 교사 자격 취득 과정 개설

- 교대, 사범대 대학원에 계절제로 특별 양성 과정 개설 권장

- 특수 교사의 복수 자격화를 통해 통합 교육 확대  
 ○ 특수 교원 신규 채용시 대학원 과정 이수자(일반 교사+특수 교사 자격)에게 가산점 부여 등 유인 체제 강구

□ 특수 학교 교원 채용시 초·중등 자격 제한 완화

○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구분 없이 채용

- 특히 정신 지체, 정서 장애 학교 등 중도 장애아 학교에 적용  
 ○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시 초·중등 통합 양성 방안 검토

□ 학습도움실 교사, 치료 교사, 특수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 신·증설

○ 학습도움실 교사  
 - 별도 자격으로 구분하지 않고 특수 교사 양성 과정에 '특별 지도' 과목 포함

-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국립특수교육원)

○ 치료 교사  
 - 7개 국립 양호 교사 양성 대학 등에 치료교육학과 신설

〈표 11〉 특수 교육 담당 교사 수급 전망 (단위:명)

구분	'97	'98	'99	2000	2001	계	
							계('97~2001)
수요	특수교사	603	1,162	1,559	2,009	2,185	7,518
	치료교사	101	92	89	89	89	460
	특수유치원교사	130	140	140	175	175	760
	계	834	1,394	1,788	2,273	2,449	8,738
양성	특수교사	780	1,140	1,140	1,140	1,140	5,340
	치료교사	30	240	240	240	240	990
	특수유치원교사	20	320	320	320	320	1,300
	계	830	1,700	1,700	1,700	1,700	7,630
과부족	△4	△306	△8	△573	△749	△1,108	

※ 특수 교사 부족분은 현직 교사 중 특수 교사 자격 소지자 2,178명을 재교육 활용

- 물리, 언어, 작업, 시기능, 청능, 심리 치료 등 다양한 과목 개설  
 ○ 특수 유치원 교사  
 - 8개 특수 교사 양성 대학 대학원에 특수 유치원 교육 전공 설치<표11>참조.

바. 특수 교육 시설의 선진화

□ 특수 학교의 선진화 모델 개발

○ 선진화 학교 모델 개발 연구: '97년도에 정책 과제로 연구 개발

○ '98년 이후 신설 학교는 선진화 모델에 의거 설립

○ 기존 학교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중·장기 특수 학교 선진화 추진 계획 수립 추진

□ 부족 및 노후 시설·설비 개선

2001년까지 완전 개선→428억 투자  
 - 특별 교실 438실, 통학용 버스 100대, 기자재 102식 등 보충

○ 사립 특수 학교에 환특 예산 특별

〈표 12〉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억원)

구분	'97	'98	'99	2000	2001	계('97~2001)
물량(건)	212	193	151	150	150	856
소요예산	106	96	76	75	75	428

지원 조치  
 - '97~2000년까지 투자 계획에 사립 특수 학교 포함 <표 12> 참조.

사. 행·재정 지원 체제 강화

□ 특수 교육 재정의 안정적 투자 체제 확립

○ 특수 교육 운영비를 연차별로 증액 지원

○ 「적정투자권고제」 도입

- 투자 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적정규모 투자를 권고하는 제도(근거: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제3항)

※ '95:2,147억원→'96:2,303억원(7.3% 증가)

○ 특수 교육 예산 투자 실적 사후 평가 강화

-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평가, 투자 권고시 반영

- 시·도교육청 종합 평가시 평가 기준 및 평점 상향 조정

□ 교육청의 특수 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 시·도교육청에 특수 교육 담당 장학관 설치 확대

- '96:9개 시·도→2001까지 15개 시·도 확대

○ 지역 교육청에 특수 교육 담당 장학관 배치

- '96:44개 시·군→2001까지 시지역 이상 배치(95)

아. 특수 교육 관계 법령 정비

□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특수교육법으로 법률의 성격 재정립 → 특례적 교육법으로 전환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은 '97년 상반기 임시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주요 개정 내용)

• 학교급별, 장애 영역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배치 기준 보완

•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학제 도입에 관한 사항

• 재정 투자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투자 권고제 등)

• 장애인 평생 복지 지원 관리 체제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 장애아 발전적 교육 모형 등 새로운 모형(재택 교실, 학습도움방)의 발전·운영에 관한 사항

• 특수 교사의 양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자원봉사은행」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관계 법령 정비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장애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

- 장애 유아 교육 기관 설립 인가 기준 제정

○ 교원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 등

자. 법정부활력체제 등 사회적 지지망 구축

□ (가칭) 「장애인능력개발촉진법」 제정 검토

○ 장애인에 대한 교육, 치료, 복지, 직업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을 '97년 중에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주요 기능은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관리체제」 구축, 장애인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장애인 이해의 달」 지정·운영

○ 4월을 「장애인 이해의 달」로 지정(4.20일 「장애자의 날」이 있는 달)

〈표 13〉 재정 소요액 추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억원)

사업별	'97	'98	'99	2000	2001	계('97~2001)	비고
○ 특수 학교 신설 • 학교수(교) (학급수)	7 (234)	4 (136)	3 (100)	3 (100)	3 (100)	20 (670)	중도 장애 10,052명 수용
소요예산	732	542	508	561	613	2,956	
○ 재택 교실 설치 • 교실수(실) • 순회 교사수(명)	100 100	150 200	200 200	250 250	300 250	1,000 1,000	중도 장애 10,000명 순회교육
소요예산	14	40	74	118	171	417	
○ 학습도움실 설치 • 교사수(명)	132	800	1,200	1,600	1,726	5,458	경도 장애 156,675명 교육수혜
소요예산	19	139	342	619	931	2,050	
○ 장애 유아 교육 수혜 • 유치원 설립(교) (학급수) • 유치부 과정 설치(교) (학급수)		10 (100) 20 (100)	20 (100)	25 (125)	25 (125)	90 (450)	장애 유아 2,750명 수용
소요예산	-	434	183	255	299	1,171	
○ 교육 여건 개선 • 특별교실 확보(실) • 기자재 확보(식) • 통학용 버스(대) • 노후 시설 신·개축비(식)	88 22 58 44	88 20 42 43	88 20 43	87 20 43	87 20 43	438 102 100 216	
소요예산	106	96	76	75	75	428	
예산 총액	871	1,251	1,183	1,628	2,089	7,022	

○ '97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정 운영하며, 교육 부문부터 출발하여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 유도

- 하루동안 장애인이 되어 보는 사회 운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 학생 자원 봉사 인력 은행」 설립

○ 장애인 학생에 대한 자원 봉사 및 교육 복지 지원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 담당

○ '97년도 중에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은행 개설 및 서비스 시작

○ 설립 방안

- 교육부에 중앙 은행 설치 교육청에 지방 은행 설치 상호 연계망 구축

- 전담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를 배치하여 행정 서비스 차원으로 운영

- 'EDUNET'에 「장애인 자원 봉

사망」을 설치, 하이텔, 천리안 등 공공망과도 네트워크 구축

운영 예시

○ 수요자: 장애인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인력 은행에 자원 봉사 요청(자녀를 돌보는 봉사)

○ 은행: 자원 봉사 은행에서 저축된 자원 봉사 계좌를 검색하여 적합한 공급자(봉사자)를 선정 수요자와 연결 시킴

○ 공급자: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협의하여 자원 봉사의 수요·공급 관계 형성

IV. 재정 소요액 추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표 13〉 참조.



경기 민요의 예술화에 힘쓰신 생전의 안비취 선생.

**오늘을 있게 해 주신 나의 스승**

# 경기 민요의 예술화를 이루신 안비취 선생님

소리의 길이란 험하고 끝이 없는 길이다. 특히, 우리 민요는 부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천하게도, 귀하게도 평가받는다 하시면서 귀인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공연은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손수 무대의 기법도 익히게 했고, 앉으면 소리, 틈만 있으면 소리, 하고 또 하고, 사키시고, 듣고, 목이 터져라 부르게 하셨다.

**이 춘 회**

국악인, 안비취 선생에게 사사했음.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 민요 보유자 후보.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주일이 되는 날이다. 오늘 선생님을 모신 홍국사에서 삼우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나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고 흘러 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날씨는 화창하고, 하늘은 높는데…… 선생님께서 가시던 날은 그렇게 유난히도 추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별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선생님은 그렇게 가셨다.

뇌졸중으로 반신이 부실한 투병 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청결함과 그의 멋진 자태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던 모습, 선생님의 손 끝 하나에 느껴지던 삶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애착, 국악계의 큰별이 되어 경기 민요를 예술화, 무대화시키시려 분주히 애쓰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듯한데 선생님은 영영 다시 못을 길을 가셨고, 그의 체취만이 나를 슬프게 한다.

13세부터 소리가 좋아 소리꾼의 끼를 발하시다가 72세로 별세하시기까지 5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인생. 경기 민요뿐 아니라 고하일규 선생님께서 가곡을 익히시더니, 명고수요, 명 무가였던 고 한성준 선생님께서 무용을 사사받으시며, 다방면에 걸친 예술의 면모를 갖추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리꾼의 길로 접어드신 선생님이셨다.

꿍이꿍이 살아오시면서 펼쳐진 역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당신을 지키시며 경기 민요를 무형 문화재로 지정받게 하신 선생님. 1975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 57호 경기 민요 보유자로 지정되시면서 유산가, 제비가, 소 춘향가… 등등 12잡가를 우리네 안방 소리에서 끌어내어 무대화시키신 그 큰 업적과 공로는 우리 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본이 되고도 남는다. 선생님의 그 특유한 애원성이 깃들여진 소리, 선생님의 그 우아한 자태와 멋들어진 발음과 음색의 묘미는 감히 누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귀한 예술 그 자체였다.

1983년 국악협회 부이사장이 되시면서는 경기 민요를 예술화시키시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뛰어다니셨다. 국악계 큰별과 여장부로 칭함을 받기도 한 선생님. 결국 경기 민요를 안방 소리에서 무대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 한 차원 높이신 선생님의 노고는 후세에 길이 남

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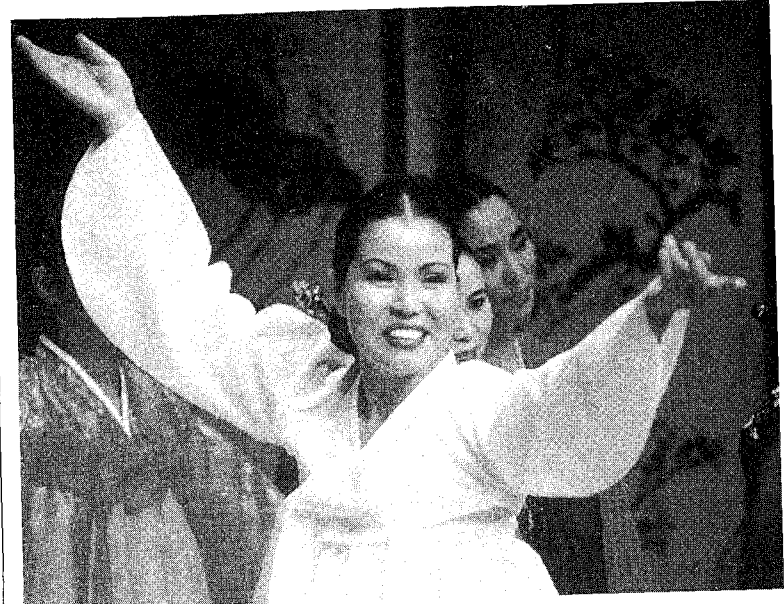
1996년 4월 호암아트홀에서 고회 기념 발표회를 갖던 그날, 제자들과 같이 사랑하는 소리를 발표하시면서 감격스러워 하시던 표정. 당신이 소리꾼의 길로 들어선 것을 기뻐하시며 울먹이시던 선생님. 그것이 바로 잊고 싶을 일 같은데 유명을 달리하시다니 호천통곡(呼天痛哭)할 뿐이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올 때가 생각한다. 당시 이창배, 정득만 선생님 문하에서 공부할 때인데, 선생님께서 나를 제자삼아 주시더니, 첫 전수생으로 지목하셨다. 그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 “춘희야 네가 지정되었다. 좋아해라.” 하며 같이 기뻐해 주시던 선생님이셨다.

나는 선생님의 전수생이 되면서 1989년 준보유자로 지정되기까지 하나하나 바꿔지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걸음걸음이며, 웃음 소리까지도 지적을 해주시며 무대에서의 자세, 눈짓에서 몸 동작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일러 주셨다. 국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던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정성에 감복하여 무대에서의 작은 몸 동작 하나하나도 가르쳐 주신대로 익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더러는 선생님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겁이 나고 무서웠다. 그만큼 선생님의 훈계는 엄격했고, 또한 빈틈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숨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상하시면서도 인자하셨다.

소리의 길이란 험하고 끝이 없는 길이다. 특히, 우리 민요는 부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천하게도, 귀하게도 평가받는다 하시면서 귀인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공연은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손수 무대의 기법도 익히게 했고, 앉으면 소리, 틈만 있으면 소리, 하고 또 하고, 사키시고, 듣고, 목이 터져라 부르게 하셨다.

힘들고 지루하다고 하면 구수한 말씀으로 막간을 넘기시고, 한바탕 웃고 나면 또 하자 하시며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주셨다. 무대에서의 멋, 흥을 일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와야 한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시며, 소리꾼의 자세는 겸손하면서 도도하게, 도도하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셨던 선생님이시다.



안비취 선생 전수생 지정 받은 필자의 공연 모습.

1주일 전만 해도 생전의 선생님을 뵈러 갔던 만, 오늘은 선생님을 뵈러 홍국사에 다녀오는 길임이 믿기지 않는다.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도 내게 이렇듯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아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솟는다.

소리꾼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라셨던 선생님. 나에게 대한 염려, 걱정을 어찌 놓으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었는지.

영결식장에서 선생님과 이별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선생님의 많은 업적과 공적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며 받들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한 쪽 구석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선생님께서 전수해 주신 경기 민요를 계승·발전시켜 정말 이 나라에서 경기 민요가 무대화·예술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영전에 삼가 올린다. 무대를 사랑했고, 예술을 사랑했고, 소리를 사랑했던 선생님. 한 평생 소리꾼의 험하고 끊임없는 길을 사랑했던 선생님의 영전 앞에 목이 터져라 외쳐본다.

선생님은 진정 경기 민요의 어머니요, 국악계의 꽃이요, 대모였다고…….\*

소리꾼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라셨던 선생님. 나에게 대한 염려, 걱정을 어찌 놓으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었는지.

# 지난달 주요업무 추진 실적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주요 업무 계획 수립	○'97 주요 업무 계획 수립 • 국무총리실에 서면 제출:'97. 1. 15까지	(계속)
2. 중앙 교육 심의회 제 39차 총괄 운영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96. 12. 27(금) 11:00 ○장소:소회의실(16층) ○안건:중교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협의 등	(계속)
3. '97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97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대상:소속 기관 및 단체, 국립학교, 시·도 교육청	
4. 예산안 국회 심의	○'97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5. 예산 배정 계획 수립	○'97 예산 배정 계획 수립	(계속)
6. 교육 규제 정비 업무 추진	○『교육규제완화백서』 발간 추진 -자료 정리, 교정 및 인쇄:'96. 12. 2~12. 20 -유관기관 배부:'97. 1월 중 ○제10차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 -일시:'96. 12. 16(월) 10:00 -안건 • '96. 3월 이후 생산 행정명령 심의 • 제안 과제 심의 ○교육규제완화 추진 상황 보고(세계화추진위원회) -일시:'97. 12. 18(수) 15:00 -장소:국무총리 회의실(9층)	
7.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 규정(훈령) 제정	○교육부제안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구성:위원장(차관), 실·국장 등 9명	
8. '96. 4/4분기 심사 평가 실시	○'96. 4/4분기 대통령 선거 공약, 지시 사항 및 주요 업무 심사 평가 -대통령 선거 공약:124건, 지시 사항:44건 -주요 업무:128건	(계속)
9. 국립학교설치명 개정	○국립학교설치명 등 개정 -'97 신학기 대비 실·국별 개정 계획 반영	(계속)
10. 국립 각급학교 정원 조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개정	(계속)

('96. 12월)

11. 법령 제·개정	- '97 정원 감축 계획 등 반영 ○'96 정기국회 통과법안 공포(7건)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개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한국교육방송원법(제정)	
-------------	---	--

## 초·중등교육실

(초등장학관)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시·도 열린교육 담당 전문직 연찬회	○열린교육 담당 전문직 연찬회 -일시:'96. 12. 20(금) -장소:교육행정연수원 -참석대상:시·도 및 연구원의 교육 연구사	
2. 열린교육 추진위원회 구성	○교육부 열린교육 추진위원회 구성 -일시:'96. 12. 20(금) -장소:상황실(16층) -참석대상:교육부 열린교육 추진위원(15명)	
3. '96 국민 교육 유공자 포상식	○일시:'96. 12. 18(목) 10:00 ○장소:교육행정연수원 대강당 ○참석인원:150여명	
4. 학급 편성 및 담임 배정에 관한 시범 운영 계획	○기간:'96. 12. 20~12. 30 ○내용:시·도 교육청 시범 계획 수립, 시범학교 지정 운용	
5. 교원 현장 연구비 지원 계획	○현장연구비 기금 모금 협의 -학술진흥과, 재정원 협의	
6. 초·중·등 영어 홍보 자료 제작·배포	○'97. 3월 초·중·등 영어 교육 실시 홍보 자료 제작·배포 -제작 분량:10,000부 -배포 기관: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7. 장학 자료 제작·배포	○초·중·등 장학 자료 제작 -교육부 지정 연구·실험(시범) 학교 중 우수 운영 결과 -제작 분량:11,000부 -배포 기관: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교	
8. 초·중·등 영어 교육 추진	○시·도별 추진 상황 점검	

실적 점검	- 점검 기관:'96. 11. 28~12. 14 - 점검 기관:각 시·도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 - 점검 내용:교재, 교원, 기자재, 장학 및 홍보 등 추진 상황	
9. 초·중·등 영어 교육 추진 상황 보고	○교육부 및 시·도별 초·중·등 영어 교육 추진 상황 중간 보고:'96. 12. 24	
10. 교육부 지정 연구 실험(시범) 학교 선정	○시·도교육청에 추천 의뢰 -기간:'96. 12. 10~'97. 1. 10	
11. 인성 교육 사례 발표 및 시상식	○인성 교육 우수 사례 연구 발표 대회 및 시상식 -일시:'96. 12. 23(월) 14:00	

(중등장학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교과 교육 연구 활동 전국 단위 보고회 추진 및 보조금 정산	○기간:'96. 12. 1~12. 31 ○내용 -'96 교과 교육 연구 활동 공개 보고회 개최(교육청별) -연구 과제 중 1과제 선정 전국 단위 보고회 개최	
2. '96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지도 결과 분석	○대상:15개 시·도교육청 ○내용 -교육과정 운영 지도 현황 -보충, 자율학습 운영 현황 -학업 성취 수준별 이동식 수업 현황	
3. '96 교육 활동 유공 교원 및 학교(유치원) 표창 업무 추진	○표창 훈격: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유공 교원 714명, 유공 학교 230교 ○표창 일시:'96. 12. 27 ○일시:'96. 12. 26 ○장소:차관실 ○내용: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실적 등	
4. 학교 폭력 추방 대책 본부 회의	○대상 학교:중 2개교, 고 2개교(계 4개교) ○대상 시도:서울(고), 대구(고), 광주(중), 대전(중) ○연구 기간:'97~'98년(2개년) ○일시:'96. 12. 3(화) ○장소: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참석:26명	
5. 『학교 사회 사업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 상담 기능의 확충 연구 학교 확정	○기간:'96. 12. 10~12. 26 ○내용 -학생부 전산 자료 CD 보완 업무 지원 및 비상대책반 운영	
6. 제8회 전국 중·고등 학생 수학·과학 경시 대회 평가회 개최	○기간:'96. 12. 10~12. 26 ○내용 -학생부 전산 자료 CD 보완 업무 지원 -비상대책반 운영	
7. 97 대입 전형용 학생부 전산자료 CD 보완 업무 지원 및 비상대책반 운영	○기간:'96. 12. 10~12. 26 ○내용 -학생부 전산 자료 CD 보완 업무 지원 -비상대책반 운영	

8. '96 「국민생활질서 개혁」 교육 추진 실적 및 자체 연간 평가 보고서 제출	○추진 기관 및 보고처:국무총리 제4조정관 ○보고 일시:'96. 12. 20(금)	
9. 제7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 우수 입상 학생 해외 연수 대상자 발표	○연수 인원:20명(영어 5명, 독어·불어·서반어·중국어·일어 각 3명) ○연수 지역 -구주(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아주(일본, 중국) ○연수 시기:'97. 1. 28~2. 8(11박 12일) <예정>	
10. 고3 특별 면학 프로그램 중간 보고	○대상:15개 시·도교육청 ○내용 -교육청 단위의 시범 사업 -시범 학교별 행사 운영 내용 -위문 및 봉사 활동 -시·도교육청 보도 자료 모음	

(교원정책심의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소규모 학교 교감 미 배치 근거 신설	○교육법 개정 -국회 교육위에서 부결	(계속)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추진	○시·도교육청 및 학교 의견 조사 ○개정 시안 마련	(계속)
3.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추진	○관계 법령 개정 추진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4. 교육부-한국교총 정기 교섭·협의	○소위원회 개최 -한국교총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협의 합의서 작성 ○교섭·협의 회의 합의서 서명	
5. 교장·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학교 지정 ○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 학교 추가 지정	
6. '97년도 교육 공무원 정기 인사 처리 요령 통보	○'97. 3. 1자 및 9.1자 교장 승진, 전직 등 정기 인사 임용 업무 처리 요령 통보	
7. 교장(감) 자격 연수 업무	○'97 교장(감) 자격 연수 인원 배정 -시·도교육청, 직속 기관, 부속학교	
8. 교직 과정 설치 승인 및 표시 과목 결정 승인	○교직과정 설치 승인 및 표시 과목 결정 승인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	
9. 초·중·등 교사 공개 전형 실시	○'97학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실시 -시험일:초등 '96. 12. 23(월), 중	

10. 교대 교육 대학원 입시	동 '96. 12. 14(토) - 모집 인원 • 초등: 3,631명(응시 6,917명, 1.9: 1) • 중등: 2,285명(응시 18,842명, 8.2: 1) ○ 교대 교육대학원 입시 - 전형일: '96. 11. 29 ~ '97. 1. 24 - 모집 인원: 695명	(계속)
11. '97 원어인 영어 교사 초빙·활용	○ '97 원어인 영어 교사 홍보·모집을 위한 인력 bank 설치비 지원 - 설치 장소: 토론도 영사, LA 총영사, 뉴욕 총영사 - 지원 금액: 각 \$36,000중 \$8,000 지원 - 지원일: '96. 12. 14(토) - 설치일: '96. 12. 30(월)	(계속)
12. '97. 2월 퇴직 교원 포상 업무	○ 추천서 접수: 시·도교육청, 대학 ○ 추천서 검토	(계속)
13.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운영 검토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운영 개선 방안 마련	
14. 학교 유아방 담당자 회의	○ 일시: '96. 12. 13(금) 10:00 ○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상: 시·도교육청 유아방 담당자	
15. 산하단체 '97 수지에 산 승인	○ 대상: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교육과정심의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교육과정 개정	○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 제7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기간: '96. 11. 20 ~ 12. 10 • 각계 의견 종합 분석: '96. 12. 10 ~ 12. 15 ○ 제7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개발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개발 위탁 과제: 36과제 - 연구 개발 위탁 기관 선정 작업: 한국교육개발원 외 13기관 - 연구 개발 책임자 협의회 개최: '97. 1월 중순 ○ 교육과정 심의회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96. 12. 12 - 학교급별 소위원회 개최: '96. 12. 2 ~ 12. 10 - 학교급별 소위원회: 9개 위원회	

2. 실험 연구 학교 운영	○ 총론 시안 수정·보완 작업 - 기간: '96. 12. 18 ~ 12. 21(토) - 참석자: 현장 교원, 학자 및 전문가 등 29명 ○ 실험용 교과용 도서 분석지 및 수정·보완 자료 수합 및 배포 ○ 국가 공통의 절대 평가 기준 일반 모형 개발 -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 출장	
3. 교육 평가 업무	○ 교육 평가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 설문지 작성·발송 및 회수: '96. 12. 2 ~ 12. 31 - 대상: 시·도별 교육청, 연구원, 초·중·고교의 교원, 전문직(약 400명) - 설문지 처리 협의 • 자문 인사: 임형(국립교육평가원), 김경석(서울교대) • 기간: '96. 12. 16 ~ 12. 27(8일간) ○ '97년도 1종 도서 편찬 계획 수립 - 대상: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기 발행한 도서를 수정·보완할 도서 40책 내외 ○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전사본 배포·열람 - 전사본 제작: '96. 12. 1 ~ 12. 10 - 열람: '96. 12. 11 ~ '97. 1. 24 ○ '97학년도 1학기용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 가격 사정 - 기간: '96. 10. 23 ~ 12. 4(43일)	
4. 교과용 도서 편찬		
5.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전사본 배포		
6. 교과용 도서 가격 사정		

(유아교육담당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96 개발 유아 교육 자료 제작·보급	○ 자료명: 유아 기본 생활 습관 교육 활동 자료의 3종 ○ 보급 대상: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	
2. '96 유아 교육 유공 교원·유공 유치원 표창	○ 목적: 유아 교육 유공 교원 및 유공 유치원 표창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 및 교육력 제고	

3. '97 유치원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표창 대상: 교원 60명, 유치원 40개원 ○ 표창 준격: 교육부장관 표창 ○ 표창 및 방법: '96. 12. 27, 시·도교육감 전수 ○ 시기: '96. 12. 1 ~ 12. 31	
------------------------	--	--

(특수교육담당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전공과 설치 운영 특수학교 교장 협의회 개최	○ 일시: '96. 12. 3(화) 10:00 ○ 장소: 국립특수교육원 ○ 내용: 직업 교육의 효율화 추진	
2. 장애인 교육 복지 증진 장기 대책 협의회 개최	○ 일시: '96. 12. 10(화) 10:00 ○ 장소: 국립특수교육원 ○ 참석 대상: 시·도 특수교육담당장학관(사), 의무교육제장	
3. 전공과 설치 운영 특수학교 협의회 개최	○ 기간: '96. 12. 4 ~ 12. 14 ○ 대상: 8개 특수학교 ○ 방법: 방문 협의 ○ 내용: 전공과 운영상의 문제점 협의	
4.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 특별 전형 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기간: '96. 12. 4 ~ 12. 14 - 대상: 시·도교육청, 해당 대학	

고등교육실

(대학교육정책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대학 설립 인가	○ '97 개교 예정 대학 22개교 설립인가 확정 발표 - 준칙 적용 17개교, 종전 규정 5개교 - 준칙 적용 대학(17개대) ○ 대학원 규정안(대통령령) 제정 추진 - 대학원의 유형 검토(일반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학위(학술 학위 및 전문 학위)의 중별 등	
2. 대학원 규정(대통령령) 제정 추진		
3. 심포지움 개최	○ 대학 교육 개혁 추진 심포지움 개최 - 일시: '96. 12. 3 ~ 12. 4(2일간) - 참석 대상: 대학총(학)장, 국회 교육위원 등 250명 - 행사 내용: 교육 개혁 관련 주제 발표 및 토의	
4. 교육법 개정 추진	○ 교육법 개정 원료(국회 의결: '96. 12. 11) - 시간제학생등록제 도입	

5.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사립 학교법 개정 원료(국회 의결: '96. 12. 11)	
6. 고등 교육 부문 대외 개방	○ 고등 교육 부문 대외 개방 관련 교육법시행령개정 추진 - '97학년도부터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허용	
7. 사립대학 실험·실습 시설 확충 용자금 이차보전	○ '96 예산액: 103,521천 원 ○ 지원 대상: 가톨릭대 등 24교(전문대 1교 포함) ○ 지원 내용: 정부 보유 외환 용자금 발생자의 1/2 상당액 국고 지원 ○ 지원 신청 및 지원액: 111,433천 원(부족액 7,912천 원은 전용)	
8.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개정	○ 개정 이유: 대학 등록금 반환 방법 개선 -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구체화 등 ○ 추진 내용: 개정안 확정 및 법제처 심사 의뢰	
9.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목적 - 지방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지방 대학 육성	
10. 국제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지원	○ '96 예산 교부 - 고려대 등 9교 200억원	
11.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 교육공무원법 개정 원료 - '96. 12. 11 국회 본회의 의결 ○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추진 - 입법 예고('96. 12. 3 ~ 12. 14)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 부처 의견 조정('96. 12. 14 ~ 12. 21) ○ 교육공무원임용령 - 법제처 심사('96. 12. 22 ~ 12. 27)	
12. '97 대학 입학 전형	○ '97학년도 정시 모집 - 모집 정원: 269,188명(신설 대학 17교 포함)	
13. 국립 교육 기관 시설 담당자 회의	○ 일시: '96. 12. 20(금) 14:00 ○ 장소: 학술원 ○ 참석자: 국립교육기관 시설담당자	
14. 제11차 IBRD 교육 차관 자금 유보액 배정 계획 수립	○ 목적: 제11차 IBRD 교육차관자금 중 유보액 배정 ○ 사업 분야: 과학기술교육분야 교육 및 연구용 기자재 확충 ○ 금회 배정액: 17,255천불 ○ 배정 대상교: 국·공·사립 대학교	



(산업교육정책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기술대학 설립·운영 준칙(안) 제정	○ 기술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초안 준비 - 교육법 개정과 연계 추진 • 교육법 개정안 국회 심의·의결	
2. 신직업 교육 체계 구축 관련 법(안) 추진	○ 국회 교육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의결 -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 - 자격 기본법 -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법	
3. '97 개교 예정 전문대학 설립 인가(본인가)	○ '97 개교 예정 전문대학 설립 인가(본인가) - 기간: '96. 12. 21 - 대상: 4개교	
4. '97학년도 사학 기관 재정 운영 유의 사항 작성·통보	○ '97학년도 사학기관 재정 운영 유의 사항 작성·통보 - 일자: '96. 12. 21 - 대상: 147개교(사립 및 각종 학교)	
5. '97학년도 신설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집계	○ '97학년도 신설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집계 - 대상: '97 신설 전문대학	
6.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 교육 설치 승인	○ '97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 교육 신청 사항 검토 - 검토 내용: 설치학과, 학생수, 교원 및 교사 확보, 설치 장소 등	
7. 계열별 모집, 전공 코스제 운영 중간 보고회 개최	○ 전문대학 계열별 모집, 전공 코스제 운영 중간 보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96. 12. 18: 대전전문대학 • '96. 12. 20: 영진전문대학	

(학생복지정책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학생회 및 동아리 실태 조사	○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내용 및 동아리 운영 실태 조사	
2. 학생 지도 대책 추진 실태 조사	○ 전국 대학 학생 지도 대책 추진 실태 조사 - 대상: 152개 전문대학 - 내용: 각 대학별 학생 지도 대책 수립 및 추진 내용 분석	
3. 대학생 학·예술 행사 및 봉사 활동 지원	○ 건전한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생 학·예술 대회 개최 - 대학생 학·예술 행사 개최 - 지원액 • 전국 대학 미전: 43,000천원 • 학술 연구 발표 대회: 54,000천원	

4. 전국 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세미나 개최	○ 의료 및 기술 봉사 활동 지원 - 동계 방학 중 봉사 활동을 실시할 대학을 신청받아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 - 소요 예산: 115,000천원 ○ '96 전국 대학 신문 주간교수 동계 세미나 개최 - 일시: '96. 12. 5~12. 6(1박 2일) - 주제: 정보화 시대의 대학 신문	
5. 전국 대학 학생과장협의회 개최	○ 제 12차 전국 대학 학생과장 협의회 개최 - 일시: '96. 12. 3~12. 5(2박 3일) - 내용: '97학년도 학생 지도 대책 협의	
6. 전국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장협의회 세미나 개최	○ '96 동계 전국 대학 학생 생활 연구소장 협의회 개최 - 일시: '96. 12. 13~12. 14 - 주제: '97 학생 운동의 전망과 지도 방안	
7. 전국 대학 학생처장협의회 세미나 개최	○ '96 동계 전국 대학 학생처장 협의회 개최 - 일시: '96. 12. 18~12. 20 - 주제: 21세기 새로운 대학 문화의 모색	
8. 대학생 해외 연수 실시	○ '96 학·예술 대회 우수 입상 대학생 해외 연수 실시 - 일시: '96. 12. 25~'97. 1. 5(11박 12일) - 연수 지역: 구주(독일, 프랑스, 이태리, 헝가리, 오스트리아) - 대상: '96 학·예술 대회 우수 입상 대학생 - 인원: 33명(임원 포함)	

교육정책기획국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특수 교육 발전 방안 보도	○ 특수 교육 발전 방안 주요 내용 - 장애인 평생 교육 복지 지원망 구축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설립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학제 마련 -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직원 봉사 인력 은행 설립 등	
2.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주요 내용	○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주요 내용 - 중퇴생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학교 설립	

3. 교육 개혁 중간 종합 평가 실시	- 대중적 문화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설립 - 다양하고 신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 특례 전·입학 제도 도입 등 ○ 교육부: 교개위 합동으로 교육 개혁 추진 상황 평가 - 기간: '96. 12~'97. 2 ○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연장 ○ 교육개혁추진기획단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연장 기간: '96. 12. 31~'98. 2. 24 ○ 목적 - 방과 후 교육 활동 현황 파악 -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 ○ 조사 대상: 전국 초·중·고의 20% (표본 조사) ○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정리·점검 ○ 부내 및 대학, 관련 기관에 배포 ○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 - 지원액: 20억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4.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규정 개정	○ 교육개혁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연장 기간: '96. 12. 31~'98. 2. 24 ○ 목적 - 방과 후 교육 활동 현황 파악 -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 ○ 조사 대상: 전국 초·중·고의 20% (표본 조사) ○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정리·점검 ○ 부내 및 대학, 관련 기관에 배포 ○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 - 지원액: 20억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5. 방과 후 교육 활동 파악	○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정리·점검 ○ 부내 및 대학, 관련 기관에 배포 ○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 - 지원액: 20억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6.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정리·점검	○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정리·점검 ○ 부내 및 대학, 관련 기관에 배포 ○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 - 지원액: 20억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7. 학제간 연구 지원	○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 - 지원액: 20억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8. '96 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 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 대상: 국내 발행 우수 국제 학술지(12종) - 지원액: 392백만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 '96년도 간접 연구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96년 학술 연구비 수혜 대상 전 대학 - 지원액: 82억원 ○ 외국 석학과 공동 연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 과제: 47개 과제 - 지원액: 25억원 ○ 대한민국학술원 및 예술원 의회 원수당 지급 규정 개정 - 추진 내용: 수당 규정 개정('96. 12. 24 국무 회의 심의) - 개정 내용: 회원 수당 6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 학술진흥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24 - 참석: 장관, 위원 35명 등	
9. '96 간접 연구 경비 지원	○ 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 대상: 국내 발행 우수 국제 학술지(12종) - 지원액: 392백만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 '96년도 간접 연구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96년 학술 연구비 수혜 대상 전 대학 - 지원액: 82억원 ○ 외국 석학과 공동 연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 과제: 47개 과제 - 지원액: 25억원 ○ 대한민국학술원 및 예술원 의회 원수당 지급 규정 개정 - 추진 내용: 수당 규정 개정('96. 12. 24 국무 회의 심의) - 개정 내용: 회원 수당 6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 학술진흥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24 - 참석: 장관, 위원 35명 등	
10. 외국 석학과 공동 연구 지원	○ 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 대상: 국내 발행 우수 국제 학술지(12종) - 지원액: 392백만원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 '96년도 간접 연구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96년 학술 연구비 수혜 대상 전 대학 - 지원액: 82억원 ○ 외국 석학과 공동 연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 과제: 47개 과제 - 지원액: 25억원 ○ 대한민국학술원 및 예술원 의회 원수당 지급 규정 개정 - 추진 내용: 수당 규정 개정('96. 12. 24 국무 회의 심의) - 개정 내용: 회원 수당 6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 학술진흥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24 - 참석: 장관, 위원 35명 등	
11. 학술원 회원 예우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학술진흥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24 - 참석: 장관, 위원 35명 등	
12. 학술진흥위원회 개최	○ 학술진흥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24 - 참석: 장관, 위원 35명 등	

13. 한민족발전위원회 설치	- 안건: '97년 학술 연구비 지원 계획 심의 ○ 한민족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 추진 내용: 규정 제정 - 성격: 국무총리 자문 기구 - 기능: 역사의 바른 인식 정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수: 30명 내외 - 존속 기간: '98. 12. 31까지 ○ 교육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 - 출연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출연금: 180백만원 - 사업 내용: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통계 DB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통계 현황 조사 - 조사 항목: 각급 학교, 유관 단체의 통계 업무 조직 인력, 자료 발간 실적 및 교육 수요 조사 - 활용: 각급 기관 교육 통계 자료 목록집 발간 ○ OECD 제8차 기술 그룹 회의 참석 - 일시: '96. 12. 11~12. 14 - 장소: 프랑스 파리 - 참석자: 교육 통계 국내 조정관 천세영 - 내용: '96 INES 사업 평가 및 향후 사업 계획 협의 ○ EBS 교육 개혁 홍보 프로그램 방영 - 일시: 매주 토요일 19:30~20:10 ○ 교육 개혁 DM망 구축 - 목적: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알리고 적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 - 대상: 590명(기관, 단체) - 활용 계획 • 교육 개혁 관련 모니터링제 실시 • 교육 저널 편집·제작 책임자 간담회 • 시민 단체 교육 개혁 우수 학교 탐방 지원 등 ○ 교육 개혁 모니터링제 운영 - 모니터 요원 위촉: 초·중·고 교사 105명(시·도 교육청 추천) - 실적: 교육 개혁 관련 설문 조사(27개 문항) ○ 현장 방문 연수회 결과 및 교육 개	
14. 교육 통계 업무	- 안건: '97년 학술 연구비 지원 계획 심의 ○ 한민족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 추진 내용: 규정 제정 - 성격: 국무총리 자문 기구 - 기능: 역사의 바른 인식 정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수: 30명 내외 - 존속 기간: '98. 12. 31까지 ○ 교육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 - 출연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출연금: 180백만원 - 사업 내용: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통계 DB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통계 현황 조사 - 조사 항목: 각급 학교, 유관 단체의 통계 업무 조직 인력, 자료 발간 실적 및 교육 수요 조사 - 활용: 각급 기관 교육 통계 자료 목록집 발간 ○ OECD 제8차 기술 그룹 회의 참석 - 일시: '96. 12. 11~12. 14 - 장소: 프랑스 파리 - 참석자: 교육 통계 국내 조정관 천세영 - 내용: '96 INES 사업 평가 및 향후 사업 계획 협의 ○ EBS 교육 개혁 홍보 프로그램 방영 - 일시: 매주 토요일 19:30~20:10 ○ 교육 개혁 DM망 구축 - 목적: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알리고 적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 - 대상: 590명(기관, 단체) - 활용 계획 • 교육 개혁 관련 모니터링제 실시 • 교육 저널 편집·제작 책임자 간담회 • 시민 단체 교육 개혁 우수 학교 탐방 지원 등 ○ 교육 개혁 모니터링제 운영 - 모니터 요원 위촉: 초·중·고 교사 105명(시·도 교육청 추천) - 실적: 교육 개혁 관련 설문 조사(27개 문항) ○ 현장 방문 연수회 결과 및 교육 개	
15. 교육 개혁 홍보 사업 추진	- 안건: '97년 학술 연구비 지원 계획 심의 ○ 한민족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 추진 내용: 규정 제정 - 성격: 국무총리 자문 기구 - 기능: 역사의 바른 인식 정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수: 30명 내외 - 존속 기간: '98. 12. 31까지 ○ 교육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 - 출연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출연금: 180백만원 - 사업 내용: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통계 DB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통계 현황 조사 - 조사 항목: 각급 학교, 유관 단체의 통계 업무 조직 인력, 자료 발간 실적 및 교육 수요 조사 - 활용: 각급 기관 교육 통계 자료 목록집 발간 ○ OECD 제8차 기술 그룹 회의 참석 - 일시: '96. 12. 11~12. 14 - 장소: 프랑스 파리 - 참석자: 교육 통계 국내 조정관 천세영 - 내용: '96 INES 사업 평가 및 향후 사업 계획 협의 ○ EBS 교육 개혁 홍보 프로그램 방영 - 일시: 매주 토요일 19:30~20:10 ○ 교육 개혁 DM망 구축 - 목적: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알리고 적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 - 대상: 590명(기관, 단체) - 활용 계획 • 교육 개혁 관련 모니터링제 실시 • 교육 저널 편집·제작 책임자 간담회 • 시민 단체 교육 개혁 우수 학교 탐방 지원 등 ○ 교육 개혁 모니터링제 운영 - 모니터 요원 위촉: 초·중·고 교사 105명(시·도 교육청 추천) - 실적: 교육 개혁 관련 설문 조사(27개 문항) ○ 현장 방문 연수회 결과 및 교육 개	

<p>혁 홍보 실태 보고</p> <p>-내용: '96. 11월중 실시한 현장 방문 연수 결과 및 교육 개혁 홍보 실태</p> <p>-조치: 관련 부서 통지 및 일선 학교 회신</p> <p>○ 교육 개혁 박람회 종합 보고서 발간</p> <p>-발간 부수: 1,500부</p> <p>-배부처: 부내, 각급 학교, 교육 관련 유관 기관</p> <p>○ 교육 저널 편성·제작 책임자 초청 간담회</p> <p>-일시 및 장소: '96. 12. 18. 12:00, 코리아나호텔</p> <p>-참석: 한국교육신문사 등 17개사</p> <p>-내용: 교육 저널의 교육 개혁 동참 및 홍보 활동 협조</p> <p>○ 케이블 TV 스파트 광고물 제작</p> <p>-내용: 교육 개혁의 필요성 및 미래의 비전, 국민적 동참 유도</p> <p>-제작 편수: 2편(20초 1편, 30초 1편)</p> <p>-활용 계획: CATV 공익광고로 '97년 수시 방영</p>	
---	--

**지방교육행정국**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시·도 교육청 종합 평가	○ 시·도 종합 평가 후속 조치 -홍보: 교육월보 12월호 특집 「교육 청별 우수 사례 소개」 ○ '97 시·도 교육청 평가 계획 수립 추진	
2. 학교 급식법 개정	○ 국회 본회의 의결: '96. 12. 11(수)	
3.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회 제출: '96. 12. 5(목) ○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96. 12. 12 ○ 법안심사소위원회: '96. 12. 13 -차기 임시 국회에서 심의키로 결정	
4.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 규정 신설	○ 내용: 교육법 제85조의 2 신설 ○ 법률안 공포: '96. 12월말	
5. '97학년도 고입 선발 관련 시·도 교육청 관계 자 회의	○ 일시: '96. 12. 19(목) ○ 장소: 경기도교육청	
6. 중교심 지방 교육 지원 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2(월) ○ 참석: 분과위원 및 연구위원	
7. 중교심 과학 기술 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96. 12. 4(수) ○ 참석: 분과위원 및 연구위원	
8. 탈규제 학교 설치 운	○ 탈규제 학교 설치·운영 계획 수립	

<p>영</p> <p>9. 교단 선진화 사업 확대 추진</p> <p>10. 시·도 물품 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p> <p>11. 시·도 방재 세부 집행 계획 승인</p> <p>12. 교육 환경 개선 사업</p> <p>13. 한국 우진 특수학교 (가칭) 건축 설계 경기 작품 마감, 심사위원회 구성 및 당선작 결정</p> <p>14. '96 하반기 안전 관리 교육부 지도 점검</p> <p>15. 일산 국립 특수학교 신축 공사</p> <p>16. '97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운영 지원 계획 수립·시행</p> <p>17. 과학 교육 기금 여유 자금 예치</p> <p>18. 시·도 교육청 과학 교육 담당 장학사 세미나</p> <p>19. '97 직업 교육 확충 사업비 국고 보조 수요 조사(서면)</p>	<p>추진</p> <p>- 기존 자료 조사 및 분석: '96. 12월 중순</p> <p>- 관계 법령 검토: '96. 12월말</p> <p>○ 개요: 전국 초·중·고교 일반 학급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조성</p> <p>○ 기간: '97~'99년</p> <p>○ 주요 기자재: 586PC, TV, VCR 등</p> <p>○ 추진 내용: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태 조사</p> <p>○ 대상 업무</p> <p>- 물품 수급 관리 계획</p> <p>- 정기 재물 조사</p> <p>-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p> <p>○ 추진 일정</p> <p>- '96. 11~12월: 전산 프로그램 개발 (충무처)</p> <p>- '96. 12월말: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 담당자 교육</p> <p>- '97. 3월: 전산 자료 집계</p> <p>○ 대상: 15개 시·도 교육청</p> <p>○ 내용: 시·도별로 수립한 방재 세부 집행 계획 검토·승인</p> <p>○ '96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실적 보고</p> <p>○ 학교 시설 장기 발전 계획서 작성</p> <p>○ 심사위원회 구성</p> <p>- 특수교육전문가, 건축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 5명</p> <p>○ 당선작: 이방건축종합건축사</p> <p>○ 일시: '96. 11. 25~12.7</p> <p>○ 대상: 강원, 부산, 경북, 대구</p> <p>○ 준공: 신축공사 1차분 준공</p> <p>○ 일시: '96. 12. 27(금)</p> <p>○ 일시: '96. 12. 17(화)</p> <p>○ 시행: 시·도 교육청</p> <p>○ 직업 과정 운영 방향</p> <p>- 자체 직업 과정 운영의 내실화</p> <p>- 공공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위탁 직업 교육이 실시되도록 유도 등</p> <p>○ 예치일: '96. 12. 14(토)</p> <p>○ 일시: '96. 12. 13~12.14(2일간)</p> <p>○ 장소: 신안비치호텔(전남 목포)</p> <p>○ 주관: 한국과학문화재단</p> <p>○ 대상 기관: 시·도 교육청</p> <p>○ 대상 사업</p> <p>- 공업계 고교 수용 능력 확충</p>	
--	---	--

<p>20. 어린이를 위한 제반 시책 추진 회의</p> <p>21. '96. 12월말 지방 공무원 퇴직자 포상</p> <p>22. '96 산업체 근로 청소년 교육 유공자 및 사립학교 교육 유공자 표창</p> <p>23. 학교 급식 운영 표창</p> <p>24. 학교 체육 활동 우수 학교 및 유공자 표창</p> <p>25. '96 전국 교원 발명 연구 대회 시상식</p>	<p>-실업계 고교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p> <p>-공고생 장학금 지급</p> <p>-실업계 고교 시설·설비 현대화 등</p> <p>○ 조사 기간: '96. 12. 20~'97. 1. 31</p> <p>○ 일시: '96. 12. 16(월)</p> <p>○ 장소: 국무총리 대회의실</p> <p>○ 참석 대상: 지방교육행정국장, 초·중·고교장, 중등장학관, 관련부처 관계관</p> <p>○ 안건: 어린이 보호 대책에 대한 금년도 부처별 추진 실적 평가 및 향후 추진 대책 협의</p> <p>○ 포상 인원: 503명(훈장 69, 포장 48, 대통령 95, 국무총리 112, 장관 179)</p> <p>○ 포상 훈격: 교육부장관 표창</p> <p>○ 수여 방법: 시·도교육청별 전수</p> <p>○ 포상 훈격: 교육부장관 표창</p> <p>○ 포상 인원: 156명</p> <p>○ 일시: '96. 12. 27(금)</p> <p>○ 표창 대상: 우수교 12교 및 유공자 78명</p> <p>○ 표창 일시: '96. 12. 20(금)</p> <p>○ 표창 대상: 학교 체육 활동 우수교 및 유공 공무원, 지역 사회 인사</p> <p>○ 표창 훈격 및 내용</p> <p>- 우수교 14교 및 유공 직원 98명(교육부장관 표창)</p> <p>- 유공 지역 사회 인사 25명(교육부장관 감사패)</p> <p>○ 일시: '96. 12. 20(금)</p> <p>○ 내용: 학생 발명 촉진 방안 등에 관한 연구 논문</p> <p>○ 대상: 초·중등 학교 교원 27명</p> <p>○ 주관: 한국학교발명협회</p>	
---	--	--

**평생교육국**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 교육행정연수원 확대·개편 <p>○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관련 실·국 협의</p> <p>○ 직제, 예산, 법령 등 검토</p>	(계속)
2. 사회교육법 개정 추진	○ 사회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평생 학습법'으로 전면 개정	(계속)
3. 평생 교육 진흥 종합 계획 수립 시행	○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속)
4. 평생 교육 발전 연구	○ 일시: '96. 12. 13~12. 30	

<p>및 연수</p> <p>5. 지역 중심 사회 교육 관 지정·운영</p> <p>6. 평생 교육 진흥 관련 국의 연수</p> <p>7. 여성 및 취약 계층 직업 교육 기회 확대</p> <p>8.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 검토</p> <p>9. 한국장학회법시행령 개정 추진</p> <p>10. 사회교육전문용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p> <p>11. 공공도서관과 방송대 시·군 학습관의 연계 운영 시범 도서관 확정</p> <p>12. 평생 교육 유공자 표창</p> <p>13. 학력 인정 사회 교육 시설 학교 학생 수범 사례 발표 대회</p>	<p>○ 시간: 매주 수요일 16:30~19:00</p> <p>○ 참석 대상: 평생교육국 전 직원</p> <p>○ 지역 중심 사회 교육관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p> <p>○ 지역 중심 사회 교육관 지정·운영 기본 계획 수립 검토</p> <p>○ 기간: '96. 12. 2~12. 6</p> <p>○ 연수국: 일본</p> <p>○ 연수 인원: 2명</p> <p>○ 여성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 교육 기회 확대 방안 연구</p> <p>- 연구 책임자: 홍기영 교수(중앙대)</p> <p>- 연구 기간: '96. 7~12</p> <p>○ 법률 개정 검토</p> <p>- 전문 학원 지정·육성 방안 연구</p> <p>-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각종 원격 교육 및 채택 교육 실시 여부</p> <p>-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회 교육법에 통합 여부</p> <p>○ 시행령 개정 검토</p> <p>- 초등 학생의 영어 과목 학원 수강 허용 여부</p> <p>○ 개정(안) 주요 내용</p> <p>- 지급 요건 중 성적 요건 완화</p> <p>- 수혜 대상 범위 확대(학력 인정 사회 교육 시설 학교) 등</p> <p>○ 제도 개선 내용</p> <p>- 현황 전문 요원 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p> <p>- 제도 개선 방안 마련</p> <p>○ 추진 일정</p> <p>- 전문 요원 자격증 발급 기관 위임(교육부장관 → 학교장)을 위한 훈령 개정: '97. 1~2월</p> <p>○ 시범 운영 도서관 선정(1도 1도서관)</p> <p>- 시범 대상 지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의 교육감이 희망 도서관 선정 → 방송대 통보, 추진</p> <p>○ 대상자: 방통고 운영 및 사회 교육 진흥 유공자</p> <p>○ 인원: 50명(방통고 42명, 사회 교육 8명)</p> <p>○ 대회명: 제5회 전국 푸른세대 수범 사례 발표</p> <p>○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p>	<p>(계속)</p> <p>(계속)</p> <p>(계속)</p> <p>(계속)</p> <p>(계속)</p> <p>(계속)</p> <p>(계속)</p> <p>(계속)</p>
---	---	---

14. 학점은행제 도입 추진	○상장 수여:5명(금상 1, 은상 2, 동상 2) ○학점인정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국회 본회의('96. 12. 17) 심의·의결 ○학점인정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작성	(계속)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립 추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시행령 제정 추진 - 국회 교육위('96. 12. 6), 법사위('96. 12. 10) 심의·의결	(계속)

교육정보관리국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 CD 제작 및 암호화 처리	(계속)
2. 한국교육방송원법 제정	○법안 국회 심의·의결	
3. 교육 정보화 추진	○교육 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 개최 - 교육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서면 심의 ○교육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보완 및 시·도 교육청 정보화 시행 계획 분석·종합 ○국립 전문대학 LAN 구축 ○교육 정보화 현황 조사 - 조사 항목:50개 ○부내 교육 정보화 추진 - LAN 운용 테스트	(계속)
4. EDUNET 구축·운영	○'97 사업 계획 수립 ○문자 서비스 확장 - 동호회, 페쇄이용자 모임(CUG) 개설 - 진학 상담, 청소년 상담, 유학 상담 서비스 ○교수·학습 정보 개발 ○EDUNET 시범 학교 운영·지원(15개교)	(계속)
5. 첨단 학술 정보 센터 설립 추진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 추진 - 세부 사업 계획 확정 - '96년도 출연금으로 전용·교부(37억원)	(계속)
6. 초·중등학교 도서관 표준 모형 개발	○초·중등학교 도서관 현황 분석 ○표준 모형 연구 개발을 위한 모형 조사 및 현장 파악	(계속)
7. 학교 업무 종합 정보	○초·중등학교 업무 종합 정보화 시	

8.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심사	스텝 구축 사업 추진 - 시·도 시범학교 선정 - 추진 전담 조직 구성:교육부, 시범교육청 - 계약 체결:한국정보공학(주) ○'96. 12. 2~12. 4 - 종합 심사:'96. 12. 5 - 장소: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수실 - 심사 대상:297편	(계속)
9. 소의 지역에 대한 정보 기술 관련 교육 환경 정비 계획 추진	○소의 지역의 정보화 교육 우선 지원 계획 수립 - '97년도 정보화 기반 시설 예산 지원 등 ○주요 내용 - 농어촌, 도서 벽지 및 도시 영세 지역 학교 정보화 기반 시설 지원 - 장애자들을 위한 S/W와 H/W 개발 보급	(계속)
10. 대학 도서관 전산화 사업 추진	○대학 도서관 DB 구축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연구	
11. 학교 정보화 운동 유공자 표창	○대상:학교 정보화 유공 기관 및 개인 ○훈격:교육부장관	
12. 교육 방송 개국 6주년 유공자 표창	○일시:'96. 12. 27 ○훈격:교육부장관 표창 ○인원:6명	
13. 교육 방송 편성 자문 협의회 개최	○일시:'96. 12. 19(목) 15~17 ○장소:상황실(16층) ○참석 대상:위원 18명, 교육부 및 교육 방송 관계자 ○협의 내용 - '97 교육 방송 기본 편성 계획(안)	
14. 제4차 정보화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96. 12. 26(목) 16:00 ○장소:국무총리 대회의실(916호) ○참석 대상:38명 - 실무 위원장 및 실무 위원 34명 - 배석 3명(해양수산부차관, 제2행정조정관, 정보화 기획실장)	

국제교육협력관실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OECD 제58차 교육위원회 및 제55차 교육연구 혁신 센터 회의 참가 결과 보고	○보고 내용 - 주제별 토의 참여 결과 및 향후 각종 협력 사업 참여 가능성 모색 - OECD 교육 관련 부속 기구 현황 파악 및 향후 참여 방안	

2. 교육 발전을 위한 OECD 활용 방안 수립	○OECD 정책 협의, 연구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OECD 정책 협의회(가칭), 부내 정책연구팀 구성 - OECD 연구·정보 센터 지정(KE DI) ○OECD 교육 관련 기구 가입·활동 - 교육위원회(ED), 교육 연구 혁신 센터(CERI), 고등 교육(IMHE), 교육 시설·설비(PEB), 교육과정(PCC) ○목적:한·말 기술 협력 사업 관련 업무 협의 및 한국 유학 말레이시아 학생에 대한 현지 평가 ○기간:'96. 11. 30~12. 3 ○장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참석 인원:5명 ○목적:양국간 교육 협력 증진 방안 협의 ○기간:'96. 12. 2~12. 7 ○장소: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표단 구성:4명 ○일시:'96. 12. 27(금) 16:00 ○장소:방송대 세미나실 ○참석 인원:위원 59명 ○일시:'96. 12. 17(화) ○장소:교육문화회관 ○참석 대상:정부 초청 장학생 및 관계자 ○내용:한국어 경영 대회, 친선의 밤 등 ○목적:귀국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외국에서 체득한 언어 및 문화적 경험을 신장시킴 ○예산액:2,625백만원 ○지원 기관명:LA 총영사관 ○직무 교육 - 기간:'96. 12. 2~12. 7 - 장소:국제교육진흥원 - 대상:선발 시험 합격자 22명 - 내용:주재국 이해 등 재외동포 교육 관련 업무 ○목적:우수 교포 자녀들에게 국내 대학(원) 과정을 이수케 하여 향후 교포 지도자로 육성 ○선발 예정 인원:50명 ○지원 내용:생활비, 정착 준비금, 항공	
3. 한·말레이시아 기술 협력 사업 참가		
4. 제1차 한·이스라엘 문화공동위원회 참가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6.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7. 귀국 학생 교육 대책 수립		
8. LA 민족 교육관 건립비 예산 지원		
9. '97 해의 파견 교육 공무원 교육		
10. 정부 초청 재외동포 장학생 사업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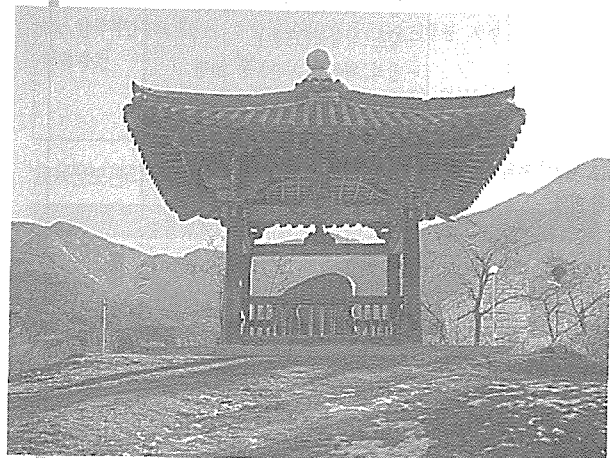
11. 국비 유학생 선발 관리	공표 등 ○'97 국비 유학생 선발 계획 수립 - 선발 예정 인원:60명 - 선발 분야:이공계 및 기초 과학 분야 우선 선발 ○국비유학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96. 12. 19(목) 11:00 - 장소:상황실(16층) - 참석:위원장(차관) 등 20명 - 안건:'97 국비 유학생 선발 계획(안) 심의	
12. 제2차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의	○일시:'96. 12. 4(수) 15:00 ○장소:국무총리 대회의실 ○참석:국무총리(주재), 재외동포 정책 관련 부처 장관, 민간 위원(5명) ○안건:재외동포 재단 설립 추진 현황,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 교육 강화 방안 등 5건	

총무과

건 명	추진 실적	비고
1. '96 결산 업무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지침 시달('96. 12. 9) - 대상:산하 기관, 부내 실·국	
2. '96 중무식	○일시 및 장소:'96. 12. 31(화) 12:00, 상황실	
3.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대상:국가·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정부 투자 기관 및 유관 산하 단체 임직원 ○모금액:1,505,622,760원(예금이자 포함) ※국가보훈처로 송금	
4. '96년도 세출 예산 불용액 실태 감사 수감	○감사 기관:감사원 ○기간 및 장소:'96. 12. 9~12. 19, 소회의실 ○대상:부내 실·국, 교육행정연수원, 국립교육평가원	
5. 연말 연시 불우이웃 위문 격려	○기간:'96. 12. 18~12. 31 ○방문 기관 - 신앙요양원:'96. 12. 26(장관) - 임마뉴엘재활원:'96. 12. 24(차관) ○실·국은 별도 계획으로 실시	
6. '96년도 보안 업무 심사 분석 실시	○보안 업무 계획에 따른 보안 업무 심사 분석 및 보안 심사위원회 심의	

# 火旺山の 정기, 昌寧

글: 신영훈(해라시아문화연구소)·사진: 김대벽(사진 작가)



新羅眞興王拓境碑의 후대에 지은 碑閣 ▲

어디 가느냐고 묻길래, 昌寧 간다고 했더니 “부곡 은천에 가시느냐. 선생님은 팔자도 좋고, 복도 타고나셨습니다.”고 약간 코끝에 멍한 소리로 묻길래, “斥和碑를 보려고요.”하러다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昌寧까지 가서 봐야 하느냐.”고 다시 물을까 봐 그만두었다. 斥和碑가 남아 있는 고장도 드물어진 세월이어서 昌寧斥和碑는 한 시대의 유물로 이젠 주목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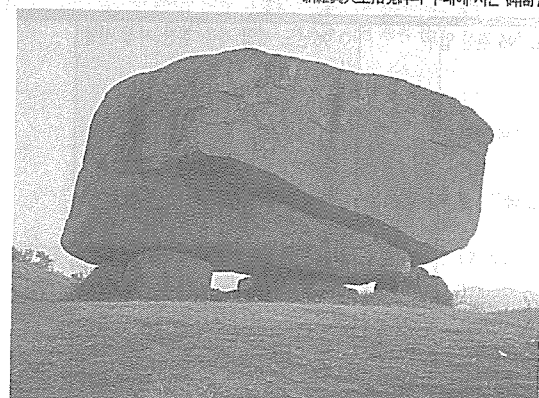
창녕의 옛 이름은 比斯伐이다. 斯伐을 <스 북>처럼 서울이었던 고장이며, 비사 벌은 빛과 불이 빛났어서 후에 火旺이란 이름을 얻는다. 창녕읍 뒷산이 해발 757cm의 火旺山이다. 신라 三山의 하나이던 비슬산(毘瑟山) 남쪽으로 뻗은 산으로 역시 뛰어난 산이라고 숭앙하던 곳이다.

일설에 火旺山은 옛날 화산이 활동하던 산이어서 분화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여기에 갈대가 자라 매년 정월 보름에는 억새를 태우는 갈대제를 올렸는데, 지금은 자연 보호 차원에서 행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정상에는 사적 64호인 火旺山城이 남아 있다.

昌寧은 陝川, 宜寧郡과 경계하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어 유역의 평야는 기름지고 소출이 넉넉해서 선사 시대부터 선주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한때 수십 기에 이르던 고인돌들이 지금은 기념물 2호인 장마면 유리의 고인 돌이 대표적이고, 사적 80호와 81호인 校洞과 松峴洞 고분군을 비롯하여 東里, 舍里, 牛川里, 兎川里, 舍里와 유명한 계성리에 고분들이 산재해 있다. 伽倻에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이라 한다.

新羅 眞興王이 16년(555)에 합병하면서 가야의 세력이 위축된다. 진흥왕은 561년에 몸소 신국토를 순방하고 그 기념으로 척경비(拓境碑)를 세웠다. 현재 국보 33호가 그것이다. 큼지막한 자연석에 글씨를 새겨 세웠다. 높이 162, 너비 174, 두께 30~50cm의 돌판에 27행 643자를 기록하였는데, 지금은 다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다.

진흥왕은 昌寧에 하주(下州)를 설치하였다. 중요한 고장으로 여기면서 여타 伽倻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았다. 비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는 평이다.



▲ 昌寧支石墓(기념물 2호). 4.0×3.6×2.0m. 述亭里西三層塔 상층 기단의 의상 ▼



이웃에 국보 34호인 述亭里東三層石塔이 있다. 통일 신라 때 석탑이다. 당당한 형상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해서 이제 막 작업이 끝난 듯이 느껴질 정도이다. 낮은 기단에 상층 기단이 가뿐하게 올라앉았고 그 위에 3층의 탑이 조성되었는데, 다른 장식은 아무것도 없고 각층에 귀기둥을 세웠다. 지붕들에는 처마 구조를 층단형으로 만들어 옥개석 빗물받이 물매에 쓴 경사를 만들었다. 상륜은 원래 있었을 터이나 지금은 3층 옥개석만 있고 상륜부는 사라졌다.

이 탑은 1965년 해체 수리할 때 3층에서 舍利空(方形 16.7×13.6cm)에서 사리 장치가 발견되었다. 청동 蓋形 사리 용기에 담황색의 유리 사리병이 들어 있었고, 흰색 계열의 사리 7과가 보장(寶藏)되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영롱한 오색 구슬 9점, 유리로 만든 작은 것 1점이 나왔다.

드문 일인데 하층 기단의 지대석 둘레에 돌림돌을 설치했던 흔적이 밝혀졌다.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조사자들이 언급하지 않았고, 탑이 있던 절의 원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못했다. 일찍부터 탑 주변에 민가가 들어앉은 바람에 흔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 東塔에서 지근 거리에 보물 520호인 述亭里西三層石塔이 있다. 일견해서 東塔과 아주 유사하나 기단과 탑의 체감들은 서로 다르다. 이 탑의 특징은 기단에 있다. 상층 기단은 東塔의 경우 귀에 기둥이 섰고, 중앙에도



▲ 龜山쇠머리대기. 龜山邑에 전해 오는 민속놀이(중요 무형 문화재 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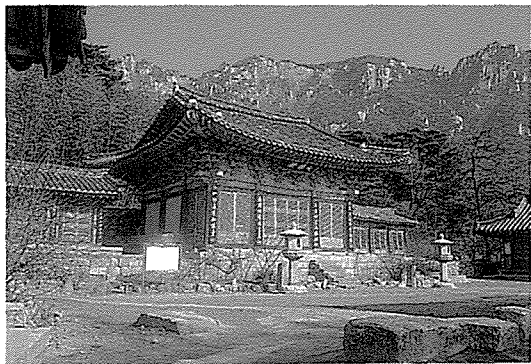


대원군이 세웠던 斥和碑·인근 민가의 담돌로 읽어 써서 보존 상태가 좋음 ▲ 昌寧 校洞古墳群(사적 80호). 멀리 보이는 것이 사적 81호인 松峴洞古墳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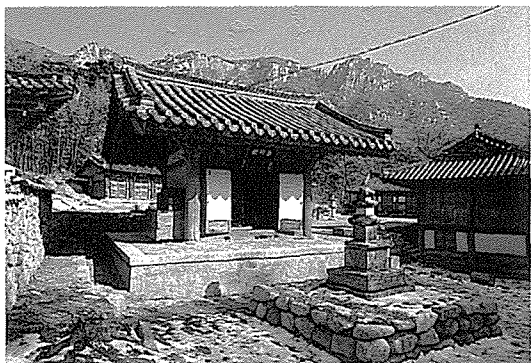




觀龍寺大雄殿·정면 측면 각 3칸, 팔작지붕(보물 212호) ▼



觀龍寺藥師殿·정면 측면 각 1칸, 맞배지붕(보물 146호) ▼



觀龍寺 입구의 돌로 만든 좁은 山門 ▼



▲ 觀龍寺龍船臺石造釋迦如來坐像(보물 295호)

◀ 龍船臺·부처님이 들배의 이물에 앉아 극락을 향해 항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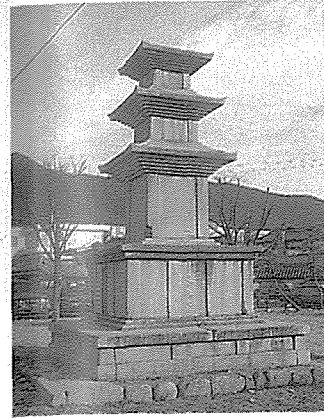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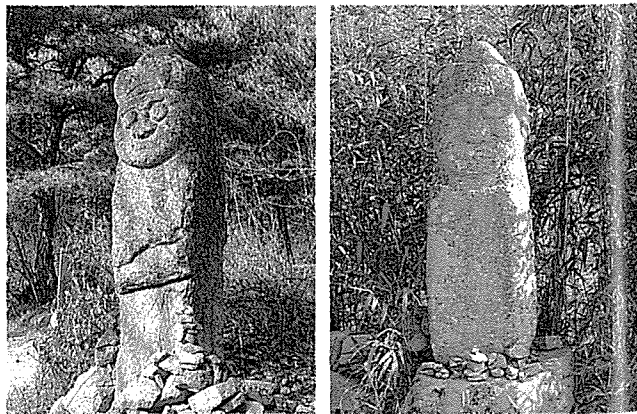
네모 기둥이 둘 더 있어 3칸을 상징하고 있는데, 西塔은 기둥이 생략되고 안상을 장식하여 장엄을 더했다. 아주 보기 드문 예여서 이 탑의 특색이라 할 만하다. 신라 탑 기단의 유사성에서 일견 대동소이한 유형이거니 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각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점, 신라 건축가들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말해 준다.

昌寧邑 校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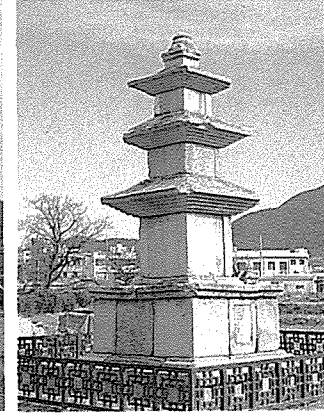
창녕탑금당치성문기비(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가 있다. 보물 227호. 헌덕왕 2년(810)에 세운 비석인데, 仁陽寺의 혜공왕 7년(771)부터 약 40여 년 간 절에 주요 건축물들과 범종을 완성시킨 경위를 기록하였다. 우리 나라에 이 부분의 기록이 드문 편이어서 이 비석의 학문적 가치는 매우 높다. 비석의 뒷면에 양각한 부조 승상이 있다. 아마 불사를 주도한 큰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보기 어려운 형태에 속한다.

述亭里에 중요 민속 자료 10호로 지정된 河丙洙 가옥이라는 살림집이 있다. 지금은 흔찮은 역사로 이른 집 [茅屋]으로

▼ 觀龍寺 어구에 미소를 머금고 서 있는 東西 돌장승(민속 자료 6호)



述亭里東三層石塔(국보 34호)와 西三層石塔(보물 520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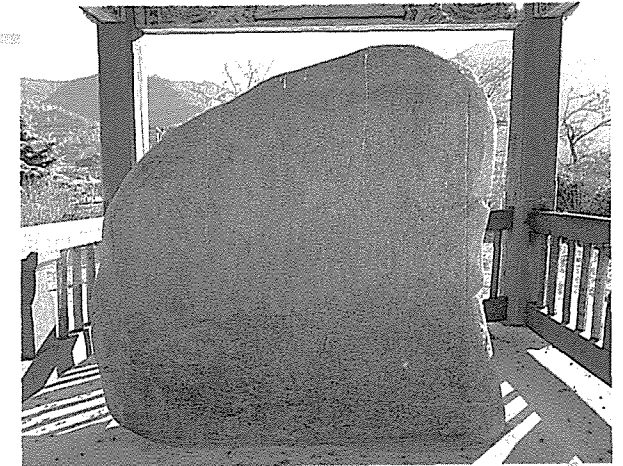


서까래 위에 고운 발처럼 겨름대 산자에 알매를 얹지 않고 역새를 이었는데, 안방과 사랑방 위에는 산자 위에 알매를 쳤다 한다. 기록에 1425년 경에 세운 살림집인데 -자형 1間通의 개방 성향이 짙은 구조로 부엌, 큰방, 대청, 작은 방의 순서이다. 안채 남쪽에 사랑채와 문간채가 있다. 사랑채는 기와를 이었다.

1898년에 지은 집이어서 안채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한 집에 이런 시차로 보이는 건물의 존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며, 학문적으로도 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닻에 고려 시대의 선조가 사용하던 낚수저가 한 벌이 있다고 해서 간청해 보았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형태의 수저와 유사하다. 그래도 조선 초기 형태에 가까워 손가락의 손잡이가 활처럼 휘지 않았다. 우리 젓가락은 끝이 무디고, 일본 것은 날카롭다. 그래야 생선 가시를 발라 먹기 쉽고, 무디어야 고기나 나물을 집어 먹기 좋다는 의미가 함축되었다 한다. 풍토에서 삶이 일구어낸 지혜의 소산이다. 무심히 볼 것이 하나도 없다.

校里에 경남 유형 문화재 212호인 鄉校가 있고, 교상리에 경남 유형 문화재 231호인 客舍가 있다. 객사는 한말 이후 많이 변형되어서 지금은 벽체 없이 기둥만 서 있는 모습이다. 마치 벌거벗고 서 있는 듯한 몰골이어서 을씨년스럽다. 충분히 제

홍예 구조의 靈山萬年橋(보물 564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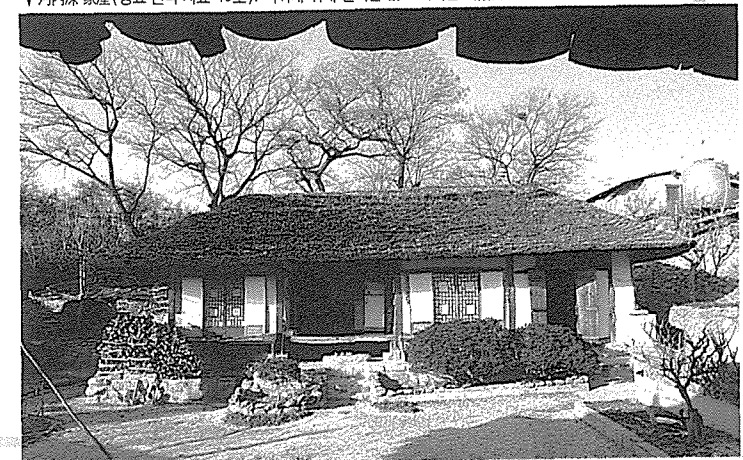
▲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국보 33호). 높이 162, 너비 17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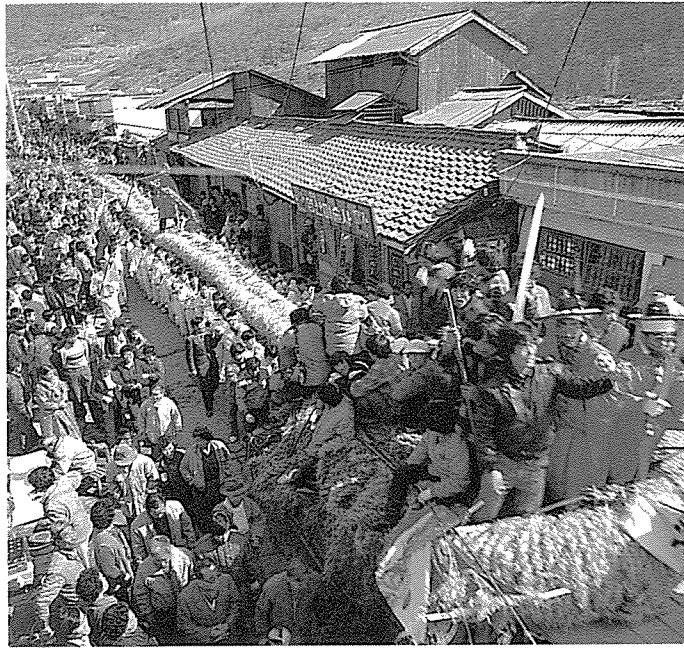


▲ 昌寧石水庫(보물 310호) ▼ 靈山石水庫 내부 홍예 구조(사적 169호)



▼ 河丙洙 家屋(중요 민속 자료 10호). 서까래 위에 산자를 얹고 역새를 이었음.





昌寧松峴洞石佛坐像(보물 75호), 높이 1.37m. ▼



▲ 밤새워 수줍을 지키는 사람들

◀ 靈山줄다리기(중요 무형 문화재 26호)·東西部로 나누어 임줄 고에 수줍을 깨어 맞당기는 놀이로, 음력 정월 보름에 놀았으나 영신음이 3·1운동의 선봉 지임을 기념하여 매년 3월 1일에 하고 있음

모습을 찾아 재현시킬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노릇이다.

昌寧邑 松峴洞에는 보물 75호인 松峴洞石佛坐像(신라 시대, 높이 1.37m)이 있다. 자연석에 부조한 불상으로 바위를 광배처럼 이용한 특색을 보였다. 결가부좌에 항마촉지인한 좌상인데 당당한 체구이다.

昌寧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昌寧石氷庫이다. 보물 310호인 이 석빙고는 규모가 11.0×3.6×3.7m의 대형 석조물이다. 영조 18(1742)에 축조되었다. 석빙고 제도는 신라 때 시작되었다. 경주에는 당시의 석빙고가 있으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석빙고는 조선 영조 때 축조된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파탄된 경계가 겨우 회복되면서 영·정조 때에야 백성들의 후생 복지가 고려된 데서 나타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아치형으로 쌓은 구조물이다. 큼직한 석재로 완고하게 쌓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끄떡없고, 냉은방이 잘되어 겨울에 떠다

▼ 觀龍寺石造如來坐像(보물 519호)



▼ 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보물 227호)



수장한 얼음이 여름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상당히 과학적인 구조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과학적인 조명은 아직 뚜렷한 것이 없다. 창녕의 향토사학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볼 만하다.

홍예(虹霓)구조로는 靈山萬年橋(보물 564호)도 주목할 만하다. 개울을 건너는 무지개 다리인데 홍수 때 큰물이 내려도 건널 수 있게 높직하게 만들었다.

昌寧에서 보아 火旺山 뒤편에 觀龍寺가 있다. 오래된 절에香火가 끊이지 않아 무수한 인연이 얽히어, 창녕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깊은 끈끈이를 지니고 있다. 觀龍寺 가는 산길은 운치가 있다. 그 산길 어구에 돌장승이 좌우에 있다. 둥근 눈에 정을 듬뿍 담고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얼굴이다. 잡귀의 범접을 막는 것이 소임이지만 넉넉한 여유로 지그시 보면서 빙긋거리다.

잡귀가 감히 넘볼 그런 품도가 아니다. 절에 一柱門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더러 홍살문을 세운 예도 있으나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金山寺 어구나 洛山寺처럼 성문 형식을 하는 것도 빛하다. 옛날의 山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觀龍寺에 들로 쌓은 산문이다. 아주 질박하고 크지 않은 소담한 문이다. “그렇지!” 이만하면 산사의 산문으로는 최고이겠다.

觀龍寺 요사채를 빗겨 왼쪽 골짜기를 오르면 거대한 돌배 [石船]가 장중하게 자리잡고 있다. 극락갈 때 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다. 죽어 극락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돌배 타는 연습을 잘해 두어야 한다. 소홀히 하다가 막상 승이 넘어간 다음에 서둘러 봐야 배는 이미 떠난 뒤가 된다. 그러니 평소 용선을 탈 수 있는 대자(大慈)의 덕을 쌓아 두어야 한다. 이 배의 선장님은 보물 295호의 龍船臺石造如來坐像이다. 신라 때부터 선장 소임을 맡으신 분이 뱃머리에 나왔어 있다. 공경하는 지극한 마음에서 되바라지지 않게 일생을 살아온 따뜻한 정이 어린 사람이라면 항시 환영하는 돌부처님이다. 그런데 흔히 참배객들은 이 부처님만 배알하고 하산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般若龍船을 보려면 용선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조금 오르다 있는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내가 낀 사바 세계를 발 아래 두고 떠가는 장중한 한척의 돌배가 보인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이 배의 이물에 앉아 극락을 인도함이 한눈에 펼쳐진다. 장관이다.

보물 146호인 觀龍寺 藥師殿은 아주 작은 법당이다. 맞배지붕에 기둥 위의 공포도 간결하다. 그래도 의젓하고 담담하며 아름다워 기품이 서린 귀부인을 보는 그런 분위기다. 약사전 안에 보물 519호인 石造如來坐像이 있다. 手印(부처의 손 모양)은 약사수인인데 약병이 없어진 듯하다. 그래서 약사여래라 하지 않고 그냥 석조여래로 부르고 있다.

약사여래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발원을 지녔다. 골항에 병이 깊은 사람이 약사여래에게 밀착해서 병의 쾌차를 비는 데는 좁은 법당이 십상이라는 것이 옛 사람들의 생각이다.

觀龍寺의 중심 金堂은 역시 보물 212호인 대웅전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법당이다. 잘 생겼다. 규모가 크지 않아 들어가 앉아도 가득 차는 듯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 좋은 그런 건물이다.

昌寧에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있지만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는 그 중에서도 유명하다. 직접 구경 가서 한몫 끼어들기라도 할작시면 저절로 신명이 난다. 靈山 사람들 전부가 떨쳐 나온 듯이 북적거리는 중에 엄청난 기세를 몰아 양편이 부딪혀 들어가며 어우르는 장면은 신이 나지 않고는 배기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줄다리기는 어느 쪽에 풍년이 드느냐를 예점하고, 또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神事여서 줄을 만드는 일로부터 엄정 엄격하다. 집집에서 짚을 모아 줄을 드리는데 솥줄의 꼬리를 맡은 쪽에서는 수컷의 순수성을 지니기 위해 밤새 수직(守直)을 한다. 잘못해 여인이라도 넘어가면 부정한다고 아주 금기시하고 있는데, 속설에 새댁네들이 줄을 타넘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여인네들의 접근이 잦아 더 철저히 지키는다고 한다.

昌寧은 역시 문화의 고장이어서 일일이 다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문화 유산들이 있었다. 숨들릴 사이 없이 찾아다녔는데도 다 보기 어려웠다. 다음을 기억하면서 일행은 昌寧을 떠났다.\*

▼ 昌寧客舍(유형 문화재 231호)



# 체험 중심 클럽 활동의 결과 전시회

충남 공주 봉황중학교 교장 원 의 자



교내 종합 작품 전시회 개장 테이프 커팅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21세기는 경쟁과 공존의 시대로서 창의적이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재 양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교육 관습에서 벗어나 능력별 교육, 학생 중심 교육, 사고력과 탐구력을 중시하여 자기 학습력을 높여 주는 교수·학습으로, 열린 교육의 기반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미래 지향적 교직원을 정립한 후 학생들에게 상담자, 학습 관리자, 진단자, 처방자, 관찰자, 조연자, 격려자, 기록자, 촉진자, 지도자가 되어 학생 스스로가 자아 실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과정의 특별 활동 영역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

인 사람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IQ(지능)중심 교육에서 EQ(정서)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교육과정상의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전일제 클럽 활동을 운영하게 되었다.

## 클럽 활동 부서 조직

학생의 흥미, 취미, 적성에 따라 신입생인 1학년은 학년초인 3월에 조직하고, 2·3학년은 전학년도 말인 2월에 조사된 내용에 따라 19개 부서 24개 반으로 편성했다.

지도 교사의 배정도 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따라 분담하였다. 그러나 12개 학급 소규모 학교의 법정 교사 정원수 관계로 모든 학생의 희망대로 부서를 두어 지도 교사를 배정하지 못하고, 일부 특수한 기능이 요구되는 부서의 학

생은 지역의 사설 단체나 학원 또는 수련장에 의뢰하여 활동하도록 조직을 배려했다.

## 클럽 활동의 운영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전일제 클럽 활동일로 편성하고, 시간이 부족한 부서는 일요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클럽 부서는 흥미와 취미가 비슷한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참여 의욕이 넘쳐 토요일을 기다렸다.

운영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나누고, 지도 교사의 안내에 따르도록 했다. 교과 활동에서 체험하지 못한 내용은 소집단 과제나 개인 과제를 부과하고, 이수한 과제는 보고서나 작품을 제출토록 하여 가을 종합 작품 전시회를 대비케 했다.

특수 기능을 지도해야 하는 부서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지도하거나 지역내의 수련장이나 학원에 지도를 위탁하였다.

## 교내 종합 작품 전시회

종합 작품 전시회는 학생과 교사, 그

특별 활동 부서와 활동 내용

영역	부서 및 활동
학급 활동	• 학급회 활동 • 협의 • 역할 분담
	• 적응 활동 • 상담 • 진로탐색 • 친교
학교 활동	• 학생회 활동 • 협의 • 위원회 활동
	• 행사 참여 • 학교 행사에 참여
클럽 활동	• 문예 활동 • 독서반 • 영어회화반
	• 체육 활동 • 독서반 • 단소연주반
	• 예술 활동 • 과학반 • 컴퓨터반
	• 취미 활동 • 구기반 • 볼링반
청소년 육성	• 노작 활동 • 유도반 • 태권도반
	• 취미 활동 • 원예반 • 공예반
	• 예술 활동 • 백제문화반 • 미술반
	• 사진반 • 음반반
청소년 육성	• 해양소년단
	• 환경탐구반
	• 보이스카우트반

리고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여 총 730여점을 전시했다. 학생 작품이 650여 점, 교사 작품이 30여 점(교수 학습 자료 별도), 학부모 작품이 70여 점이였다.

개관식은 관내 초·중등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3일간의 개관 계획이 4일간이나 계속되었다.

## 1. 학생 작품

교과 활동과 클럽 활동의 작품으로 양분되나 상호 연계하여 꾸준한 노력과 체험이 있어야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1) 교과 활동 작품의 예

- 국어과 - 주 5회의 자율 학습 시간 중 1회의 독서 시간을 이용하여 글짓기, 독후감, 명시, 명언을 모은 <나의 문집> 제작에 창의력과 학습 능력 신장에 주력한 작품.
- 윤리과 - 인성 교육의 차원에서 효행 일기, 나의 반성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수시 발표를 거쳐 표창한 작품.
- 과학과 - 과학반과 연계하여 자연 관찰 보고서, 채집, 재활용 비누 만들기 등 창의력 계발에 주력한 작품.
- 국사과 - 백제문화반과 연계하여 개인 또는 소집단별로 문화재 조사, 탐방기, 사진, 앨범 등의 제작을 통해 조상

의 얼과 주체성을 키운 작품.

- 가정과 - 남학생인 관계로 수예는 없고, 2학년에 한하여 년 4시간씩 예절실에서 전통 예절을 학습한 결과의 기록물이나 각종 조사 및 수집한 작품.
- 기술과 - 현재와 미래의 주택 및 아파트 모형 설계 제작에 창의성을 발휘한 작품.
- 미술과 - 1학년 4인 1조의 아연 동판 협동작, 2학년은 10인 1조의 석고 부조 협동작으로서 3~4개월에 걸쳐 협동심과 창의성을 발휘한 작품.

### (2) 클럽 활동 작품

실제 생활과 괴리되기 쉬운 교과 중심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래 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전인적 평생 교육의 기초를 닦아 자아 실현의 기쁨을 갖는 작품들이다.

활동은 지도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독창적 개성이 담기도록, 개인별로 수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갖게 했다.

## 2. 교사 작품

교사 개인이 보유한 기능을 다듬은 것과 취미나 흥미에 따라 채집하거나 수집한 작품, 교과별 전공에 따라 학생과 공동 제작한 1교사 1작품들이다.

부서 활동(예)

부서명	활동 내용	활동 장소	성과
백제문화반	개인 및 또래 활동, 문화재 탐방, 앨범 제작, 탐방기, 발표회 갖기	백제 문화권역, 신라 문화권역	문화재에호심, 탐구력, 호연지기, 애국심
해양소년단	각종 해양 훈련, 일본 탐사 소감문, 기행문, 발표회, 봉사 활동	서해안, 금강 유역, 일본, 교내	응급 조치법, 호연지기, 협동심, 봉사심, 인내력
문예반	독후감, 명언, 명시 모아 문집 만들기, 발표회	교내외, 가정	창의력, 나의 문집, 학습 능력, 교지 발간
사진반	자연사물, 문화재, 풍경, 환경 오염원, 인물, 행사, 질서 등에 관한 사진 전시회	교내외	탐구력, 1인1기, 민주 의식, 정서 순치
환경반	자연 보호 운동, 봉사 활동, 사진찍기, 환경 오염원 찾기, 소감문 등	교내, 시내 일환	시범 학교 운영, 자연 보호 정신
볼링반	볼링 기능 연마, 집단 질서 이동	교외 볼링장	여가 선용, 취미 조장

## 3. 학부모 작품

매년 실시하는 4월 어머니 회의 때, 연중 학교 행사를 안내하는 중에 가을 작품 전시회를 예고하고 학부모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그림, 서예, 수예, 공예, 시화, 조각, 폐품 활용, 한복 등 다양한 영역의 사전 출품 원서를 받았고, 9월 어머니 회의 때 점검 받은 작품과 자녀와 공동 제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작품의 전시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과별, 클럽 활동별로 전시하여 훌륭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자기 작품을 찾기에 용이하게 했고, 타인의 작품과 비교 감상하며 자긍심을 느끼게 배려했고, 학생이나 일반관람자에게도, 관람의 편의를 제공했다.

## 맺는말

지난 1년간 다양한 학습을 경험케 함으로써, 내적으로는 인성 도야와 학습 동기 유발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금년도 도내 학력 평가 실시 결과 본교가 최상위의 학력을 가진 학교로 평가 받았고, 외적으로는 민주 시민적 활동과 봉사 활동에 즐겨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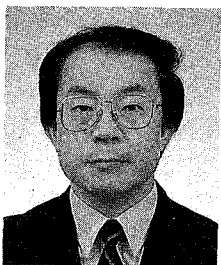
또, 교육 활동 내용이 수록된 교지 창간호를 참관한 모든 분들께 선물한 것은 더욱 뜻이 있었다.

그리고 전시회 당일 병행한 1일 교사 초청 공개 수업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뒀던 가을 체육 대회의 동시 축제도 모두의 즐거움이였다.

이제 1년간 가꾼 교육의 열매는 풍성하였다. 시 변두리의 기피 학교란 인식에서 벗어나 신나는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실력 있는 학교의 영예를 얻었으니, 올해는 더 알찬 열린 학교 운영을 위해 참신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 북한의 애국미 헌납 운동

올바른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 북한 사회, 그 내부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는 난을 마련했다. 최근 북한 고위층의 잇단 탈북 현상이나 심각한 식량 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위기 국면이라는 대체적인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의 수준과 그 대응에 대하여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조금씩 상이한 의견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 이 난을 마련했다.



장수근

서울신문사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애국미 헌납'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을경이 끝난 직후부터다. 북한은 11월 11일 당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식량을 국가에 바친 한 농민을 '90년대의 참된 애국자'로 선전하며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이를 따라 배워 식량의 자진 헌납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면서 북한은 이 '애국미 헌납'을 더욱 강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식량 자진 헌납 농장원들에 대한 평양 관광 주선이다.

**북**한이 최근 각지 협동 농장 농장원들과 일부 주민들로부터 가뜩이나 모자라는 식량을 거둬들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북한의 관영 선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식량 회수는 '애국미 헌납'이란 미명 아래 전개되고 있는데, 북한이 '애국미 헌납'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식량은 협동 농장원들이 '결산 분배'를 통해 배당받은 현물(쌀, 옥수수)과 일부 주민들이 20~30평 남짓한 텃밭에서 자체 생산한 잉여 농산물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이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애국미'란 이름 아래 "식량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더불어 "애국미 헌납은 당과 수령에 대한 고귀한 도덕, 의리심이자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원대한 사랑의 결과"라며 각지 협동 농장과 농민들이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애국미 헌납'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을경이 끝난 직후부터, 북한은 11월 11일 당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식량을 국가에 바친 한 농민을 '90년대의 참된 애국자'로 선전하며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이를 따라 배워 식량을 자진 헌납할 것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면서 북한은 이 '애국미 헌납'을 더욱 강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식량을 자진 헌납한 농장원들에 대한 평양 관광 주선이다. 북한은 또 애국미를 헌납한 각 협동 농장별로

'김정일 감사(문) 전달식'을 진행, 애국미 헌납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식량을 자진 헌납했다는 김제원 협동 농장원과 삼지강 협동 농장원 수백 명이 정축년 새해를 맞아 금수산기념궁전과 만경대,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 시내를 관광했으며, 1월 13일 자강도 송원군 송관리 당비서 이춘국을 비롯한 농장원들 앞으로 '김정일 감사'가 전달돼 관련 모임이 현지서 진행되기도 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애국미 헌납 운동을 통해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로부터 식량을 회수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하나가 식량 재분배. 북한은 94년 냉해, 95, 96년 2년 연속된 수해로 일부 지역에서 3~6개월간 식량 공급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후 여유 있는 지역의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로부터 식량을 회수,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식량 압거래로 인한 '국정 가격 및 유통 체계'의 문란과 식량 구입을 빙자한 주민들의 무단 여행 및 탈북 사태를 단속,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애국미 헌납 강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벼룩의 간을 내먹지 어떻게 우리들의 식량을 거둬 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없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일이니 할 수 없다."는 식의 자조라는 것.

##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대용식 마련 운동

식량난이 극심한 북한이 요즘 대용식 마련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평야가 적어 식량 생산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칩뿌리 캐기 운동, 더덕 캐기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

칩뿌리 캐기 운동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 학교 등 각 조직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한 목표량을 할당, 목표를 완수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취한 칩뿌리는 얇게 썰어 말린 후 양정 사업소에 비치토록 하고 있는데, 양정 사업소에선 이를 칩국수나 간장으로 만들어 세대당 2~3kg씩 배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칩가루로 대체 배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더덕 캐기는 산간이 많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당초 직경 2~3cm 이상의 더덕을 캐오는 세대에 대해 kg당 밀가루 7kg을 주기로 했으나 실적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밀가루 7kg씩만 지급한 후 이 운동을 끝내버려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 군인 외화벌이 돌격대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선 외화벌이에 각급 기관이 총동원된다. 군인 외화벌이 돌격대는 글자 그대로 외화벌이 사업을 위해 군에 설치된 돌격대를 말한다.

일선 군부대에 군인 외화벌이 돌격



최근 북한의 탈북,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돼 귀순한 김영진·유승일 씨 가족들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증언해 주고 있다.

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화벌이 돌격대는 군단 내에 1개 대대 규모(약 1천 명)로 별도 편성돼 있다고 한다.

주로 생활 불량자나 신체 허약자 등 군대 생활에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병들이 돌격대에 차출되고 있으나 더러는 스스로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병들이 "고문관으로 지낼 바에야 차라리 푼돈이라도 만질 수 있는 외화벌이 대대에 가겠다."며 진출을 희망, 편입되기도 한다.

이렇게 구성된 외화벌이 돌격대는 광산, 수산 사업소, 집단 농장 등지에서 사업을 통해 외화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수집한다.

주요 수집품은 토끼, 고양이, 물쥐의 가죽이나 오리털, 축산물, 버섯, 고사리 등의 농산물과 오미자 등의 한약재며, 이 밖에 손쉽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마약도 주요 수집품 중 하나다.

일단 수집된 물품들은 인민무력부 산하에 설치된 각종 무역 회사들을 통해 각국으로 수출되는데, 인민무력부는 산하에 해군급, 은파산, 용성, 비로봉, 부흥, 매봉 등의 무역 회사를 거느리고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 인민 복권

북한에서도 (인민)복권이 발행된다. 발행은 중앙은행에서 비정규적으로 한다. 북한의 복권은 지난 9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됐으며, 액면가는 50원이다. 총발행 매수는 1천만 매이며, 이 중 1등 1만원 2천 매, 2등 5천원 4천 매, 3등 1백원 2백만 매가 당첨 대상이다.

북한은 복권 발행 목적과 관련, "인민들의 문화와 정서 생활을 융성케 하며, 사회주의 대건설과 통일 거리 건설에 재정적으로 보탬을 주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복권 발행 목적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유희 자금을 흡수, 각종 건설 소요 자금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복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상점, 역 등에 복권 판매 홍보문을 게시하거나 유선 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해설 활동을 하고 있다.

최초의 복권 추첨은 인민복권추첨회의 주관 아래 92년 3월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으며, 그 실황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 첨단학술정보센터 출범과 기대 효과

## 한국학술진흥재단기획실

**학**술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국내외 학술 연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첨단학술정보센터(Korea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초대소장 이석호, 서울대 교수)가 구립 27일 국내에도 설립됨으로써 이미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 여러 나라의 학술 연구자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김종운 박사)의 부설로 설립된 첨단학술정보센터가 어떠한 기관인지 소개한다.

### 1. 설립 배경 및 목적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은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고도의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무한 경쟁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로 범국가적인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 연구 부문에서도 정보화 사회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교육 선진국 및 교육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지식·정보도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국가 경쟁력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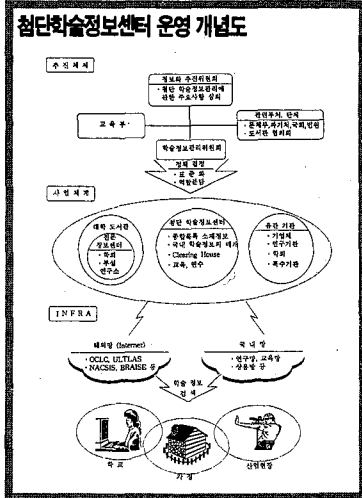
으로서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한 유통을 위한 정보 센터의 설립·운영 등 국가간 정보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학술 정보 센터의 예로 일본의 NACSIS, 미국의 OCLC, 영국의 BLAISE, 캐나다의 UTLAS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인 변화에 맞춰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태동하게 되었다.

설립된 첨단학술정보센터는 대학별 도서관, 연구소, 학회, 전문정보센터, 그리고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학술 연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을 학술 정보망으로 서로 연결하여 학술 정보의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술 연구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국내외의 학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고 학술 연구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첨단학술정보센터는 국내 전문 정보 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망과 상용망 등을 연계 접속하여 국내외 정보 서비스 체계를 갖춘 다음 금년도 4/4분기에는 초기 단계 서비스를 개시하고, '99년도부터는 본격 서비스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학술정보센터는 학술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진흥재단의 부설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학술 연구의 전 과정(기획·수행·평가)에 걸쳐 도서관, 연구비, 학술 정보 등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대학 특성화 정책 등 관련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거, 문체부, 국회, 법원 등 관련 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영역·역할을 분담하여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3. 센터의 기능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 정보의 제공, 원문(Full-text) 검색 지원, 분야별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학술 정보를 공

동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분야별 특성화된 전문 정보 센터를 지정·육성하여 연구에 유용한 국내외 학술 정보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을 연동·서비스한다.

셋째, 진행 중인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도하지 않은 중복 연구를 최소화한다.

넷째, 학술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에 필요한 전산 자원(Super Computing Power)을 제공한다.

다섯째, 기타 학술 정보에 관한 연구, 국제 협력, 교육·훈련 등을 추진한다.

### 4. 기대 효과

지금까지 대학 및 학술 관련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전문 잡지를 구독하던지, 국내외의 전문 정보를 찾아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던 불편함을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첨단학술정보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해소하여 국내외의 학술 연구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쉽고 편리하게 연구에 필요한 학술 연구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학문 분야별 특화된 전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연

구에 유용한 정보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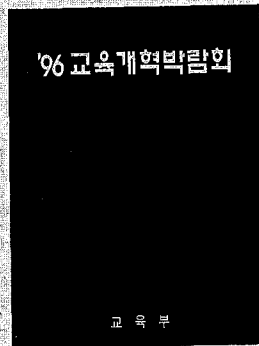
넷째, 관련 부처나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 분담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최소화한다.

다섯째, 문헌 정보의 분담·종합 목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의 단위 도서관에서는 서지 정보의 공유로 인한 인력·예산의 절감 및 신속한 서지 정보 전산화가 가능함에 따라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96 교육개혁박람회 종합 보고서>

교육개혁박람회의 계획부터 성과까지 종합 수록

교육부는 지난 '96년 7월 21세기 우리나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 개혁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 성과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교육 개혁의 이정표로 삼는 동시에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배판, 본문 32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장 제본되었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행사에 참가한 모든 기관과 도서관, 교육 행정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교육규제완화백서>

정부 수립 후 50여 년 누적된 교육 규제의 과감한 정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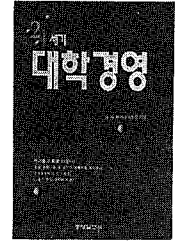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 규제를 정비해 온 의지와 노력의 결과를 담은 '교육규제완화백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정부 수립 후 50여 년 누적된 각종 교육 규제 중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 명령은 '97년 1월 1일부터 자동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 조치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2,387 중 5,332건에 달하는

정비 대상 행정 명령 중 1,250 중 2,639건이 폐지·완화되었고, 1,137 중 2,693건만이 전문 존치기로 확정됐다. 이번 백서는 신국판, 720면으로 각급 교육 행정 기관과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했다.\*

# 잡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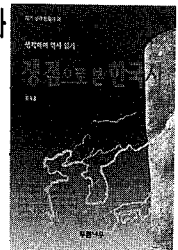
## 21세기 대학 경영

**송자 지음**  
이 책은 경영 총장으로 널리 알려진 송자 전연세대학교 총장이 4년간의 재임 기간 중 발로 뛰며 체득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저자는 우리 나라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단·교수·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국판 304쪽·10,000원·중앙일보사(751-9311)



## 쟁점으로 본 한국사

**김옥훈 지음**  
역사적 사건은 사료를 바탕으로 검증된다. 그렇기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각도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단군 신화와 고조선, 고대 한일 관계사, 삼국의 대결과 통합, 수세기기의 왕국 발해, 묘청과 서경 천도 운동,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당과성론과 부당 정치론, 홍선 대원군 이하응, 1894년 농민항쟁, 3·1운동과 민족 대표, 임시 정부와 제1공화국 등 11개 쟁점을 다루었다.  
\* 신국판 290쪽·6,500원·푸른나무(563-4797)



## 뇌내 혁명 2

**하루이마 시게오 지음 박혜순 옮김**  
인간의 본능이나 자율 신경계의 활동 등 과거의 경험은 우뇌에 저장되고, 출생 이후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좌뇌에 저장된다. 우뇌의 선천성 기억 용량은 좌뇌의 10만 배에 해당하나, 우뇌의 정보가 좌뇌로 이월은 매우 힘이 든다. 인간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우뇌가 열려 저장된 정보가 좌뇌로 이장되는 수가 있다. 이를 우리는 초능력이 발휘되었다든가 아이디어 떠올랐다고 한다. 이 책은 뇌를 써서 뇌와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법을 다루었다.  
\* 4×6판 288쪽·7,500원·사람과 책(556-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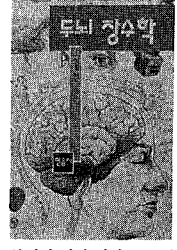
## 음운과 문자

**김연진 지음**  
국어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저자가 '96년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를 정년 퇴임하면서 그간의 연구 업적을 정리한 책이다. '71년 이후 25년간 연구 가운데 편의상 음운에 관계된 것과 음운사 논의를 위한 자료, 문자에 관계된 것의 세 부류로 분류하여 엮었다.  
\* 신국판 442쪽·17,000원·신구문화사(735-4464)



##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변영계·김영환 지음**  
학교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후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교육 방법과 이런 교육 방법의 실행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교육 공학은, 교사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과목이다. 이 책의 내용들은 수업에 직접 적용되는 실제적인 내용을 쉽게 담자 자습이 가능한 모듈 형식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신국판 439쪽·12,000원·학지사(363-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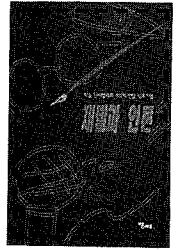


## 두뇌 장수학

**서유현 지음**  
서울대 의대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뇌의 건강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도 관장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각종 질병은 대부분 뇌의 건강 이상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며, 1부에서 뇌의 신비를, 2부에서 건강한 뇌를, 3부에서 뇌에 좋은 음식을, 4부에서 뇌와 스트레스를, 5부에서 치매 극복을 다루었다.  
\* 신국판 184쪽·6,000원·민음사(515-2000)

## 재벌과 언론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이 책은 17개 학술 연구 단체들의 모임인 학술단체협의회가 제9회 연합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지배 구조-재벌과 언론'이란 주제로 90년대의 한국 사회가 80년대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  
\* 신국판 455쪽·12,000원·담대(323-1316)



## 세계사 100장면(개정판)

**박은봉 지음**  
이 책은 장구한 세계 역사를 100장의 스냅 사진으로 앨범을 만든 것과 같아서 첫장부터 한 장면씩 읽다 보면 세계사의 흐름이 절로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시대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과 결과와 전망까지 밝힘으로써, 역사를 보면서 느끼고 즉시 교훈을 찾게 했다. 각 장면은 1편의 단편 영화로 세계사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엮었다.  
\* 신국판 455쪽·8,000원·실천문화(322-2161)



## 기술 문명과 철학

**이홍빈 지음**  
기술 지배 시대에 대한 철학적 조망을 한 이 책은 1부에 기술 문명의 성립과, 2부에 근대 이후의 우리 이론과 정치 철학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했고, 3부에서 기술 문화와 성의 정체성을, 4부에서 한국 사회의 실천 철학과 정치 윤리를 다루었다.  
\* 신국판 462쪽·12,000원·문예출판사(393-5681)



##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랜드 호프만 지음 이덕환 옮김**  
저자는 이 책에서, 화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단순히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여론의 결정에 정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상식이라고 밝혔다.  
\* 신국판 375쪽·12,000원·까지(735-8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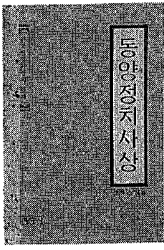
## EQ, 감성 지능 개발 학습법

**도라스멘·카린 빅 지음 홍명희 옮김**  
학교에서 받은 높은 점수와, 높은 IQ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공의 80% 정도는 전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사실이 과학으로 증명되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EQ를 높이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성공은, 나와 남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다.  
\* 신국판 260쪽·6,500원·해남출판사(701-6801)



## 동양 정치 사상사

**한국 양명 사상의 전개 장치근 지음**  
한국 양명학 연구에 정통한 필자는 5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조선 왕조를 지배했던 주자학의 광대 속에서 한국 양명학이 어떻게 배태되었으며, 진실한 뿌리를 내리기까지 다양한 양상들과 진행 과정, 그 의의를 세세히 파헤치고, 한국 근대 사회의 서장을 연 조선 후기 실학 사상과 양명 사상의 연계성을 이 책에서 밝혔다.  
\* 신국판 424쪽·15,000원·평민사(375-8571)



## 세계의 환경 교육

**김동규 지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정식 교과로 채택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이 책은 1부에서 세계 환경 관계 회의와 거기서 나온 각종 선언문과 그 실행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살폈고, 2부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18개 국가의 환경 교육 실태를 소개했다.  
\* 4×6배판 423쪽·15,000원·교육과학사(363-6431)

## 별난 인종 별난 에로스

**유종현 지음**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며, 외교관으로 36년간 세계 각국을 누비며 현지인의 다양한 삶을 체험한 저자는, 21세기로 도약하는 과학 문명 속에서 여전한 태고의 생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많은 원시 부족들의 진기한 결혼 풍습과 성생활을 사진을 곁들여 엮어서 읽는 이를 신비의 세계로 안내한다.  
\* 신국판 242쪽·7,000원·성하출판(778-6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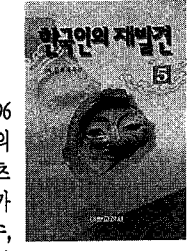
## 위대한 발굴

**트로이에서 진시황릉까지 세기의 대발굴 이병철 지음**  
고고학사에 빛나는 위대한 세기의 대발굴 29장면을 담은 이 책은, 트로이 유적 발굴부터 최근에 이루어진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발굴과 신안 앞바다 유물 인양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인류 문화 유산이 발굴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전과정을 풍부한 그림을 통해 소개했다. 대형 판형에 370점의 컬러화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4×6배판 235쪽·12,000원·가림기획(815-1253)



## 한국인의 재발견 5

**문화체육부 기획**  
이 책은 '95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문화부가 '이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한 스포츠 외교가 정월터, 화약 발명가 최무선, 아동 문화가 이원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시인이자 항일 운동가 이육사, 민족의 큰 별 김구, 음악가 채동선, 국어 학자 김윤경, 실학자 이수광, 의병장 박재우, 소설 문학의 선구자 김만중, 신라말의 대학자 최치원 등 12인의 업적을 실었다.  
\* 신국판 424쪽·7,000원·대한교과사(3475-3862)



## 한 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영규 지음**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격렬한 세계사의 폭풍을 헤쳐나간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한 권으로 복원했다. 고려의 역사는 삼국과 조선을 이어주는 단순한 징검다리의 역사가 아니다. 고려사는 고려의 시대로 봐야 한다. 격동의 오백 년을 역동적으로 헤쳐나가 그 강인함의 원류를 아는 것만이, 지금 우리를 올바르게 서게 하는 답답물이다.  
\* 신국판 487쪽·10,000원·들녘(337-0296)



##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하)

**주홍운·김택규·김열규·성백인 지음**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림과학원에서는 기존 연구가 개개 학자들의 단편적인 문헌사학적 연구에 그쳤음을 고려하여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민속학, 고고학 등 인접 학문과 교류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 종합적 고찰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와 민족관을 확립시키고 동시에 이 방면 연구에 초석을 마련했다.  
\* 신국판 470쪽·13,000원·소화(677-5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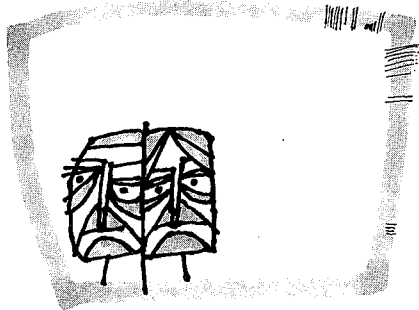
## 인터넷 항해도

**삼성 데이터 시스템(주) 지음**  
이 책은 정보화의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UNITEL을 통한 전국 공모를 거쳐 인터넷을 업무 또는 생활에 활용한 사례를 찾고,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오던 인터넷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통해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록했다. 업선된 28건의 상황을 검색하여, 검색 방법, 해결 경로, 결론으로 구분하고 화면 그림과 함께 서술하여 인터넷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국배형판 1397쪽·12,000원·영진출판사(794-8645)



- 교육 규제 완화 백서·교육부
- 중학교 영어과 말하기 평가 척도 모형 연구·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중학교 2학년 영어과 기초 학력 보충 지도 자료·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신비 정신 실천 교육·대구광역시교육청
- 연구 논문 제5집·경기도교육연구원
- 학업 성취도 평가 안내 자료(중 2, 초 3, 4)·경기도교육연구원
- 강원 교육의 현장 진단과 대안·강원도교육연구원
- 출판진흥 행동 학습(초등용)·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출판진흥 행동 학습 지도(초등 교사용)·전라북도교육연구원
- 교육경북·96.12월권 113호·경상북도교육청
- 경남교육·96.겨울 제 127호·경상남도교육청
- 초등 학교 국어과 평가 자료·광주광역시교육과학원

###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만 가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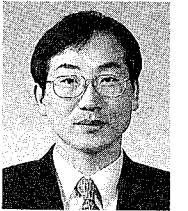
김대식  
경기도등학교 교사

‘철부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철이 들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 이는 나이가 어리고 하는 일이 철이 없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말하자면,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급한 일인지, 급하지 않은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

하는 경우이다. 학생의 경우 공부 시간인지, 잠자는 시간인지, 잠담하는 시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니 사람마다 철부지의 시기는 다 있는 것 같다. 어릴 때는 잘 모르던 부모님 은혜를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부터 더욱 그 은혜를 알게 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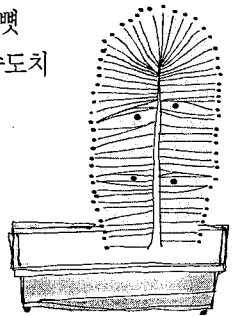
‘철나자 망령난다’는 말이 실감난다. 아무튼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은혜 10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회담수호은(懷耽守護恩)이다. 잉태하여 지켜주는 은혜이다. 임신하여 열 달 동안 무거운 몸으로 오직 태아만을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켜 주신 은혜를 말함이다. 둘째, 임신수고은(臨產受苦恩)이다. 해산(解産)에 즈음하여 수고하신 은혜이다. 산모의 정상분만은 어쩌면 생사(生死)의 갈림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출산할 때 겪는 어머니의 은혜는 말이나 글로써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생자망우은(生子忘愚恩)이다.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는 은혜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겪는 출산의 고통은 잊은 채, 아기의 온전함에 마음을 놓고 즐거워 하시는 은혜이다.

### 겨울 선인장



김형태  
서울양천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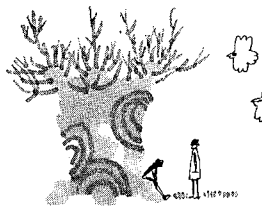
고향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애기는 앓겠어 이미 회색 중독된 몸 가도 다시 살 수 있을런지 마음 좀 녹여줘 추위 죽겠어 어쩌다 이 곳으로 흘러 들어와 늘 목이 마르고 오슬오슬 떠는 신세 가난은 영원한 우리들의 동무인가 옥도에 뿌리를 내려도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힘차게 팔을 내밀지만 손대신 손톱만 고슴도치 도무지 가시옷을 벗어 버릴 수가 없다 여기 오면 좀 나갈까 했는데 뭐 무엇을 원하느냐고 ㅎㅎ 저리 비키기나 해 햇빛이나 더 쬐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당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악업을 자청하는 분이다. 열번째,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이다. 끝끝내 애처롭게 여기시는 은혜이다. 부모님은 자식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 아이처럼 생각되어 늘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손자를 본 할아버지가 된 자식을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다. 이렇듯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에도 보답하는 효심은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효(孝)란 부모의 끝없는 사랑인 자애(慈愛)에 대한 자식의 도리이다. 공자는 “효도라 하여 봉양만 할 줄

알고 공경(恭敬)하지 않는다면 개나 팔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호의호식(好衣好食)만으로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좋은 옷이 부담스러울 뿐이며 좋은 음식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는 무엇보다도 마음 속으로부터 공경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이른바 안심(安心)인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실타래에서 실이 풀리듯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떠남을 위하여



김금자  
서울흥은중학교 교사

겨울 아침 그대 떠나야 하는 시간 올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까치는 나무 위에서 짹 짹 겨울 아침을 울고 있었다. 반가운 손님이 되어 그대는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 그대는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더 큰 만남을 위하여 이제 그대는 떠나야 한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가 되어야 한다.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하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래를 펴야 하리니. 그대여 떠남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오늘 아침 까치의 울음을 비로소 이해하나니 그대 떠남을 축복하는 소리라는 것을.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 대회

우리 교육청은 수도 교육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초등 학교 교장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교육 새물결 추진 대회'를 가졌다.

이 날,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교육 개혁은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특강을 통해, 변화를 위한 교장의 역할과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인종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물결 운동의 7가지 과제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새물결 운동의 7가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수행 평가의 확대 실시
- ② 기초 학력 부진아의 특별 지도
- ③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조직
- ④ 학급 담임 연계제
- ⑤ 학교의 벽을 뛰어 넘는 교육 실현
- ⑥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과 활용
- ⑦ 학교 단위 수업 개선 연구 교사제 추진

이 대회는 초등 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와 학교 현장의 교육 개혁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성과가 컸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평가 보고회

우리 교육청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평가 회를 지난해 12월 17일 대강당에서 열었다. '95년도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평가 보고회는 '96



년 부산 교육 5대 중점 시책의 구현, 교육 개혁 추진 사항, 전반적인 업무 추진과 교육 업무 추진 실적을 부서나 기관별로 점검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유일하게 실시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서 주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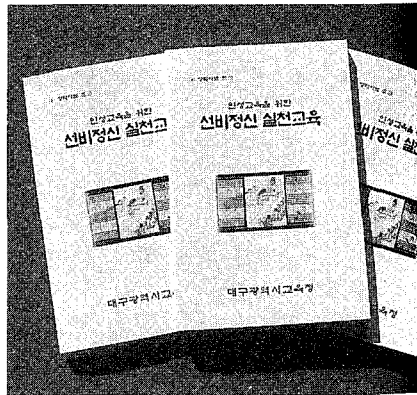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본청 14개 과와 6개 지역 교육청, 그리고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 등 총 27개 부서 및 기관이 1년간의 업무 실적을 보고했으며,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 결과 4개 부서 및 기관이 우수 부서로 표창을 받았고, 59편의 우수 모범 사례 중에서 업선된 5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정순택 교육감은 이날 보고회의 총평에서 각 부서와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무한 경쟁 시대에 교육 또한 투입에 대한 산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환류하여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 모범 사례를 확산 보급하여 교육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은 물론 미흡했던 분야를 빠짐없이 살펴봄으로써 '97년을 대비하는 부산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확 자료 <선비 정신 실천 교육> 발간

우리 교육청은 물질 문명이 팽배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 삶의 규범들을 상실해 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생활 방식들을 치유



하기 위해 혼재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면면히 이어 온 선비 정신을 오늘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올바른 인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장학 자료 <인성 교육을 위한 선비 정신 실천 교육> 5,000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와 교원연수원,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이 책의 1부는 총론편으로, 선비 정신의 기원과 맥, 선비 정신의 개념, 선비의 상과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선비 모습, 선비 정신의 채택 경위 및 교육적 수용, 구현 방안들을 실었고, 2부는 총후론으로, 국가, 국가, 국화 교육을 실었고, 3부는 신의 편으로 조상들의 신의 생활과 현대 사회의 신의, 신의와 준법, 약속의 실천 방향 등을 실었다.

끝으로 4부는 검약편으로 검약 정신의 의의, 선비 정신에서 검약, 검약 정신의 오늘과 내일, 아끼 줄 모르는 학생들의 실태와 방향, 에너지 절약, 학용품 선택과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97년부터 각급 학교 도급 경비 도입으로 자율성 제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 제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7년부터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상 경비로 배부하던 학교 교육비를 도급 경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서무 담당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용진, 강화 관내 26개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립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도급 경비는 예산 과목 구분없이 관서의 장이 집행하고, 증빙 서류나 청구서없이 영수증만 첨부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상 경비는 비록간 전용을 엄격히 통제했으나 도급 경비는 과목에 구애 없이 총괄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인건비, 시설 사범비 등은 도급 경비에서 제외시켰으며, 또한 복리 후생 경비 등의 편중 집행을 지양토록 했다.

우리 교육청의 도급 경비 확대 조치는 학교별로 여건과 실정을 감안한 자율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열린 교육 학습 자료 개발 보급

우리 교육청은 초등 학교 3학년 수학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한 열린 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부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수업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교사가 제시한 학습 문제를 학업 성취도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학습하는 일체 학습 방식이어서,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고 흥미를 잃기 쉬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 자료는 기본 학습용, 발전 학습용, 심화 학습용 등 3단계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수업 시간도 60~80분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기본 학습용은 부진아용으로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최소한 알아야 할 수준의 문제, 발전 학습용은 보통 수준의 학생용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를, 심화

학습용은 우수아용으로 교육과정 내용보다 수준 높은 문제 또는,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홍성표, 제2대 민선 대전시교육감 선출

제2대 민선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홍성표(洪盛杓, 54세,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현 교육위원이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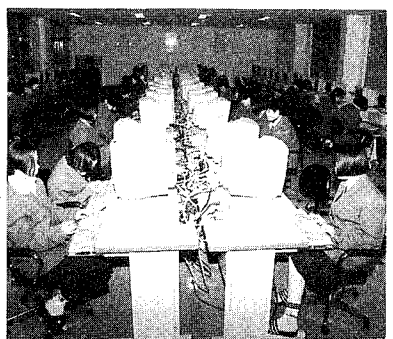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민영삼)는 지난해 12월 26일 제69회 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홍성표 위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홍 위원은 과반수인 4표를 얻었고, 김상은 부교육감은 2표를 얻었다. 당초 7명의 교육위원들이 개회 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제는 부의장이 퇴장하여 이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교육위원만 투표를 실시했다.

홍성표 교육감 당선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출신으로 대전사범학교와 중앙대, 한양대학원을 졸업한 이학 박사로 지난 76년부터 충남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9월 제2대 교육위원으로 선출됐다.

홍성표 교육감 당선자는 현 박경원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97년 1월 16일부터 2001년 1월 15일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 경기도교육청 과학·정보 교육에 300억 투자



우리 교육청은 '97학년도 과학·정보 교육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도내 1천 200여 학교에 과학 교구 781종(초등

학교 618종, 중학교 62종, 고등학교 101종)을 100% 지급하고, 120개 학교를 과학 교육 중심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과학 교육 효율화를 위해 총 466개 학교에 실험 보조원을 배치토록 했다.

과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는 각급 학교 자연 및 과학 교사 2천 400여 명에 대한 실험연수와 과학 교사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과학 교과 연구회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리 교육청은 또, 정보화 시대를 대처하여 42개교에 학교내 근거리 컴퓨터 통신망(네트워크)을 설치하고, 종전 26개교에 국한되었던 첨단 멀티미디어실도 41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컴퓨터 1만여 대를 319개 학교에 지급하고 교원 6천 300여 명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나눠 줄 계획이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산 교사 2천 200여 명에 대한 컴퓨터 연수를 실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컴퓨터 경연 대회도 시행키로 했다.

### 강원도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펼칠 계획

초·중·고교생 학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을 '교육 수요자를 위한 봉사'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물론 학부모가 함께 하여, 교단의 활성화와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각급 학교가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인간 육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하여 창의성이 중시되는 열린 교육을 정착시킨다는 목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명예 교사제를 보다 폭넓게, 또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업 보조와 각종 시험 및 자율 학습 감독뿐만 아니라 교내 체육 대회, 학예 발표회 등 학교 행사에도 참여를 유도하며, 특히 성문제, 진로 상담, 야영 활동, 부적용 학생 결연 등의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제13회 단체 교육상 시상식 열려

단체 신채호 선생의 일을 기리기 위해 지난 '84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충북 교육계 최고의 영예로 꼽혀 온 13번째의 단체 교육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8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위원회와 각 지역 교육장, 각급 학교장 등 교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도상을 받은 청주농고의 박경서 교장은 40여년간 교육 현장에서 농업 교육의 활로 개척, 우수 인력 양성, 교육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고, 교육 행정 기관에 있을 때는 민주적·창의적인 교육 행정 추진으로 장학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인정되었다.

공로상을 받은 청원 부강중 이정우 육성회장은



부강중학에 VTR 카메라 기증, 진입로 포장, 학교 축구부 지원 등과 학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마을 독서실 마련, 주변 불량 학생 선도 및 학원 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또한 대성여중 서소영 양은 수영 영재로 전국 각종 대회 및 애타란타 올림픽 국가 대표 수영 선수로 출전하는 등 타의 모범을, 단양공고 송숙자 양은 초등 학생 때부터 연로하신 조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동생 뒷바라지를 하는 가장으로 노환의 조모 병구완을 극진히 하고,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꾸려 나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고 효성이 지극한 학생으로, 계천동명초등학교 김대수군은 책임감이 강하고 통솔력이 뛰어나며 준비 정신이 투철하여, 각각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을 받았다.

### 충청남도교육청 수학 능력 연구 연찬회 개최

우리 교육청은 입시 준비로 인한 교육의 과행을 극복하고, 보통 교육의 정상화 추구를 위해 작년 12월 20일부터 3일간 충청남도임해수련원에서 도내 일반계 고교 교사 67명, 학부모 67명,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수학 능력 연구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최동준 이사장의 수능 시험의 성격과 해설에 이어, 학생들의 수학 능력 시험 사례 및 학부모의 체험 발표, 학부모와 학생의 분과별 토의와 발표 등 다양한 현장 체험 중심의 수능 시험 전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

오재욱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교직원·학부모·학생은 교육이라는 배에 함께 탄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할 때, 교육은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실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충남 교육의 질 향상에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북도교육청 초등 교과 교육 연구 종합 보고회 개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 학교 국어, 사회, 수학과 교과 교육 연구회 운영 실적 종합 보고회를 지난 12월 12일, 전주 동원웨딩타운에서 교과 연구 위원 및 초등 학교 교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과 교육 연구회별 활동 실적 보고 및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대비해 연구 개발된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법 안내, 그리고 분과별 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어과 교육 연구회에서는 현재 논리적 사고력 신장이 강조되는 교육 추세에 맞추어, 초등 학생의 논설문 쓰기 지도의 제 문제를 진단하고, 논설문 작성 방법을 학년 수준에 따라 제시한 <논설문 쓰기 지도>를 개발했다.

사회과 교육 연구회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차원에서 개발 활용되고 있는 3학년 1학기 지역 교과서에 대한 14개 지역교육청별 교사용 지도 자료인 <시군별 지역 교과서 활용을 돕는 지역화 수업 모형 응용 자료>를 개발하였다.

수학과 교육 연구회에서는 학생 개인차에 대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한 초등 학교 4학년 1학기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성취 수준별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들 3개 교과 교육 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도내 초등 전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하게 될 것이다.

### 전라남도교육청 제16회 전라남도 교육상 시상식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96년도 전라남도 교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전라남도 교육상은 교육 현장의 개선 촉진 및 전남 교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마다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교육 행정 등 3개 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난 이를 한 사람씩 선정하여 표창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나주중앙초등학교의 황진희 교장과 화순여자중학교 오채선 교장,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장인 박병익 서기관이 함께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종무시에 앞서 가진 이날 시상식에서 오영대 교육감은 “우리 교직자들의 진정한 보람은 현시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먼 훗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해 있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라남도 교육상 시상식을 계기로 전남 교직원 모두가 수상자들의 교육자적 행적을 거울 삼아 교직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 경상북도교육청 '96 경북 교육상 및 체육 교육상 시상식 거행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96년도 경북 교육상 및 체육 교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 날 교육 분상에는, 교육 본질에 접근한 열린 교육을 선도한 구미 비산초등학교 김만수 교장과 탁월한 경영 기법과 열성으로 학생들의 인격 도야 및 학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영주 대영고등학교 권인길 교장이, 경북체육교육상 장려상에는 불굴의 투지로 경북 핸드볼 종목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경주여자고등학교 권영수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투철한 국가관과 스승으로써 사명감을 견지하고 정직과 성실 및 사랑으로 학생 지도에 전심 전력한 교육자에게 교육상을 줌으로써, 도내 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겨레의 스승상’ 구현 의지를 더 높게

하고,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교직 생활에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가족이 함께 만든 '97교육 계획 수립 협의회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6일 ‘교육 가족이 함께 만드는 '97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 원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계획하고 명령하는 부서나 사람이 있어 왔고, 이를 수행하는 부서나 사람이 따로 구분되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진일보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일선 교원들을 참여토록 하여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적에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다 함께 만드는, 기획 주체가 분명한, 수요자 중심 행정의, 경남 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의 착근을 위한, 교육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21세기를 대비한,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는, 통합과 전문성을 갖춘, 실행과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부담은 적고 효율이 큰 교육 계획이라는, 획기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교육 개혁의 혁신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참교육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협의회는 교육 행정 분과, 유치원 교육 분과, 초등 교육 분과, 중등 교육 분과, 교학 교육 분과, 사회 체육 교육 분과, 특수 교육 분과 등 7개 분과를 편성, 각 분과를 대표하는 발언자가 우리



교육청의 교육 계획 수립에 즈음한 기탄 없는 비판과 의견, 제안 등을 하는 전체 회의와 7개 분과별로 '97교육 계획 시안과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분과 협의, 총괄반 실무반이 자리를 함께 하여 전체 협의와 분과 협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97경남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과학교육원 이설 사업 본격 전개

제주도과학교육원 이설 사업이 추진 2년째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은 제주 시 오라 2동의 1만여 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2천 700여 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과학교육원은 제주시 주택가에 자리하여 교통 혼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지 및 전선 공간이 협소하여 실험실, 천체관측실, 연수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96년 7월부터 '98년까지 3년간의 이설 추진 기간 중 올해 추진 2년째를 맞게 되면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이설 사업비 총 126억 5천여만원이 투입될 과학교육원의 내부 시설로는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푸코 진자 등이 있고, 건물 시설로는 관리실, 실험·연수실, 전시실, 관측실, 강당 등이 있어, 새 과학교육원이 문을 열게 되면 제주도의 과학·기술 및 컴퓨터 교육 분야의 각종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초 과학과 생활 과학의 진흥이 기대되고 있다.\*



# 교육 정보화에 산·학의 참여가 열쇠

“우리 환경에 맞는 고품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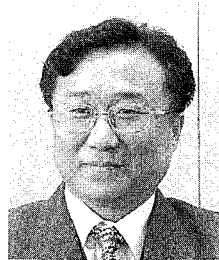
“국내 교육 소프트웨어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개발 업체와 학교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난해 말 국내 처음으로 국내 교육 소프트웨어의 평가 작업을 한 정보통신부 산하 교육 소프트웨어진흥센터 김학구(金學求·47) 사무국장은 ‘산학(産學)’ 협동을 강조했다.

교육 소프트웨어는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 과정은 물론,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를 PC를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놓은 CD롬 타이틀을 말한다.

김 국장은 교육 정보화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의 각급 학교에 최신 기종의 멀티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보급되어 설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정보화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신 기종의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 교육용 S/W와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할 전문 교사의 태부족으로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산업, 기술, 과학 등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교육 정보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한 계획 및



김학구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사무국장

지원과 함께 산·학의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 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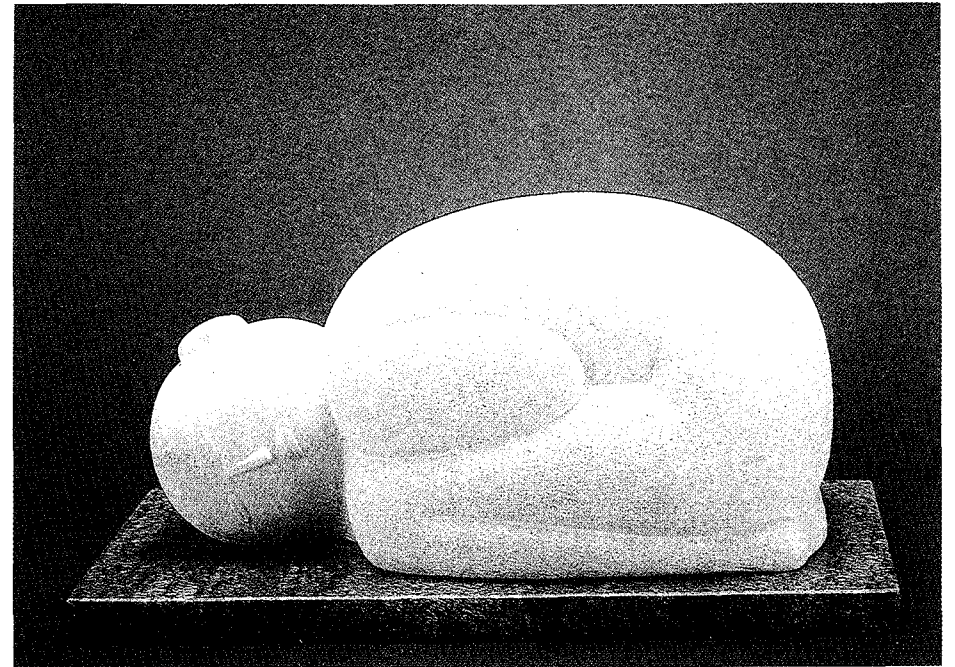
김 국장은 또 교육용 S/W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은 힘들여 개발하기보다는 우리의 교육 환경과 국내 S/W 시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한 채 돈벌이가 쉬운 외국용 S/W를 마구 들여와 국내 영세 S/W 개발 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고, 또한 영업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개발 업체들도 자금 회전을 위한 단기성 매출에만 급급하여 기획력과 교육성이 결여된 교육용 S/W를 개발하여 PC

메이커들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번들 판매 형태와 대형 유통 회사에 원가에 의한 총판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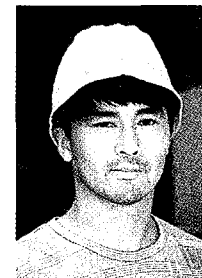
이러한 모순과 악순환의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 시스템(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부, 기업, 연구 기관 단체, 언론이 S/W의 위상을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고, 개발사는 우리의 환경에 맞는 고품질의 S/W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개발 업체들이 인문·자연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질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개발 단계에서는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노력을 방지하고,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과 일반 사용자에게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개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민간 단체 차원에서 정부의 후원과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모전과 현장 교사들의 CAI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중함·57X32X28cm 현대리석·1992



이경재 조각가(목원대 교수)

대지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성애를 품고 있다. 이것은 대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있는 것과 활동하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힘, 평화 그리고 인내와 관용이다. 이는, 이 작가 예술 세계의 본질이다. 작가의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대지의 생명력에 찬 자연을 인지하고 찬미하기 위한 선과 부피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필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크리스티나 벨로니·이탈리아 평토기의 발문에서)